

# 梨花語文學會 학술대회

## 인권 · 제도 · 폭력과 한국어문학 ②

### -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를 사유하다

일시: 2021년 1월 7일(목) 오후 1:00 - 5:00

장소: 실시간 ZOOM

주최/주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주관



# 梨花語文學會 학술대회

## “인권·제도·폭력과 한국어문학 ②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를 사유하다”

- ▶ 일시 : 2021년 1월 7일(목) 오후 1:00 - 5:00
- ▶ 장소 : 실시간 ZOOM 회의 [ID: 897 3313 3583 암호: 210107]
- ▶ 진행 순서

[1:00 - 1:10] 개회 및 회장 인사

\* 회장: 정끝별(이화여대)

\* 사회: 김수연(서울여대)

[1:10 - 1:30] 방영심(상명대)

“포털 뉴스 댓글의 비탄화행-DAUM을 중심으로”

[1:30 - 1:50] 김윤경(말글살림연구소)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고전문학 향유방식 탐구: 이날치 밴드 <범 내려온다>를 중심으로”

[1:50 - 2:10] 연남경(이화여대)

“포노 사피엔스의 ‘위라벨’ 과 자본주의 횡단하기-장류진의 『일의 기쁨과 슬픔』을 중심으로”

[2:10 - 2:20] 중간 휴식 (10분)

[2:20 - 2:40] 이현승(가천대)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한국시”

[2:40 - 3:00] 송주현(한신대)

“포노 사피엔스의 초상과 그늘 - 장강명의 『산 자들』 연구”

[3:00 - 3:20] 양경언(서울예대)

“디지털 리터러시와 시적 언어의 학습 효과”

[3:20 - 4:40] 종합토론

[4:40 - 5:00] 연구윤리교육(편집이사) 및 총회

\* 좌장: 권성미(부경대)

[지정토론자]

조남민 (한기대), 강우규 (중앙대), 박필현 (국민대)  
노춘기 (강남대), 김소륜 (이화여대), 안상원 (부산외대)

梨花語文學會長 정끝별

주최: 이화어문학회

주관: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 목 차

## “포털 뉴스 댓글의 비난화행-DAUM을 중심으로-”

방영심(상명대) .....1

토론 : 조남민(한기대)

##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고전문학 향유방식 탐구 : 이날치 밴드 <범 내려온다>를 중심으로”

김윤경(말글살림연구소) .....

토론 : 강우규(중앙대)

## “포노 사피엔스의 ‘위라벨’ 과 자본주의 횡단하기 -장류진의 『일의 기쁨과 슬픔』을 중심으로”

연남경(이화여대) .....

토론 : 박필현(국민대)

##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한국시”

이현승(가천대) .....

토론 : 노춘기(강남대)

## “포노 사피엔스의 초상과 그늘 - 장강명의 『산 자들』 연구”

송주현(한신대) .....

토론 : 김소륜(이화여대)

## “디지털 리터러시와 시적 언어의 학습 효과”

양경언(서울예대) .....

토론 : 안상원(부산외대)

# 포털뉴스 댓글의 비난화행

-DAUM을 중심으로-

방 영 심(상명대)

## 차례

1. 서론
2. 화행과 비난화행
3. 분석 자료
4. 포털뉴스 댓글 비난화행의 특징
  - 4.1. 비난 대상의 특징
  - 4.2. 비난화행 유형별 특징
  - 4.3. 결합을 통한 비난의 강화
5. 결론

## 1. 서론

본고는 인터넷 포털 뉴스의 댓글에 나타난 비난화행의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화에서 ‘비난(非難)’은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것’<sup>1)</sup>을 말한다. 일상의 언어생활에서도 상대의 언어에 사회적 규범이나 일상성으로부터 벗어난 일탈적인 요소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언급하거나 평가하는 발화를 한다. 그런데 부정적 감정의 표출인 ‘비난하기’는 면대면의 일상 언어보다 인터넷과 같은 가상공간에서 더 빈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가상이라는 허상의 공간에서 특정, 불특정 상대에게 말하고 싶은 대로 감정을 표출하는 언어적 행위가 과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불링(cyberbullying)’<sup>2)</sup> ‘사이버 혐오’, ‘사이버 모욕’ 등 새롭게 생겨나는 어휘들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사이버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혐오와 비난과 욕설 등 부정적 평가의 언어 행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불평화행을 분석한 Chen et al.,의 연구에서도 담화완성형설문지를 통한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의 불평화행이 통제된 형태로 나타났다지만, 온라인 공간에서의 갈등적 화행은 더욱 다양하고 많은 수의 전략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한다.<sup>3)</sup> 이는 ‘면대면’의 억제요인이 배제된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의 언어 행위가 더 자유롭게 되고 ‘불평, 비방, 협박, 저주’ 등의 부정적인 언어 행위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1)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2) 위의 사전, 사이버불링: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욕설, 헐담 따위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

3) Chen, Y. S., Chen, C. Y. D. and Chang, M. H. (2011). American and Chinese complaints: Strategy use from a cross-cultural perspective. *Intercultural Pragmatics*, 8(2), 253-275.

사이버공간 중에서도 비아냥과 욕설, 혐오표현 등의 ‘비난하기’가 심각한 곳으로 인터넷 포털 뉴스의 댓글란 꼽을 수 있다. 2020년 12월 23일 정치 뉴스<sup>4)</sup>에 달린 댓글에는 “뛰라 쳐 씨부리셨노 죽탱이를 쳐 맞아야 정신차릴라나!”, “으이그 관중들 어떻게 해서든 자극적인 말로 관심 받으려고 그러다 혀 썩는다 이놈들아”, “당신은 다운증후군 아닌가 항상 떨떨한거 보니”<sup>5)</sup> 등과 같은 욕설과 비아냥의 댓글들이 난무했다. 이 기사문에 올라온 실시간 20개의 댓글에는 긍정적 평가를 기반으로 한 언어적 표현은 단 한 개도 나타나지 않았다. 해당 기사가 정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독자들의 정치적 성향과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 댓글 잔치는 비단 정치 뉴스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같은 날, 경제 뉴스에 올라온 「내년 실손보험료 10%대 인상..’착한실손’은 동결」이라는 기사에도 “내년도 더 오르네! 재앙아”, “건보에서 원하사람들 실손 넣게 바꿔라!!! 보험사 나아쁜 쉼리들!!!”, “그지같은 실손” 등과 같이 부정적인 판단에 근거한 비난하기의 댓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심지어 수능 만점자의 독서 습관에 대한 기사문에도 “의대 가서 국시 꼭 보길”, “검사는 되지 마시길”, “우리 위층 고3님은 새벽내내 화장실만 왔다갔다거리고 그다음날 쳐자느라 학교도 안가던데” 등과 같이 관련성이 전혀 없는 제삼자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등재되기도 했다.<sup>6)</sup>

뉴스 댓글의 이러한 ‘비난하기’는 양적으로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욕설+비아냥+분노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강화된다는 점에서도 문제적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일상대화에서의 비난하기가 대부분 선행발화와 선행발화자에 국한된다면 포털뉴스 댓글에서의 비난하기는 선행발화, 선행발화자뿐만 아니라 기사의 내용과 관련된 타인들에게까지 미치고 심지어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삼자를 향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각성을 감안하여 NAVER, DAUM은 연예뉴스, 스포츠뉴스 등에서 댓글을 금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예뉴스와 스포츠뉴스를 제외하고 댓글달기가 가능한 분야에서는 여전히 비난하기의 양상이 심각한 것을 볼 수 있다.

사이버공간의 ‘비난하기’ 양상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비난화행(또는 ‘비난 표현’) 연구에서 분석 대상은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일상대화였다. 이는 문자로 이루어지는 사이버공간의 댓글을 ‘발화’로 인정하여 ‘화행’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발화’는 ‘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것. 또는 그에 의하여 나오는 일정한 음의 연속체.’<sup>7)</sup>이므로 인터넷 포털뉴스, 댓글과 같이 문자언어로 제공되는 텍스트를 발화의 영역에 포함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댓글은 ‘음성적’ 연속체는 아니지만 문어적 표현이 아니라 구어적 표현을 즉각적으로, 감정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용한다. 즉, 인터넷이라는 공간적 특수성 때문에 문자로 입력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구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털에 제공되는 뉴스 기사문이 수많은 대중(청자)을 향한 기자의 언어적 표현이라면 이에 대한 댓글들은 기사에 대한 개인의 의견 발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댓글의 경우 ‘발화’의 한 종류로 분류하며, 이에 따라 ‘비난하기’라는 표현이 아니라 ‘비난화행’으로 화행의 한 분야로 간주하여 연구한다.

4) 2020년 12월 23일 NEWSIS. 「절름발이 총리’ 발언한 주호영. 인권위 “인권침해 해당”」의 기사이다.

5) 비난하기의 표현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욕설, 비아냥 등의 부정적 표현을 댓글 원문 그대로 제시한다. 어문 규범에 어긋난 표기, 표현도 수정하지 않고 원문대로 제시한다.

6) 그러나 이 기사의 댓글은 전체적으로 긍정적 표현이 주를 이루었다.

7)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비난화행’은 ‘정표화행’의 하위 유형이다.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표현하는 행위’인 정표화행<sup>8)</sup>의 하위 유형 중 하나인 ‘비난화행’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화행’이 아니라 면대면 일상 대화에서 나타나는 비난의 표현 방식에 대한 연구로는 임시은(2015)<sup>9)</sup>, 김정현(2016)<sup>10)</sup>이 대표적이다. 이들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비난하기 표현방식’ 차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일상대화에서 두 언어에서의 비난하기 표현 방식의 차이에 초점을 두어 분석했다. 특히 비난의 표현에서 일본어화자는 ‘확인’하는 형태로 접근하지만 한국어화자는 ‘지적’의 형태로 접근한다는 차이를 밝혀낸 것은 흥미롭다. 그러나 한국어만을 대상으로 한 비난하기 표현, 비난화행 등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김태나(2011)<sup>11)</sup>는 한국어 발화에서의 무례(無禮)<sup>12)</sup>를 분석한 연구이다. 무례 발화의 내용적 기제를 ‘부정적 양상으로 간주하기’, ‘행동의 제한 및 수정하기’, ‘무시하기’, ‘멋대로 추정하여 말하거나 행동하기’, ‘비동질적 표지어 사용 및 유대감 거부하기’, ‘상대방의 공간 침해하기’, ‘비난하기’, ‘말과 실천을 동일시하지 않기’로 나누고 ‘비난하기’를 ‘무례’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박선경(2014)<sup>13)</sup>에서는 김연아의 경쟁 선수였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를 대상으로 공격하는 내용의 댓글 플레임을 수집하여 분석하면서, 댓글에서 보여주는 특정 대상을 향한 갈등적 화행을 분석하고 거기에 나타나는 무례 전략의 선호도와 의미적 특징을 밝혀내고 있다. 이 분석에 의하면, 한국인은 일본인이나 영어권 서양인에 비해 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방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두 집단에서는 무례에 선호하는 전략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인은 ‘으스스대며 깔보기, 경멸/조롱하기’ 전략을 가장 선호하였고 서양인들은 ‘비판하기’ 전략을 가장 선호하였다. 직접적 갈등 화행과 간접적 갈등 화행의 선택에서도 한국 네티즌은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직접적 갈등 화행을 선호하였으며, 목전의 대상에게 말하는 듯한 구어체의 텍스트 실현이 많았다.

비난표현 또는 비난화행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의 ‘비난화행’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다른 화행 분야 연구에 비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향이 있다. 특히 면대면의 일상대화가 아니라 사이버공간에서 문자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더욱 적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이버공간에서의 비난화행은 그 어떤 화행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 의사소통의 한 양상으로서 댓글에 나타나는 ‘비난화행’의 형식과 특성을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8) 이혜용, 『한국어 정표화행 연구』, 역락, 2015, 40쪽. ‘정표화행’은 화자가 사태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감정적 정표화행’과 화자의 감정을 표현함과 동시에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전달하는 ‘평가적 정표화행’으로 구분된다.

9) 임시은, 「비난의 표현방식-한일 화자의 비교」, 『일본연구』 제65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15.

10) 김정현, 「한일 「비난표현」 연구」, 『日本近代學研究』 제53집, 한국일본근대학회, 2016.

11) 김태나, 『한국어 발화에서의 무례(無禮) 연구-무례 유형과 서양의 무례 유형 비교-』, 『한국어교육』 22(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1.

12) ‘무례’는 ‘Impoliteness’의 한국어 번역으로,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Politeness공손’과 대립하는 개념이다.

13) 박선경, 『한국어와 영어 갈등화행의 비교언어문화적, 분석 인터넷 스포츠 뉴스 댓글에 나타나는 ‘플레임’ 현상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4.



## 2. 화행과 비난화행

오스틴(Austin,1962[1975])은 일상 언어에 사용하는 문장 가운데 참과 거짓을 진술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장이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화행(Speech Act)’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했다. 발화를 행위의 관점에서 이해한 Austin(1962) 이후로 화행(Speech Act)은 ‘언표 행위(locutionary act), 언표내적 행위(illocutionary act), 언향적 행위(perlocutionary act)’<sup>14)</sup>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왔다. 예를 들면, ‘언표 행위’는 ‘문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라는 문장을 발화하는 것이고, ‘언향적 행위’는 이러한 발화에 의해 하나 이상의 결과 즉, 청자가 문을 열게끔 하거나 청자를 짜증나게 하거나 책을 읽고 있는 어떤 사람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결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언표내적 행위’는 앞의 두 행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 곧 어떤 사람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일과 발화 행위를 동시에 행하는 것이다.<sup>15)</sup>

이러한 구분에 의하면, 발화에서는 화자의 ‘언표내적 행위’가 중요하다. Searle(1969)은 어떤 화행이 충족해야 하는 적정 조건(felicity condition<sup>16)</sup>)을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적정 조건에 따라 화행을 분류했다.<sup>17)</sup> 그런데 ‘비난화행’은 정표행위의 범주에 따라 그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해용<sup>18)</sup>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표화행의 범위를 감정에 국한하여 좁게 설정할 경우 인간의 생각이나 의식과 관련이 있는 ‘비난’은 여기에 속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정표화행의 범위를 설정하고 화자의 선호, 혐오에 따라 하위 유형을 분류하는 논의들이 등장한다. 마틴 클립<sup>19)</sup>을 비롯하여 이해용<sup>20)</sup>에서도 정표화행의 하위 유형 분류가

14) 용어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다르게 명명하기도 한다. 발화행위(locutionary act),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 발화효과행위(perlocutionary act)

15) 언표적 행위는 다시 ‘음성 행위(phonetic act), 표화 행위(phatic act), 표의 행위(rhetic act)’로 분류된다(Austin 1962:94-101). ‘음성 행위’는 어떤 소리를 발성하는 행위이고 ‘표화 행위’는 어떤 낱말을 일정한 문법에 따라 발화하는 형태 통사적 측면의 행위이고 ‘표의 행위’는 한정된 의미(sense)와 지시(reference)를 가지고 그 낱말들을 사용하는 수사적 측면의 행위를 말한다.

16) Searle의 적정 조건

- ㉠ 명제 내용 조건(propositional content condition): 시간성을 지니는 어떤 사건 E나 어떤 행위 A(전달하는 문자 그대로의 명제)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언표내적 효력을 나타내는 장치에 의해서 결정된 명제 내용이 다르면 그 행위 또한 달라진다. ‘보도’와 ‘예측’의 차이점을 보면 ‘보도’는 과거나 현재에 나타날 수 있는 사실을 내포하고 ‘예측’은 미래에 나타날 사실을 내포한다.
- ㉡ 예비 조건(preparatory condition): 어떤 행위나 사건에 대한 화자와 청자의 준비 상태이다. 곧 언어 행위들이 발화의 언표내적 효력에 관련하고 있을 때 말할이와 들을이의 지위나 위치의 차이 따위로 나타나는 언어 행위의 구분점이다.
- ㉢ 성실 조건(sincerity condition): 어떤 행위가 수행되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화자와 청자의 심적 상태를 말한다. 곧 말할이의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의 명제 내용이 지니고 있는 모든 언표내적 행위를 수행할 때 말할이가 명제 내용에 대해서 갖는 태도나 상태 등을 표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믿음, 의도, 원함, 기쁨’ 같은 언표내적 행위를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 ㉣ 본질 조건(essential condition): 어떤 화행을 다른 유형의 화행과 구별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것으로 어떤 화행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청자가 어떤 행위를 하도록 언질을 주거나 청자가 어떤 사건에 대한 인식을 주는 것이다. 또는 행위의 목적이나 지점이 다른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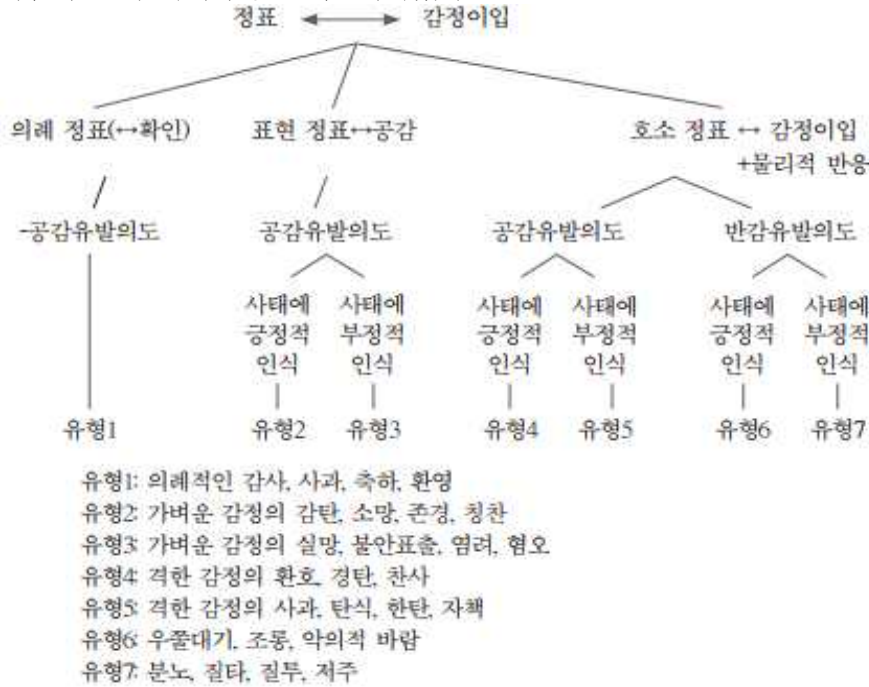
17) Searle의 화행 분류

- ㉠ 단언 행위(assertives): boast, complain, conclude, describe, predict, state
- ㉡ 지시 행위(directives): advise, beg, command, order, plead, request
- ㉢ 언약 행위(commisives): bet, consent, guarantee, intend, promise, swear
- ㉣ 정표 행위(expressives): apologize, condole, congratulate, deplore, thank, welcome
- ㉤ 선언 행위(declarations): appoint, declare, excommunicate, fire, pronounce, r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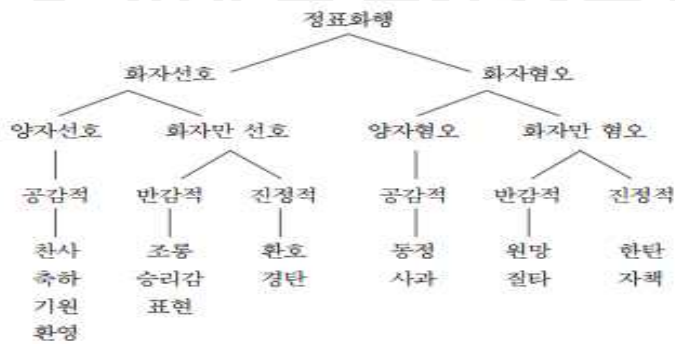
18) 이해용, 앞의 책, 69-72.

19) 마틴 클립(1991)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위유형이 제시되었다. (이해용, 앞의 책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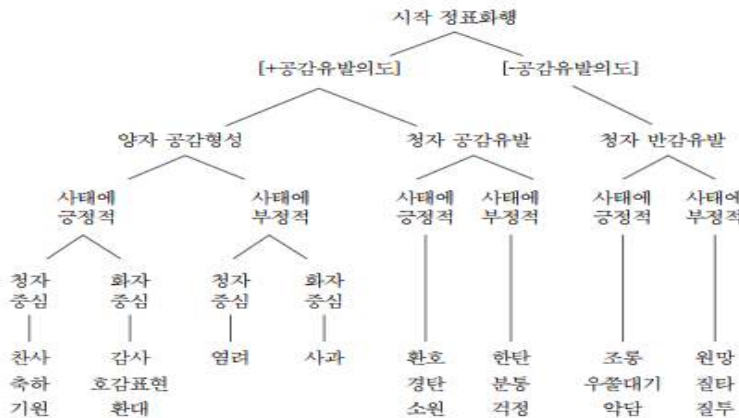
이루어졌는데, 조용길(2017)21)에서 이 두 분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간의 정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하위유형을 세분화하였다.



〈그림1〉 조용길(2017) 정표화행의 하위 유형



20) 이혜용에서는 시작 정표화행과 반응 정표화행으로 나누어 제시하는데, 시작 정표화행의 예는 다음과 같다.



21) 조용길, 「정표화행의 하위분류 가능성에 대한 연구」, 『독어학』 제36집, 2017, 174.

이 중에서 ‘유형1, 유형2, 유형4, 유형5’<sup>22)</sup>는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비난화행’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청자의 공감을 유발하려는 의도이거나 반감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으면서 사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표출되는 화행에 해당하는 ‘유형3’, ‘유형7’이 ‘비난화행’에 해당한다. 비난은 대상의 허물을 드러내어 나쁘게 말하거나 분노, 적개심 등을 표출하는 행위이므로 사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저변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유형3’에서 ‘불안표출’, ‘염려’는 그 자체로 비난화행이 완성된다기보다는 모욕, 질책, 분노 등 다른 화행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비난화행 실행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유형6’에서 ‘조롱하기, 악의적 바람’은 ‘상대방을 비웃거나 깔보는 것, 나쁜 마음으로 하는 바람’으로, ‘악담’에 해당하므로 비난화행에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비난화행’을 부정적 인식을 표출하는 화행 모두를 포괄하는 광의의 정의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광의의 정의에 따라 비난화행의 하위 유형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sup>23)</sup>

비난화행의 하위 유형	내용
비아냥	선행 발화자 <sup>24)</sup> 또는 발화내용, 발화 내용 중 인물 등에 대해 알뜰게 빈정거리는 행위
모욕	선행 발화자 또는 발화내용 중 인물의 인격을 무시하고 깔보며 욕된 표현을 하는 행위
비하	선행 발화자 또는 발화내용 중 인물에 대해 업신여겨 낮추는 표현을 하는 행위
비방	선행 발화자 또는 발화내용 중 인물의 행위 또는 추론한 행위에 대해 헐뜯는 표현을 하는 행위
질책	선행 발화자 또는 발화내용 중 인물에게 잘못을 꾸짖어 나무라는 표현 행위
분노	선행 발화자 또는 발화 내용 중 인물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화를 표현하는 행위
분통	후행 발화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해 화를 표현하

22) ‘유형5’는 사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지만 비난화행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한탄’, ‘탄식’ 등은 화자 자신이 처한 부정적 사태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이며, ‘자책’은 ‘자신의 결함이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다. 즉, ‘유형5’는 자신이 대상인 감정을 표현하는 화행이므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비난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3) Nguyen(2005:111)에서는 ‘Felicity Conditions of Criticism’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 ‘비난화행’의 적정조건으로 참고하였다.

1. Propositional Content Condition(PCC): The act performed or the choice made by the hearer is considered inappropriate according to a set of evaluative criteria that the speaker holds or a number of values and norms that the speaker assumes to be shared between himself/herself and the hearer.
2. Preparatory Condition(PC): The speaker holds that this inappropriate action or choice might bring unfavourable consequences to the hearer or the general public rather than to the speaker himself/herself.
3. Sincerity Condition (SC): The speaker feels dissatisfied with the hearer’s inappropriate action or choice and feels an urge to make his/her opinion known verbally.
4. Essential Condition (EC): The speaker thinks that his/her criticism will potentially lead to a change in the hearer’s future action or behaviour and believes that the hearer would not otherwise change or offer a remedy for the situation without his/her criticism.

	는 행위 <sup>25)</sup>
조롱	선행 발화자 또는 발화내용 중 부정적인 것에 대해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고소함을 표현하는 행위
우쭐대기	선행 발화자 또는 발화내용 중 인물보다 발화자 자신이 낫다는 것을 전제로 우월감을 표현하는 행위
악담(저주)	선행발화자 또는 발화내용 중 인물에게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후행 발화자의 희망을 표현하는 행위
위협	선행 발화자 또는 발화내용 중 인물을 힘으로 협박하는 표현 행위
추궁	선행 발화자 또는 발화내용 중 인물의 잘못된 일을 엄하게 따지는 표현 행위
실망	선행 발화자 또는 발화내용 중 인물의 행위가 후행 발화자가 바라는 바가 아니어서 마음이 상했음을 표현하는 행위
반박	선행 발화자 또는 발화 내용 중 인물의 발화 내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표1〉비난화행의 하위 유형

### 3. 분석 자료

본고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한 것은 다음(DAUM) 포털뉴스<sup>26)</sup>에 올라온 댓글들이다. 2020년 12월 23일~27일까지 하루에 두 번씩(오전 10시, 오후 9시) 다음(DAUM) 첫 화면의 뉴스 기사를 수집하였다. 다음(DAUM) 첫 화면에 제시되는 뉴스는 ‘뉴스-연예-스포츠-영화-자동차-부동산’으로 대분류되어 있으며, ‘뉴스’는 다시 ‘정치, 경제 등의 주요 뉴스(1면, 2면)-많이 본 뉴스/열독률 높은 뉴스(3면)’로 3면에 걸쳐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서 연예, 스포츠, 영화 분야에는 댓글이 허용되지 않고 그 외 분야의 기사에는 댓글이 허용된다.

다음(DAUM)의 댓글은 ‘추천댓글/찬반순/최신순/과거순’으로 분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최신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20개씩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끊임없이 제공되는 새로운 정보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상호작용성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분석 대상의 댓글 개수는 아래 〈표2〉와 같다.<sup>27)</sup>

날짜	뉴스의 개수	댓글 수
12월 23일	20개(오전 10, 오후 10)	400
12월 24일	25개(오전 10, 오후 15)	500
12월 25일	20개(오전 10, 오후 10)	400
12월 26일	20개(오전 10, 오후 10)	400

24) 뉴스댓글에서의 의사소통은 면대면의 일상대화에서 나타나는 화자와 청자의 대화쌍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화자와 청자’라는 표현 대신 뉴스 생산자 또는 댓글 생산자를 ‘발화자’라고 표현한다. 이에 따라 뉴스의 기사를 선행 발화,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선행 발화자로 칭한다. 댓글은 후행 발화, 댓글 작성자는 후행 발화자이다.

25) ‘분통화행’은 후행 발화자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이므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비난화행의 영역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이 부정적인 것에 대해 선행 발화자의 책임 또는 선행발화 중 등장인물에 대한 책임 등을 물으면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하기가 이루어지므로 비난화행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였다.

26) 다음, <https://www.daum.net/>

27) 댓글 전체에 대한 분석이 완성되지 않아 하위유형별 빈도는 발표문에 제시하지 못했다. 분석이 완성된 후 빈도를 제시할 예정이며, 발표문에서는 현재 분석 자료에서의 빈도에 따라 유형을 제시한다.

12월 27일	25개(오전 10, 오후 15)	500
	110개	2,200

<표2> 분석 자료

#### 4. 포털뉴스 댓글 비난화행의 특징

##### 4.1. 비난 대상의 특징

비난화행은 다른 정표화행과 마찬가지로 사태, 청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이며, 그중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표현하는 화행이다. 지금까지의 비난화행 연구에서, 비난의 부정적 인식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 무엇을 향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면대면 발화 상황에서는 대부분 선행발화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거나 선행발화자의 발화 내용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댓글과 같은 비대면 상황에서의 비난화행은 이보다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

첫째, 비난의 방향이 기사 내용에 나오는 인물, 즉 선행발화 내용 중의 인물을 향한 경우가 빈도 높게 나타나는데, 내용 중 주요 인물뿐만 아니라 부차적 인물, 제삼자에게까지 미치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1) ㄱ. 당신은 다운중후군 아닌가 항상 떨떨한거 보니
  - ㄴ. 그러면 그 용어를 국어사전에서 지우고 사용하지말라는 법을 만들어야지 다른법은 잘 땡글면서.....
  - ㄷ. 으이그 관중들 어떻게 해서든 자극적인 말로 관심 받으려고 그러다 혀 썩는다 이놈들아
  - ㄹ. 저런걸 뽑아준 지역구 인간들은 뇌가 있는거냐~~~
  - ㅁ. 으이구, 문제양.
  - ㅂ. 철수와 유승민 어디갔니? 니들 먼저 맞는거 보고 맞으려다
  - ㅅ. 여기 정신병환자들 땡넵ㅋㅋ 지들만에 세상에서 사는구만

(1ㄱ~ㅁ)은 2020년 12월 23일 「‘질름발이 총리’ 발언한 주호영..인권위 “인권침해 해당”이라는 뉴스의 댓글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 비하성 표현이 담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제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당직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에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그런데 (1ㄱ)에서 비난의 대상은 주호영이고, (1ㄴ)에서 비난의 대상은 인권위, (1ㄷ)에서 비난의 대상은 정치인 전체, (1ㄹ)에서 비난의 대상은 그런 정치인을 선거에서 뽑은 지역구 사람들, (1ㅁ)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대통령에게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ㄷ)은 「한국 확보 코로나백신 4603만명분으로 늘어..AZ·얀센·화이자 계약체결」이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기사 내용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인물을 비난의 대상으로 한 것 같지만, 이전 기사에서 백신 확보에 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던 정치인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비난을 확장한 것이다. (1ㅅ)은 해당 기사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다. 이처럼 면대면 발화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비난의 대상이 선행 발화 내용 중 등장하는 주요 인물뿐만 아니라 등장하지 않는 인물,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매우 다양하게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선행 발화자, 즉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해당 기자가 소속된 신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표현하는 비난화행도 자주 나타난다. 이와 같은 비난의 대상도 면대면 발화의 비난화행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 (2) ㄱ. 뭘기사가 주가 광고성 기사로 도배질이나.??누가시키디.??데스크가 시켰지.??그래서 니털이 기다기 소릴 듣는겨....
- ㄴ. 문화일보 무슨 약점 잡혔나? 아님 짜고 치는 고스톱
- ㄷ. 언론 쓰레기들
- ㄹ. 야 이게 기사냐? 포털에 이런 게 왜 실리냐?

(2ㄱ~ㄴ)은 2020년 12월 23일 문화일보의 「〈과워인터뷰-주호영〉20여년 판사 생활하다 정계 입문 5選.. 朴탄핵 때 탈당했던 '非朴 복당파'」라는 기사에 대한 댓글이다. (2ㄱ)은 기사문을 작성한 기자와 데스크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2ㄴ)에서는 해당 기자가 소속된 신문사를 비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1ㄷ)은 같은 날 「백신생산국 우선·20월부터 독려·정부 잘 준비..“다 들렀다“ 커지는 불신」라는 제목의 News1 기사에 달린 댓글인데, 해당 기사와 신문사뿐만 아니라 언론 전체를 비난의 대상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ㄹ)은 기사 자체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사를 신고 있는 포털사이트까지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면대면 발화와 달리 인터넷이라는 추상적 공간에서 문자로 상호작용하는 댓글은 비난의 대상이 다양하고 확장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 4.2. 비난화행 유형별 특징

비난화행의 하위유형 중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것은 ‘비아냥’이다. ‘비아냥’은 ‘알뜰게 빈정거리는 것’ 이므로 비아냥화행은 ‘선행 발화자 또는 발화내용 중 인물, 발화내용 등에 대해 알뜰게 빈정거리는 표현을 하는 행위’ 라고 할 수 있다. 비아냥화행은 욕설이나 부정적호칭, 금기어와 같은 비하적,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 긍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부정적인 판단의 비난을 수행하는 것이다.

- (3) ㄱ. 짜장이나 먹어야겠다.
- ㄴ. 판사가 고을 원님은 아니겠죠?
- ㄷ. 제 집도 못 지키면서 미국 땅까지 가 오지랴 떨고 있는디...ㅋ 많이 춥겠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 ㄹ. 합성1위상주세요.ㅋ
- ㅁ. 100점보다 더 높은 90점 ㅎㅎ2020년 최고의 말씀 ㅋ

(3ㄱ~ㄷ)은 12월 23일 「尹정계 사유까지 캐물은 판사..집행정지 재판 예측불가」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부정적인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총장→짜장’으로 대체하여 해당 기사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에 대한 비아냥화행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ㄴ)에서도 부정적인 표현이 등장하지 않지만 판사의 판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 비아냥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3ㄷ)은 「국민의힘, 민경욱·김소연 당협위원장직 박탈..김진태 유입」이라는 기사의 댓글로, 주요 인물의 행위에 대해 비아냥대고 있으며, (3ㄹ)은 「'합성사진'으로 국제공모전 대상..제주도 “수상 취소“」라는 기사의 댓글로, 합

성 분야에서 1위상을 주라는 말로 비아냥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3口)은 2.5단계 유지이지만 이미 3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이라는 기사에 대해 시험의 점수를 비교해서 설명하며 비아냥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4)는 댓글에 나타난 ‘모욕화행’의 예이다. ‘모욕화행’은 ‘선행 발화자 또는 발화내용 중 인물의 인격을 무시하고 깔보며 욕된 표현을 하는 행위’로 주로 욕설을 포함한 비속어 등이 사용된 강도 높은 비난화행이라고 할 수 있다.

- (4) 가. 뚫린 주@이라고 함부로 놀리지마라  
 나. ♪♪♪들하고있네 재인이꺼병이들  
 다. 미친... 꺼져!!!  
 라. 어휴 정신 나간놈들—  
 마. G 랄 하고 ja 빠졌네 아오ㅋㅋㅋㅋ

욕설과 속된 표현은 청자를 직접적으로 경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화자의 부정적 감정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 ‘주@이’, ‘♪♪♪들’, ‘미친’, ‘정신 나간 놈’ 등처럼 ‘욕하여 이르는 말’이나 ‘속되게 이르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인물의 인격을 무시하고 깔보는 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모욕화행은 비아냥화행에 비해 정치, 경제, 부동산 분야의 뉴스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5)는 ‘비하화행’이 나타난 댓글이다. 선행 발화자 또는 발화 내용 중 인물을 업신여겨 낮추는 표현을 하는 행위인 ‘비하화행’은 낮잡아 이르는 호칭, 금기된 표현 등을 주로 사용한다.

- (5) 가. 기레기에게 코로나19걸리게하는사람이 애국자다  
 나. 대개문들 너거도병원에입원해라 배아파하지말고  
 다. 설치류 취급이 이래 어렵나~~~!!  
 라. 그래서 다걸리면 한다구 굼뺑아  
 마. 소머리들아 좀 누구나 하는 생각말고 그런자라에 뽀헛놔으면 다른 발상좀해라  
 바. 저얼굴이 쓰레기 ...쓰레기가 말을하네...

(5가)의 ‘기레기’는 ‘기자+쓰레기’의 혼성어<sup>28)</sup>로, 기자를 낮추고 업신여기는 호칭인데,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비하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대개문’, ‘설치류’, ‘굼뺑이’, ‘소머리’ 등은 해당 기사문, 즉 선행 발화의 내용 중 인물을 업신여겨 낮추는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후행 발화자, 즉 댓글 작성자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성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6)은 선행 발화자 또는 발화내용 중 인물의 행위 또는 추론한 행위에 대해 헐뜯는 표현을 하는 행위인 ‘비방화행’이다. 비방화행은 선행 발화자 또는 발화내용 중 인물이 했을 것이라고 추론한 행위에 대해서도 비난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 (6) 가. 나갈 놈은 빨갱 김종인 아냐?

28) 두 낱말의 일부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스모그’, ‘라뷰이’ 따위가 있다. ‘기레기’는 ‘기자’의 일부인 ‘기’와 ‘쓰레기’의 일부인 ‘레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혼성어에 속한다.

- ㄴ. 역시 더듬당의 2중대네. 할배는 더듬당이 파견한 세작,
- ㄷ. 추미애의 중복이 다그래

(6ㄱ~ㄴ)은 「국민의힘, 민경욱·김소연 당협위원장직 박탈..김진태 유임」이라는 기사에 대한 댓글로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장이 ‘빨갱이’, ‘민주당에서 파견한 세작’이라는 부정적 추론을 통한 비방하기를 행하고 있다. (6ㄷ)은 기사의 내용에 등장하는 검사들을 ‘~의 중복’으로 부정적으로 추론하여 비방하고 있다.

(7)은 선행 발화자 또는 발화내용 중 인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불만을 표현하며 잘못을 꾸짖어 나무라는 ‘질책화행’의 예이다.

- (7) ㄱ. 주호영 ... 아무리 내가 민주당을 안좋아 한다 해도 국무총리 보고 질름받이가 뭐냐
  - ㄴ. 적당히 해묵어라 과하면 체하제
  - ㄷ. 강원도지사님...행정명령 내리세요...집합금지명령...

질책은 선행 발화자나 발화 내용 중의 인물의 행위를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꾸짖거나 나무라거나 야단치는’ 화행이라고 할 수 있다. (7ㄱ~ㄷ)은 기사내용 중 인물의 행위를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꾸짖고 있다.

(8)은 ‘분노화행’을 보여주는 댓글이다. 선행 발화자 또는 발화 내용 중 인물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화를 내어 표현하는 행위인 ‘분노화행’이라고 할 수 있다. 분노는 분개하여 몹시 화를 내는 것이다. ‘화나다, 분노하다’ 등의 명시적 수행동사가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선행 발화자, 선행 발화 내용에 대해 분노하는 감정을 수행하고 있다.

- (8) ㄱ. 매번 갱신으로 보험료 올리면서 또!!!!
  - ㄴ. 빨아주기 기사야? 뭐야?
  - ㄷ. 이사람 일대기를 써주는게 기사야? 그래서 어쩔단거야?

(9)는 발화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해 화를 표현하는 행위인 ‘분통화행’이다. 분노화행이 선행 발화자 또는 선행 발화내용 등에 대한 화라면, 분통은 발화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화라는 차이가 있다. 분통화행은 일차적으로는 발화자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행 발화자나 발화 내용의 인물이나 상황을 비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9ㄱ)은 일차적으로는 어린이집에 대한 발화자 자신의 상황이 부정적임을 표현하고 있지만, 기사 내용 중 인물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비난을 포함하고 있다. (9ㄴ)도 일차적으로는 댓글 작성자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부정적이어서 이에 대한 화를 표현하면서도 정부의 대처에 대한 비난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댓글에서 ‘분통화행’은 빈도가 매우 낮다.

- (9) ㄱ. 어린이집에서는 원장갑질이..... 고발하고 싶었는데 참았네요...
  - ㄴ. 학원은 이미 3단계다... 죽겠다 할거면 다하던지 안할거면 학원 수업가능케해라 불특정 다수가 오는 술집밥집은 되면서 정해진원생 마스크쓰고 취식없이 수업만 하는데 왜 금지냐!!!



(10)은 선행 발화자 또는 발화내용 중 부정적인 것에 대해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고소함을 표현하는 행위인 ‘조롱화행’이다 댓글에서 조롱의 대상은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 뿐만 아니라 기자, 신문사 등 다양하다.

(10) ㄱ. 현금 받아 벌금내고도 남겼다~~~

ㄴ. 기자님은 더럽게 오래사세요

(10ㄱ)은 「모임 하지 말라고 해도..세미나 열어 확진자 생긴 교회에 과태료」라는 12월 24일 연합뉴스의 기사에 대한 댓글이다. 시설 모임을 금지한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어겨 벌금 150만 원이 부과된 불행한 사태에 대해 댓글 작성자는 ‘현금으로 해결하라’고 표현함으로써 고소함을 표현하고 있다. (10ㄴ)은 귀지를 함부로 파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 작성자인 기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살라’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조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은 선행 발화자 또는 발화내용 중 인물보다 발화자가 자신이 낫다는 것을 전제로 우월감을 표현하는 행위인 ‘우쭐대기화행’이다. 비유나 비교를 통한 사태 분석, 자질에 대한 평가, 사태에 대한 설명을 기반으로 하여 발화자 자신의 우월감을 뽐내는 화행을 수행한다.

(11) ㄱ. 이걸 윤석열과 검사의 난이라고 역사에 명시될듯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듯.

ㄴ. 이사람 임명하면 진짜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거다 민심을 듣지 않는다는거지..장관은 자격보다 자질이 중요한겁니다.

ㄷ. 검찰의 얼마나 대단한 권력 집단이였는지 확실히 알 것 같네 법무부 장관 2명 목 걸고 이룬게 겨우 검찰총장 정계 위원회에 올려 놓은게 다라는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그치

(11ㄱ)은 선행 발화내용 중 인물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비유를 통해 비난하고 있다. (11ㄴ)은 선행 발화내용 중 인물의 자질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평가를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 (11ㄷ)은 지금까지의 사태를 설명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며 발화자 자신이 선행 발화내용 중 인물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12)는 선행 발화자 또는 발화내용 중 인물에게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희망을 표현하는 행위인 ‘악담(저주)화행’에 해당한다.

(12) ㄱ. 검찰은 끝났어!

ㄴ. 이번에 양양에서 터지겠구나.

ㄷ. 기자님 너네 엄마가 코로나 걸려서 요단강 건널수도 있다

(12ㄱ)은 검찰개혁에 관한 기사에 대한 댓글로, ‘검찰은 끝났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통해 발화내용 중의 인물들에게 악담을 하고 있다. (12ㄴ~ㄷ)은 추측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악담의 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13)은 선행 발화자 또는 발화내용 중 인물을 힘으로 협박하는 표현 행위인 ‘위협화행’이다. 위협화행이 악담화행과 다른 점은 발화자가 직접적인 위협 행위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협화행은 명령문의 형태로 자주 나타난다.

- (13) ㄱ. 추미애는 헌법파괴자로 극형에 처해야
- ㄴ. 깨문이들은 화이자 저주 했으니 화이자 접종 하지마
- ㄷ. 연합뉴스 없애자

(14)는 선행 발화자 또는 발화내용 중 인물의 잘못된 일을 엄하게 따지는 표현 행위인 ‘추궁화행’의 예이다.

- (14) ㄱ. 이럴꺼면서 진작에 미리 확보했어야지 아니야? 얼마나 무능한지 어의가 없네
- ㄴ. 계약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늦장 계약의 결과로 언제 들여 와서 국민들에게 접종할 수 있느냐! 언제 맞는 것인가? 확실하게 얘기하라!

(15)는 선행 발화자 또는 발화내용 중 인물의 행위가 후행 발화자가 바라는 바가 아니어서 마음이 상했음을 표현하는 행위인 ‘실망화행’이다. 실망은 일차적으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망의 감정을 통해 상대방의 행위나 발화에 부정적인 판단을 표현하는 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화행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 (15) ㄱ. 말씀이 좀 심하셨네^^
- ㄴ. 언행에 품위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며 같은 지역 유권자로서 쟁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ㄷ. 왜 그리 저질들이지 정말 짜증난다

(16)은 선행 발화자 또는 발화 내용 중 인물의 발화 내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인 ‘반박화행’이다. 반박 또한 부정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화행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 (16) ㄱ. 아픈때를 대비해 쓰라고 가입시켜놓고 적자라고 올리고 너무 많이 쓴다고 올리고..어쩌다 한번 아퍼서 쓰면 블랙 리스트 고객 되고 돈 자곡차곡 내고 아프지도 않는 고객 착한고객이랍시고 깎아주는 것은 쥐꼬리 만큼... 큰 혜택이나 주는냥 생색내는 보험사놈들...
- ㄴ. 실업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고용보험이나? 예술인은 계약서상 소득으로 한다고? 매해 다들텐데 매년 그거 조사하는 인건비가 더 들겠다.

#### 4.3. 결합을 통한 비난의 강화

비난화행은 하나의 댓글에서 한 개의 하위유형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두 개 이상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며 강화하는 현상을 보였다. 먼저, 2개~3개의 하위유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비난을 강화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 (17) ㄱ. ①문주당은 ②제정신이 아니구만. ③막판에 한방에 뜯어먹으려고 생 난리를 치는구만  
 ㄴ. ①함부로 지껄이라고 달아둔 입아닙니다 정당을 떠나 사람 신체를 비하하는 당신 ②  
 그자리 내려 오세요 ③알고보니 참 나쁜 사람이네  
 ㄷ. 데일리안 고수정 당신같은 ①적폐 악의적기레기 ②분노한다. 함부로 대립 ③악의적주  
 장 집어쳐라!! ④윤석열불공정 징계 처분 수사로 밝혀야한다.

(17ㄱ)에는 ①, ②, ③의 세 가지 하위유형이 결합되어 있다. ‘①문주당’은 대통령의 성  
 과 당명의 일부를 결합하여 만든 어휘로, 당과 대통령이 한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비하  
 하기 위한 명명이다. ②에서는 올바른 상태가 아님을 낮추어 표현하고 있으며, ③에서 발화  
 자는 자신이 추론한 행위를 근거로 헐뜯기로 마무리하고 있다. 즉, ‘①비하+②비하+③비  
 방’의 결합으로 댓글 전체에서 비난하기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17ㄴ)은 ① ‘함부로 지  
 껄이다’라는 낮잡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한 후 ② ‘그 자리 내려오라’라고 위협하고 ③  
 ‘알고 보니 참 나쁜 사람’이라고 실망하고 있다. 즉, ‘①비하+②위협+③실망’의 구조를  
 통해 비난화행을 강화한 것이다. (17ㄷ)은 ① ‘적폐, 기레기’라는 모욕적인 명명으로 시작  
 하여 ② ‘분노하다’라는 명시적 수행동사를 사용함으로써 분노화행을 연결하고 ③ ‘집어치  
 우라’는 질책, ④오히려 다른 사람을 수사해야 한다는 반박으로 끝내고 있다. 즉, ‘①모욕  
 +②분노+③질책+④반박’의 하위유형을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비난화행을 효과적으로 강  
 화하고 있다.

비난의 강화에 사용되는 또 하나의 장치는 댓글의 ‘아이디’이다. 댓글 내용 전에 사용  
 하는 아이디는 상징적이며 압축적으로 댓글 내용과 연결되며, 댓글 내용의 헤드라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 (18) ㄱ. 여니, 이인영 들었나 저런소리 듣고도 지원하면..... 말안해도 알겠지  
 ㄴ. **빡치네**, 일반 소상공인들 생각 해서 검토 하는 거다. 장사 해본 사람들은 이 시국 현재  
 얼마나 힘들지도 모른다.. 말좀 작 박 가려해라...  
 ㄷ. **벌레박멸**, 이렇게 부르면 내일 그가 답하고.... 새로운 광고 시스템? ㅎㅎㅎ  
 ㄹ. **넌아웃**, 3단계가도 이미 늦었다.3단계가도 말 안 듣는 인간들은 절대 안 듣는다.돌아  
 다니고 모임갖고 할건 다 한다. 강제 봉쇄로 가야 해!유럽처럼

(18)에서 ‘여니, 광복이, 빡치네, 벌레박멸’은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들이다. ‘여니’는  
 댓글에서 부르는 이름의 마지막 글자와 받침 있는 이름 뒤에 붙는 접미사 ‘-이’의 결합인  
 ‘영이’를 연철한 것이다. 아이디에서 먼저 호칭하고 댓글의 맨 처음에 다시 이름을 부르  
 는 방식으로 아이디와 댓글을 긴밀하게 결합하고 있다. (18ㄴ)에서는 ‘화나다’를 속되게  
 이르는 ‘빡치다’를 아이디로 사용하여 선행발화 또는 선행발화 내용에 대해 화가 난 상태  
 를 먼저 나타낸 후 댓글에서 질책화행을 이어감으로써 아이디와 댓글을 연계하여 비난을 강  
 화하고 있다. (18ㄷ)은 「이재명 지사님, 이 그림은 사실입니다」에 대한 댓글인데, 기사에서  
 언급한 인물과 기자 모두를 비난하고 있다. 즉, ‘벌레박멸’이라는 아이디를 통해 언급된  
 모두를 통합적으로 비난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아이디를 비난화행에 활용하는 댓글은 정치  
 뉴스의 댓글에서 자주 나타난다.

5. 결론  
(생략)



## <참고 문헌>

- 강창우, 「화행 유형의 하위분류 가능성과 그 문제점」, 『독어학』 9, 2004, 195-215.
- 김정현, 「한일 「비난표현」 연구-대한항공 086편 회항사건의 「비난」을 중심으로-」. 『日本近代學研究』 제53집,
- 김태나, 『한국어 발화에서의 무례(無禮) 연구-무례 유형과 서양의 무례 유형 비교-』, 『한국어교육』 22(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1, 99-131.
- 박선경, 『한국어와 영어 갈등 화행의 비교언어문화적 분석-인터넷 스포츠 뉴스 댓글에 나타나는 ‘플레임’ 현상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5.
- 이혜용, 『한국어 정표화행 연구-정표화행의 유형 분류와 수행 형식』, 역락, 2015.
- 임시은, 「비난의 표현방식-한일 화자의 비교-」, 『일본연구』 제65호, 2015. 351-373.
- 조용길, 「정표화행의 하위분류 가능성에 대한 연구」, 『독어학』 제36집, 2017, 159-178.
- 혼다 토모쿠니·김인규, 「한국어·일본어 불평 화행의 비교 문화 화용론적 연구」, 『국제어문』 45, 국제어문학회, 2009, 5-44.
- Austin, John Langshaw (1962[1975]).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en, Y. S., Chen, C. Y. D. and Chang, M. H. (2011). American and Chinese complaints: Strategy use from a cross-cultural perspective. *Intercultural Pragmatics*, 8(2), 253-275.
- Nguyen, T. (2005). Criticizing and Responding to Criticism in a Foreign Language: A Study of Vietnamese Learners of English. Unpublished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Auckland.
- Searle, John R. (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arle, John R. (1976). A classification of illocutionary acts. *Language in Society* 5, 1-23.



## 「포털뉴스 댓글의 비난화행-DAUM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조 남 민(한기대)

본 연구는 본 학술대회의 주제인 ‘인권, 제도, 폭력’ 과 ‘언어’ 의 관계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 즉 댓글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학술 대회의 주제인 ‘인권, 제도, 폭력’ 이라는 개념은 역설적이게도 ‘비인권, 비제도권(非制度圈), 비폭력’ 이라는 의미를 전제할 때 성립됩니다. 제도란 관습이나 도덕, 법률과 같은 규범, 그리고 사회 구조나 체계를 의미하므로 제도권의 언어는 인권과 비폭력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조정되지만, 비제도권의 언어는 제도권 밖에서 비인권과 폭력성이라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포털뉴스 댓글은 익명성을 담보로 언어폭력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포털뉴스 댓글을 일종의 발화 행위인 ‘화행’ 이라고 보고, 댓글에 나타난 비난 표현을 ‘비난화행’ 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논의입니다. 댓글이라는 언어적 행위는 본고에서도 밝혔듯이 문어적 표현이 아닌 구어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발화’ 의 한 종류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본고는 포털뉴스의 댓글이 대표적으로 ‘비난하기’ 라는 화행으로 분석될 수 있다고 보고 댓글의 특징을 이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댓글 분석을 통해 발화자가 표적 대상 집단에 대해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부정적 평가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인간 개인이 갖는 인식과 언어와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댓글의 분석을 위해 ‘비난하기 표현 방식’ 을 ‘비난화행’ 이라고 규정하고 하위 유형을 설정함으로써 ‘비난화행’ 에 대한 형식과 특성을 개념화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토론자의 입장에서 본 논의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갖게 된 의문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고 2장에서 “이혜용(201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표화행의 범위를 감정에 국한하여 좁게 설정할 경우 인간의 생각이나 의식과 관련이 있는 ‘비난’ 은 여기에 속하지 못하게 된다. (중략) 마틴 클럽을 비롯하여 이혜용에서도 정표화행의 하위 유형 분류가 이루어졌는데, 조용길(2017)에서 이 두 분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간의 정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하위유형을 세분화하였다” 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1>에 제시한 조용길(2017)의 분류가 타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조용길(2017)이 본고에서 댓글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1>의 정표화행의 유형을 보면 상술한 ‘감정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이나 의식과 관련이 있는 비난’ 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구자께서 정표화행의 경우 ‘감정’ 을 전제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보는 것이라면 본고의 ‘비난화행의 하위 유형에서 이에 해당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유형이 있다면 ’ 비판 ‘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둘째, 2장의 <표1>에서는 댓글 분석의 틀인 ‘비난화행의 하위 유형’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광의의 정의를 하고 있으며, 이 유형에 따라 4장에서 포털뉴스 댓글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의 틀로써 하위 유형 14개의 개념을 설정한 이유와 근거가 궁금합니다. 하위 유형에는 ‘비아냥, 모욕, 비하, 비방, 질책, 분노, 분통, 조롱, 우쭐대기, 악담(저주),

위협, 추궁, 실망, 반박’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언어의 의미적 차원에서 의미의 겹침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으나 댓글의 분석에 사용되는 유형으로 볼 때 유형 사이에 하위 개념이나 동의어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4.2의 ‘비아냥’의 경우 조롱, 모욕, 비하 등으로 분석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하와 비방, 조롱과 비아냥, 모욕과 비하 등의 정의는 연구의 목적에 필요하다면 구분할 수 있으나 개념이나 실제 분석에서 변별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3장에서 DAUM 포털뉴스의 댓글을 분석 대상으로 했으며, 댓글 중 ‘최신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20개씩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의 경우 미디어의 종류나 뉴스 영역, 혹은 주제에 따라 화행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연구자께서 분석 대상을 상술한 바와 같이 설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현재 본고에 제시된 예들은 대부분 정치, 혹은 정치인과 관련한 것들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고전문학 향유방식 탐구

: 이날치 밴드 <범 내려온다(Tiger is coming)>를 중심으로

김 윤 경(말글살림연구소)

## 차례

1. 들어가며: 1일1범(犯)?
2.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고전문학 향유방식
3. 이날치 밴드 <범 내려온다>의 디지털 고전문학 향유방식
4. 나오며: 1일 1밈(meme)!

### 1. 들어가며: 1일1범(犯)?

이 논문의 목적은 판소리 수궁가의 한 대목을 노래한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를 대상으로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디지털 고전문학 향유방식을 탐구하는 것이다.

아이폰의 등장 이후 PC는 모바일에게 그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었고, ‘지혜로운 폰을 사용하는 인간’인 ‘포노 사피엔스’라는 신인류가 탄생하게 되었다<sup>29)</sup>. 이전에도 PC의 보급과 www(월드와이드웹)으로 인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게 되었지만, 모바일의 등장 이후 거의 대부분을 온라인 상황으로 살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의 시대가 되면서 더 이상 온/오프라인의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모바일 온라인 라이프를 살아가고 있다.

모바일 시대의 문화향유 양상은 기존의 TV시대나 인터넷 시대와는 다르다. TV는 중앙집중적이고 일방적이었던 반면, 인터넷은 TV에 비해 훨씬 분권적이고 양방향적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PC라는 매체의 특성상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는 한 특정한 곳 - PC방, 집, 도서관, 관공서 등 - 에서 컴퓨터를 켜고 윈도우를 통해 접속가능했다. 하지만 핸드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는 이 모든 것을 손안에서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모바일의 소통방식 또는 지식 공유방식은 PC의 웹 소통에 비해 훨씬 쉽고 넓게 퍼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모바일의 유튜브 앱에서 어떤 영상을 보다가 곧바로 공유를 눌러 내 친구들에게 보낼 수 있고, 그 친구들도 그 영상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보낼 수 있다. 예전에는 하나의 콘텐츠가 몇 만 뷰를 이루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제는 며칠 안에 몇억 뷰가 될 수도 있다<sup>30)</sup>.

이러한 포노 사피엔스들의 쉽고 넓고 빠른 소통방식은 콘텐츠의 성격을 바꾸어가고 있다. 포노 사피엔스들의 주된 문화향유 통로는 유튜브이다. 디지털 이주민이었던 이전 세대(베이비붐 세대, X세대)가 웹 기반의 검색엔진으로 텍스트 기반의 정보를 얻는다면, 디지털 원주

29) 최재봉, 『포노 사피엔스』, 쌤앤파커스, 2019.

30) 편집부, 「책보다는 유튜브 영상 중심 Z세대의 등장」, 『마케팅』, 51권 4호, 32-37쪽, 한국마케팅연구원, 2017.

민인 포노 사피엔스들(밀레니얼 세대, Z세대)은 유튜브로 검색하여 영상 기반의 정보를 얻는다<sup>31)</sup>. 전자가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아날로그 감성 - 만화책, TV드라마, 종이책, 면대면 만남 등 - 을 여전히 그리워한다면, 후자는 애초부터 디지털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웹툰, 웹드라마, e북, 비대면 만남에 익숙하다. 추억할 아날로그 감성이 없는 포노 사피엔스들에게 아날로그 또는 전통문화, 고전문학 등은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온다<sup>32)</sup>. 이전 세대에게는 레트로(retro)인 것이 이후 세대에게는 뉴트로(new-tro)<sup>33)</sup>가 된다.

뉴트로 감성에 열광하는 포노 사피엔스들에게 최근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라는 중독적인 후렴구, ‘뚝뚝 두뚝뚝’ 이라는 흥 넘치는 리듬, 춤꾼들의 독특한 안무. 바로 한국관광공사의 유튜브 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 Seoul> 속 이날치 밴드의 음악 <범 내려온다(Tiger is coming)>이다. 2020년 7월 30일 유튜브에 업로드된 후 3개월 만에 3억뷰 달성, 2020년 12월 27일 현재까지 조회수 4억 7천뷰 이상을 달성한 해당 영상은 ‘1일1범(犯)’ 이라는 신조어를 낳으며 한국인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외국인들에게도 삼시간에 뺨어 나갔다<sup>34)</sup>.

이날치 밴드 <범 내려온다>의 어떤 특성이 포노 사피엔스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판소리 수궁가가 <범 내려온다>로 재구성되었을 때 어떤 점들이 유튜브 생태계에 적합했던 것일까? 소리꾼과 대중음악가들의 결합이 전통의 재창조에 어떻게 기여하게 된 것일까? 본고에서는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를 중심으로 뉴트로 디지털 고전문학의 어떠한 특성에 의해 포노 사피엔스들이 열광하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 2.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고전문학 향유방식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고전문학을 살펴보기에 앞서, 왜 고전문학의 ‘향유방식’ 을 고찰해야 하는가? 그것은 문학이 진공상태에서 박제된 것이 아닌, 구체적 시공간 속에서 누군가에 의해 특정의 방식으로 향유되며<sup>35)</sup>, 고전문학의 창작 및 전승 양태가 ‘향유방식’ 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sup>36)</sup>.

고전문학 향유방식에서 ‘향유방식(enjoyment method)’ 이란 ‘작품이 창작되고 수용되는 시간과 공간 및 그 주체와 객체, 그러한 양상과 움직임의 형태에 대해 관심을 갖는 문학 작품 밖에 존재하는 실제 세계의 개념’ 으로서, ‘작품(text)이 향유되는 상황(context)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 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다. 특히 고전시가 작품들은 글자로 기록되거나 먼저 가사로 쓰인 것이 아닌 ‘노래’ 로 불린 작품들이며 각 시대마다 장르를 달리해 가면서 불려왔다<sup>37)</sup>. 고전시가 안에 포함되는 다양한 시가 장르 - 고대시가, 향가, 민요, 잡가, 판소리 등 - 들은 각 시대에 따라 교체되는 방식으로서 지속적으로 향유되어 왔다. 이에 고전

31) 정은이, 「Z세대가 선호하는 방송콘텐츠에 관한 연구: 20세대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58호, 141-181쪽,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20.

32) 오수연, 「뉴트로(new-tro)에 주목하라」, 『마케팅』, 제53권 1호, 51-56쪽, 한국마케팅연구원, 2019.

33) 뉴트로: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친 신조어로, 복고(Retro)를 새롭게(New) 즐기는 경향

34) 18~34세 73.5% 35개국(동남아58%, 인도15%, 유럽, 아랍 등 기타 18.4%, 한국8.6%)

- 출처: SBS 스페셜 <조선 아이돌 이날치, 범 내려온다 흥 올라온다>(2020.11.22.)

35) 박경주, 「고전시가 교육에 있어 향유 방식의 중요성과 그 방법론적 탐색」, 『고전문학과 교육』 38, 5-35쪽,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36) 손태도, 「고전문학의 향유방식과 교육: 과거, 현재, 미래」, 『고전문학과 교육』 37, 5-45쪽,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37) 박경주, 앞의 논문, 8쪽.

시가 작품은 그 향유 시기의 시대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sup>38)</sup>.

여기에서 ‘향유’의 의미역은 좁게 보면 ‘수용’이지만 - 그래서 고전문학 향유 리터러시에서는 ‘수용’ 측면에서 전고/해석/스토리/주제/평가/성찰 리터러시를 설정하지만<sup>39)</sup> - 넓게 보면 생산하고 공유하고 계승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향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향유 ‘방식’이 문자인가 구술인가, 읽기인가 듣기인가 등은 수용을 넘어 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로 고전문학의 향유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고전문학의 실태는 앞으로 지향해 나아갈 잠재태를 모색하는데 필수적인 과업이라 하겠다.

## 2.1. 고전문학 향유방식의 변화

고전문학 향유방식(특히 고전시가)은 특히 향유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주된 향유매체에 따라 고전문학 향유방식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술 중심의 1세대, 구술문학이 텍스트화된 문자 중심의 2세대, 구술문학의 모티브를 바탕으로 이미지나 영상 중심의 3세대, 마지막으로 현재 모바일 기반 영상 중심의 4세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세대 고전문학 향유방식은 **듣기**이다. ‘듣는’ 고전문학으로서 고전시가는 노래, 판소리나 무가는 구술공연, 전기수의 소설낭독 등으로 향유되었다<sup>40)</sup>. ‘듣는’ 고전문학은 향유되는 상황에서 생산주체와 수용주체가 서로 마주하고 노래를 부르거나 듣는 ‘현장성’을 지닌다. ‘듣는’ 고전문학은 면대면 상황에서 향유주체들이 직접 소통하기에 작품에 모든 것을 담지 않아도 비언어적 표현이나 현장 분위기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다<sup>41)</sup>. 이와 같이 ‘듣는’ 고전문학은 생산주체보다는 수용주체의 향유방식에 의해 그 성격이 더 규정된다<sup>42)</sup>.

다음으로 2세대 고전문학 향유방식은 **읽기**이다. 구비문학들이 글자로 기록되고 채록되면서 점차 구술이라는 현장성은 사라지고 텍스트로 ‘읽는’ 고전문학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고전문학이 ‘고전’이 되면서 일상적으로 향유되는 것이 아닌, 마치 박물관의 유물처럼 익히고 배워야 할 대상으로 화석화되었다. 그나마 어린 시절에는 부모에 의해 갖춰진 전래(그림)동화전집을 통해 자발적으로 읽혀지지만, 학령기 후 교과서에서 만나는 고전들은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닌, 그저 입시용 텍스트일 뿐이다. 그리하여 ‘읽는’ 고전문학에서 중시되는 것은 고전문학을 배워야 하는 ‘학습 독자’로서 청소년이 텍스트화된 고전문학을 읽고 이해하고 성찰하는 ‘고전문학 향유 리터러시’의 신장이다<sup>43)</sup>.

3세대 고전문학 향유방식은 **보기**이다. 2000년대 인터넷 보급 및 확산 이후, 웹소설 등

38) 박경주, 위의 논문, 14쪽.

39) 류수열, 「고전문학 향유 리터러시의 위계화 시론: <토끼전>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36호, 5-31쪽,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7.

40) 서영숙, 「서사민요의 향유방식과 교육적 의의」, 『고전문학과교육』, 39호, 41-66쪽,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41) 박경주, 위의 논문, 10쪽.

42) 박경주, 위의 논문, 18-19쪽.

43) 류수열(2017)은 고전문학을 ‘읽는’ 학습독자로서 Spiro(1991)가 제시한 문학 학습자의 6가지 역할 모델을 예로 든다. 청소년 학습독자들은 문학 학습자[문학의 가치]는 문학 비평가[철학], 문학 연구자[정전], 작가[창조성 훈련 자료], 감식력 있는 독자[자율적 읽기 촉발 자료], 인문주의자[인문주의 훈련 자료], 능력 있는 언어사용자[언어사용 실례]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한다. 어떤 것을 향유하기 위해 많은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면 아예 향유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을 수가 있다. 특히 ‘재미’를 좇는 Z세대들에게 ‘교양’으로서 고전문학 향유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한다면 고전문학을 접하기도 전에 흥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읽는’ 고전문학도 존재하지만, 특히 웹툰, 드라마, 영화 등의 이미지로 ‘보는’ 고전문학이 크게 성장하였다. 고전문학의 서사적 매력 또는 화소적 매력으로 인해 끊임없이 인터넷상, 웹상에서 ‘보는’ 고전문학으로 차용/변용되거나 재해석/재생산되었다<sup>44)</sup>. <신과 함께>, <쌍갑포차>, <바리공주> 등의 우수한 웹툰은 고전문학 소재의 웹툰 전성시대를 이끌었다.

웹툰 <신과 함께>	공연 <신과 함께>	영화 <신과 함께>
		

[그림1] 웹툰 <신과 함께> 관련 콘텐츠<sup>45)</sup>

초창기 웹툰들은 짧은 에피소드와 일상적 소재로 스낵컬처처럼 소비되었으나, 점차 긴 호흡의 서사와 탄탄한 플롯으로 기존의 서사적 영상 장르 - 영화, 드라마 등 -를 뛰어넘을 정도의 서사성과 예술성을 갖추게 되었다. 최근에는 오히려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제작되는 추세이다. 웹툰에서 고전문학을 차용할 때에는 주로 신화, 전설, 민담 등 구비문학이 많이 다루어지는 편이다. 특히 저승세계나 전통신이 등장하는 기이한 이야기들이 선호되며, 이승에서 맺힌 한을 풀어주는 내용이 많다. 이렇듯 다채로워지는 디지털 고전문학 콘텐츠 속에서 고전문학은 어떻게 발전해 나아가야 하는지<sup>46)</sup>, 디지털 고전문학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sup>47)</sup>.

최근에 포노 사피언스에 의해 새롭게 대두된 4세대 고전문학 향유방식은 놀기이다. 모바일의 등장 이후, 포노 사피언스들에게 핸드폰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닌, 그것으로 무엇이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놀이감’이 되었다. 모바일 앱이나 기기는 점점 직관적이 되어서 유아들도 쉽게 작동할 수 있게 되었다. 쉽고 편리한데 재미있기까지 한 놀이감인 모바일은 Z세대에게 더 이상 없어서는 안 될 신체의 일부분, 나아가 삶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은 포노 사피언스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놀이터이다. 유튜브 안에서 Z세대들은 디지털 콘텐츠화된 고전문학 동영상을 보고, 공유하

44) 정혜경, 「고전서사를 활용한 콘텐츠 동향과 기획」, 『우리문학연구』, 57권, 119-159쪽, 우리문학회, 2018.

45) 주호민 작가의 웹툰 <신과 함께>(2010.1.8.~2012.8.29.)는 저승편(2010)을 시작으로 이승편(2011), 신화편(2012)까지 연재되었다. 평범한 남자 회사원 김자홍이 저승에서 49일동안 일곱 번의 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 속에 할락궁이전, 대별소별전 등 한국민속신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원작은 영화 <신과 함께>(2017.12.)로 제작되어 성공을 거두었고 2015년부터 동명의 창작가무극으로도 공연되었다.

46) 손중흠, 「고전문학콘텐츠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열상고전연구』, 57호, 125-158, 열상고전연구회, 2017.

47) 신선희, 「디지털 시대의 고전문학 교육: 고전서사관련 교과목 운용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24/25권, 133-158쪽,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07.

고, 따라하고, 만든다.

이와 같이 매체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별로 고전문학 향유방식은 [듣기 → 읽기 → 보기 → 놀기]로 변화되어 왔다. 특히 모바일로 다양한 디지털 고전문학 콘텐츠를 향유하며 ‘보고 공유하고 따라하고 만들면서’ 갖고 노는 4세대의 향유주체들은 ‘포노 사피엔스’ 라고도 불리는 Z세대들이다. 포노 사피엔스에 이르러 고전문학은 듣기만, 읽기만,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유희의 원천, 즉 ‘노는’ 고전문학이 되고 있다.

## 2.2.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도래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고 정보 전달이 빨라져 정보격차가 점차 해소되는 등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사람이 늘어나며 등장한 용어. ‘지혜가 있는 인간’이라는 의미의 호모 사피엔스에 빗대어 ‘포노 사피엔스(지혜가 있는 폰을 쓰는 인간)’라고 부름. - 영국 <이코노미스트><sup>48)</sup>

2007년 아이폰 등장한지 10여년 만에 호모 사피엔스는 포노 사피엔스가 되었고, 포노 사피엔스 시대가 열렸다. **포노 사피엔스 시대(Phono Sapiens Era)**란, 포노 사피엔스들의 소비 행동, 더 나아가 문화 창조 및 향유방식이 주를 이루는 시대를 말한다.

포노 사피엔스의 등장과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한 곳은 비즈니스계였다. 소비자의 행동방식이 기업의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뉴트로, Z세대, 밀레니얼 등 신인류의 소비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계의 발빠른 대응과 달리 인문학계에서는 포노 사피엔스의 변화에 대해 다소 둔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술 본위의 사회에서 인류가 어떻게 인간다움을 지켜야 하며 기술과 동행하여 살아갈지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의 연구가 시급하다. 왜냐하면 기술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변화하지만, 가치는 쉽게 바뀌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인류는 급격히 다가올 새로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차분하고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 그 첫 시작은 변화무쌍한 기술에 대한 인간 반응의 특정한 패턴이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다.

새로운 도구가 나오면 인간은 처음에는 강력히 저항하다가 어느 순간 그 이전의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이 완벽히 적응한다. 포노 사피엔스 시대가 시작된 계기는 스마트폰이라는 매체의 등장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스마트폰 사용 후 ‘인간의 행동’이 바뀐 것이다. 그동안은 대기업이나 대중매체에 의해 정해진 콘텐츠를 소비해왔는데, 이제는 자기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콘텐츠를 선택하고 향유한다<sup>49)</sup>. 이로 인해 문화향유자들은 향유주체가 되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디지털 문명을 이룩해가고 있다.

## 2.3.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디지털 고전문학 향유방식 분석틀

전통적으로 고전문학 향유방식은 종종 구전공식구 이론에 입각한 분석요소로 연구되어왔다. 구전공식구 이론에서는 고전문학, 특히 구비문학이나 고전시가에 대한 향유방식의 특징을 ‘핵심주제(theme), 구전공식구(formular), 즉석변개작법(improvisation)<sup>50)</sup>’의 세 요소로 분

48) 최재봉, 앞의 책, 25쪽.

49) 최재봉, 위의 책, 34쪽.

50) **핵심주제(theme)**란 ‘여러 노래 속에서 반복되는 사건들이나 묘사적 대목들’을 뜻하며, 전통적으로는 부모 생각, 자식 생각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구전공식구(formular)**란 ‘하나의 주어진 핵심적 생각을 표현하기 위하여 동일한 율격 조건 아래서 규칙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군’을 의미하며, 담화 공동체가 공유하여 익히 알고 쓰는 단어나 구절을 말한다. ‘앵두 같은 입술’, ‘장군 같은 품

석한다. 이러한 구전공식구 이론은 글자로 종이에 기록된 문자문학과 달리 구연자의 기억에 의해 말이나 노래로 구술되는 구비문학이 어떻게 보존되고 전승되어 왔는지를 규명하는 유용한 분석 툴(tool)을 제공해 왔다<sup>51)</sup>.

하지만 포노 사피엔스들에게 고전문학은 디지털화된 양태로 다가온다. 이를 ‘디지털 고전문학’이라고 할 때 이와 대비되는 아날로그 고전문학의 향유방식과는 또 다른 디지털적 향유방식이 나타난다. 면대면과 현장성을 큰 특징으로 하는 아날로그적 고전문학 향유방식은 오랜 세월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며 천천히 전승된다. 특별히 문자나 음성이나 영상으로 기록하지 않는 한, 한 번의 구술로 연행은 사라진다. 반면 디지털 고전문학 향유방식은 비대면상황에서 현장성보다는 영상성을 지니며, 너무 빨리, 넓게, 다양하게 확산되고 그 과정에서 계속 변화한다. 동시에 디지털 영상이라는 기록물로 남아 향유방식을 분석하고 변이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고전문학 향유방식 분석요소를 참고하되 디지털 고전문학 향유방식에 대한 새로운 분석 틀(frame)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 영상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콘텐츠들의 핵심주제는 ‘힙(hip)함’<sup>52)</sup>이다. 수많은 영상들 속에서 선택받고, 건너뛰기(skip)없이 끝까지 볼 수 있게 하려면 수용주체의 눈길을 잡아끄는 ‘힙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힙함에 대한 관점은 상황맥락과 향유주체에 따라 다르다. 일탈적 상황맥락 속의 대리만족을 원하는 향유주체들은 일상에서 보기 힘든 전문적인 세련됨이나 멋스러움, 또는 명품 자랑하기 - 하울링(howling), 플렉스(flex) 등 - 과 같은 비밀상적 주제가 힙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일상적 상황맥락 속에서 재미나 힐링을 원하는 향유주체들은 뭔가 우스꽝스럽지만 절대 우습지 않은 신박성(B급 감성, 뉴트로 등), 그리고 꾸밈없고 솔직한 진정성을 힙하다고 본다<sup>53)</sup>. 이처럼 (고전문학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상황맥락은 주로 콘텐츠 향유(생산 및 수용)의 목적, 콘텐츠를 향유하는 시공간 등을 주된 요소로 한다. 디지털 콘텐츠 유통 매체 역시 향유방식과 관련된 상황맥락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플랫폼의 서비스에 따라 콘텐츠의 접근성이나 성격이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sup>54)</sup>.

구전공식구는 기존 고전문학 향유방식에서는 ‘상투어’나 ‘관용구’였다. 왜냐하면 기록되지 않고 구술자의 기억에 의해 전승되었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운 반복되는 어구들이 핵심주제를 담기에 적합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구전으로 전승하지 않는다. 영상으로 공유한다. 영상은 글을 몰라도, 말을 못해도, 언어가 달라도 제작과 시청과 공유가 가능하다. 오로지 핸드폰만 있으면 된다. 핸드폰, 즉 모바일 세상에서 디지털 고전문학 콘텐츠의 공유공식구는 상투어나 관용구가 아닌 ‘밈(meme)’이다. 밈이라는 용어는 윌리엄 D. 헤

---

체’ 등의 관용구나 상투어가 이에 속한다. **즉석변개작법(improvisation)**이란 ‘구연 현장의 조건에 맞게 사설 등을 바꿔서 부르는 것’을 말한다. - Lord, A. B., *The singer of tales*,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2000(2nd. ed.), p. 4.

51) 손태도, 앞의 논문, 33쪽.

52) ‘힙(hip)하다’는 ‘고유한 개성과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신 유행에 밝고 신선하다’는 의미로 쓰인다. (네이버 국어사전) 1930년대 재즈를 즐기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쓰이다가 1990년쯤 ‘hipster’라는 신조어가 되어 ‘멋진 사람’을 뜻하게 되었다.

53) <40대 독거노총각의 ‘고독’에 열광... 2030대 “유튜버 돈자랑에 지쳤다” > (헤럴드경제, 박로명 기자, 2020.12.26.일자 뉴스): 40대 후반의 자칭 ‘독거노총각’은 솔직한 ‘날것’의 일상을 공유하여 젊은층에게 인기를 얻어 10만 구독자와 최대 조회수 75만회를 달성하였다. 구독자들은 이 영상이 “화려한 편집 없는 솔직한 채널”이지만 “온갖 치장이 넘쳐나는 유튜브보다 천만배 솔직담백”하기 때문에 향유한다고 (댓글로) 말한다.

54) 일례로, 같은 플랫폼 장르라 하더라도 유튜브와 틱톡은 영상길이의 차이가 있으며, 같은 유튜브라 하더라도 아동용 동영상과 성인용 동영상의 서비스 방식(댓글 불가/가능 등)이 다르다.

밀턴(1963)이 최초로 사용한 것을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1976)』에서 언급함으로써 널리 알려졌다. 밈(meme)이란 모방(mimesis)과 유전자(gene)의 합성어로, 일종의 문화적 유전자로서 복제(copy)를 통해 전파된다. 여전히 정확히 밈은 무엇이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밈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마인드 바이러스이며, 수많은 밈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마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데 성공한 밈들이 문화와 자기복제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sup>55)</sup>.

즉석변개작법은 구술현장에서의 고전문학 변이성을 뜻하는 말이다. 아날로그 시대의 면대면 현상성은 즉흥적 변이를 다수 양산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비대면 영상성은 즉흥적 변이보다는 잘 짜여진 시놉시스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디지털 고전문학 콘텐츠는 디지털 원본 영상과 패러디/커버 영상의 변이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본고에서는 원본 영상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하므로 이본 영상과의 비교 분석은 후속 연구로 남긴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설계한 ‘디지털 고전문학 향유방식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차원	내용	분석요소
상황맥락	디지털 고전문학 콘텐츠의 생산, 수용, 유통 등과 관련된 특정한 상황맥락	목적, 시공간, 매체
향유주체	디지털 고전문학 콘텐츠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생산/수용하는 주체	생산주체, 수용주체
콘텐츠	디지털 고전문학 콘텐츠가 확산되기 위한 문화적 유전자(밈)로서의 속성	구별 밈, 연상 밈, 전략 밈

<표1> 디지털 고전문학 향유방식 분석틀

위의 분석틀에서 **상황맥락 차원**은 디지털 고전문학 콘텐츠를 둘러싼 환경이다. 디지털 고전문학 콘텐츠의 향유(생산, 수용, 유통 등)와 관련된 특정 상황맥락에 대한 고찰을 말하며, 해당 콘텐츠의 생산목적<sup>56)</sup>, 향유 시공간, 유통 매체의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향유주체 차원**은 디지털 고전문학 향유의 중심이다. 디지털 고전문학 콘텐츠의 생산주체 및 수용주체에 대한 고찰을 뜻하며,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콘텐츠를 향유하는 주체의 특성을 살핀다. **콘텐츠 차원**은 디지털 고전문학 콘텐츠의 본질이다. 디지털 고전문학 콘텐츠의 빠른 확산을 위한 문화적 유전자, 즉 밈적 속성에 대한 고찰이며, 구별/연상/전략 밈이라는 세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 3. 이날치 밴드 <뽀 내려온다>의 디지털 고전문학 향유방식

그동안 고전문학을 현대화하고 대중화하려는 작업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경기민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쌍쌍밴드’나, 황해도 무가를 대중적으로 변화시킨 ‘악단광칠’ 등

55) 리처드 브로디, 백한울 역, 『마인드 바이러스』, 동연, 2000 (원서출판 1996), p.30~34.

56) ‘목적’이라는 상위어로 묶이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는 계기, 동인(動因), 의도 등으로 볼 수 있다. 대개 영상 콘텐츠는 아무 목적없이 만들어지기보다는 특정한 의도나 계기로 제작되게 된다. 그것이 커다란 대의에 의해, 엄청난 자본에 의해 의도적이고 기획적으로 제작되기도 하지만, 별다른 기대없이 재미삼아 만들어지기도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유튜브 생태계에서는 종종 잘 만들어진 영상보다는 ‘그냥’ 한 번 만들어본 영상들에서 소위 ‘대박’이 터지고는 한다. 즉 기획의도나 목적과 그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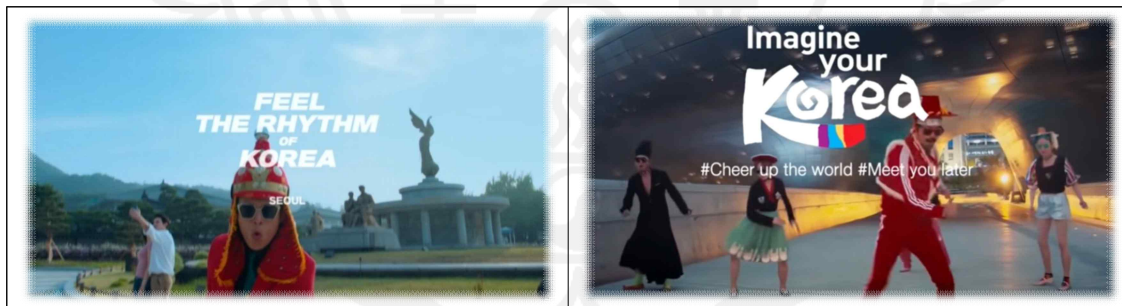
의 선구적 작업들은 디지털 고전문학 콘텐츠에 대한 생산주체의 권위를 내려놓고 수용주체의 흥미도와 접근성을 높이며 팬덤을 형성하였다.



[그림2] 고전문학에 대한 현대적 시도들: ‘쌍쌍밴드’와 ‘악단광칠’<sup>57)</sup>

이처럼 3세대 향유방식인 ‘보기’와 4세대 향유방식인 ‘놀이’의 경계에서 다양한 현대적 시도들이 있었으나, 4세대에 비해 공유나 패러디/커버가 드물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보는’ 고전문학에 속했다. 그런데 최근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에 이르러, 수용주체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보고 공유하고 따라하고 만들면서 ‘노는’ 고전문학 향유방식이 4세대의 향유방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sup>58)</sup>.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과 관련된 디지털 영상은 이날치 밴드 공식 뮤직비디오, 네이버 온스테이지 공연, 유희열의 스케치북 공연,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그중에서도 포노 사피엔스들의 가장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은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 중 서울편 <범 내려온다>를 디지털 고전문학 향유방식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sup>59)</sup>.



[그림3] 2020 한국관광공사 홍보영상(서울 편): <범 내려온다><sup>60)</sup>

57) 쌍쌍밴드 사진 출처: Tiny Desk Concert(2017.9.28.) <https://www.youtube.com/watch?v=QLRxO9AmNNo>

악단광칠 사진 출처: 유희열의 스케치북(2020.10.10.) <https://www.youtube.com/watch?v=cn4Xcp6EViM>

58) 유튜브라는 영상은 다른 장르에 비해 자기노출이 심하고(변장을 한다고 해도 사는 곳, 인종, 성별 등을 가리기 어렵다) 오히려 익명성을 탈피하여 스스로를 드러내는 플랫폼이다. 특히 기업이나 기획사를 거치지 않은 1인 미디어들은 낯것의 모습이 전세계에 공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포노 사피엔스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발적으로 표현한다.

59) 한국관광공사 홍보영상 <범 내려온다>를 분석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논문의 부제를 ‘한국관광공사’로 적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하지만 <범 내려온다>라는 이날치 밴드의 곡이 가장 먼저 있었고, 여기에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와 콜라보 공연이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한국관광공사가 이들을 섭외하여 ‘관광홍보영상’이라는 마당에서 놀게 한 것이다. 따라서 <범 내려온다>의 생산주체는 ‘이날치 밴드’라고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부제에 이들의 이름을 적었다.

60) 한국관광공사 Feel the Rhythm of Korea: SEOUL: <https://www.youtube.com/watch?v=3P1CnW162lk>

### 3.1. 상황맥락 측면

디지털 고전문학 콘텐츠 <범 내려온다>가 생산된 목적은 이날치 밴드 자체로는 상업적 이었다. 이날치 밴드의 소리꾼 4명과 대중음악계 베이시스트(본인 포함) 2명, 드러머 1명과의 만남을 성사시킨 이는 장영규 음악감독이다. 그는 “세상에 없던 음악을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고”, “독특한 사람들의 모임이라 독특한 음악” 이 될 것 같아서, 대중음악계의 대부답게 이날치 밴드의 수궁가로 “상업적 노래를 만들려고” 했다. 그의 예상은 적중하여 2020년 5월에 발매된 이날치 밴드의 수궁가 프로젝트 앨범은 판소리 음반치고는 꽤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한국을 힘있게 홍보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기획 당시에는 ‘춤’이 중심인 Dance with Korea로 설정했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Feel the Rhythm of Korea로 변경하게 되어 ‘춤 추고 싶은 음악’을 몰색하던 제작자 서경중 CD는 이날치 밴드의 음악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6살 아이가 무슨말인지도 모르는데 흥겹게 춤 추는 것을 보고 이날치 밴드의 음악을 선택하게 되었다.

디지털 고전문학 콘텐츠 <범 내려온다>가 향유된 시공간은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고 있던 2020년 7월, 유튜브 플랫폼이었다. 코로나의 두려움과 공포로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전혀 홍보영상 같지 않아보이는 <범 내려온다>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하던 시기였지만, 적어도 <범 내려온다> 속 서울은 현재의 코로나 상황과 달리 재미있고 신나고 힙했다. 이 영상을 보는 순간만큼은 일상에서 벗어나 영상 속 시공간에서 이날치 밴드와 함께 흥겨운 소리 한 마당, 춤 한 판을 출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디지털 고전문학 콘텐츠 <범 내려온다>가 유통된 매체는 ‘유튜브(YouTube)’이다. 밈은 대개 밈-운반체(meme-carrying vehicle)라는 물리적 현시에 의해 퍼진다<sup>61)</sup>. 유튜브는 대단히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반체이다. 한국관광공사는 <범 내려온다>를 포노 사피엔스의 주된 놀이터인 유튜브를 영상 유통 매체로 삼은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유튜브 광고로 삽입한다. 광고이므로 수용주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출되지만, 대개 본영상 전에 나오는 광고는 건너뛰기를 한다는 점에서 수용주체에게 콘텐츠 선택권(지속권)이 주어진다. 그런데 <범 내려온다> 영상은 특유의 힙함으로 인해 대부분 끝까지 보게 되고, 친구들과 공유하게 되면서 국가홍보영상 중에서도 4억뷰라는 놀라운 조회수를 이루어 내었다.

### 3.2. 향유주체 측면

#### 3.2.1. 생산주체: 이날치 밴드

향유주체 측면에서는 생산주체와 수용주체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범 내려온다>의 생산에 한국관광공사와 엠비규어스 컴퍼니의 기여도 크지만, 가장 핵심적 생산주체는 그들을 한데 뭉치게 한 ‘이날치 밴드’이다. 그렇다면 이날치 밴드는 누구인가? 이날치 밴드에 대한 여러 소개가 많지만, 여기에서는 이날치 밴드가 스스로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살펴보겠다.

“이날치”는, “어어부프로젝트”, “비빙”, “쌍쌍” 등에서 다양한 음악활동을 펼쳐온 “장영규”, “장기하와 얼굴들”의 베이스로 활동했던 “정중엽”, 드럼 “이철희”, 다섯 명의 판소리 보컬 “안이호”, “권송희”, “이나래”, “신유진”, “박수범”으로 구성된 ①**얼터너티브 팝 밴드**다. 2019년 결성되어 조용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이날치는 (...) ②**장단과 서사가 주된 요소를 이루는 음악**에 접근하기 위해 두명의 베이스와 드럼, 다섯 명의 판소리 보컬들이 ‘수궁가’를 편곡한다. 드럼과 베이스의 패턴과 리듬 위에 판소리 솔로와 합창이 교차되고 반복되며 신선하고 풍성한 사운드를 연출한다. 이날치의 음악은 판소리의 대중화, 국악의 현대화, 한국음악의 월드뮤직화

61) 브로디, 앞의 책, 32쪽.

와는 거리가 멀다. 그저 ③**재미난 옛이야기가 조금은 특별한 현재의 댄스 뮤직**이 되길 바란다.

- [이날치 밴드 수궁가 프로젝트 공식 소개] 중에서

위의 소개를 토대로 이날치 밴드가 말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날치 밴드는 **얼터너티브 팝 밴드**이다. 얼터너티브는 1980년대에 생겨나 1990년대 부터 헤비메탈의 대안적(alternative) 음악으로 여겨질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록 음악 장르이다. 따라서 얼터너티브 팝이란 대안적 성향의 K-pop 밴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날치 밴드는 **장단과 서사가 주된 요소를 이루는 음악**을 한다. 여기에서 장단은 베이스와 드럼이고, 서사는 판소리 수궁가라는 문학이다. 장 음악감독은 “판소리는 음악이 아니라 문학”<sup>62)</sup>이라고 여기고, 본연의 문학적 사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악기를 재편성하고 새로운 리듬을 창안해내었다<sup>63)</sup>.

셋째, 이날치 밴드는 **재미난 옛이야기 기반의 특별한 현재의 댄스 뮤직**을 한다. ‘댄스 뮤직’이라는 부분에서 <범 내려온다>의 춤 추고픈 독특한 그루브 리듬이 생겨난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대개 판소리 수궁가를 완창하려면 3~4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중에서 춤추기 좋은 130bpm의 리듬에 맞는 대목들만을 골라 수궁가 앨범을 만들었다. 이날치 밴드는 판소리 사설을 현대 일상어로 쉽게 고쳐쓰거나 판소리의 멜로디를 바꾸는 대신, 클럽 문화와 댄스 음악에 익숙한 Z세대들에게 ‘춤추고픈 리듬’으로 만들어서 판소리를 체화시킨다.

### 3.2.2. 수용주체: 포노 사피엔스

디지털 고전문학 콘텐츠로서 <범 내려온다>의 **수용주체**는 ‘포노 사피엔스’이다. 기록된 텍스트로 ‘보는’ 고전문학에서 따라하기(모방)는 터부시된다. 하지만 유튜브 생태계에서 ‘따라하기’는 영상 확산의 중요한 요소이자 특징이다. 따라하기를 유발하는 콘텐츠만이 살아남는다. 포노 사피엔스들은 각종 커버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춤동작 배우기, 연주하기 등 <범 내려온다>를 소스로 한 학습영상도 제작한다.



[그림 4] <범 내려온다> 패러디/커버 영상의 예<sup>6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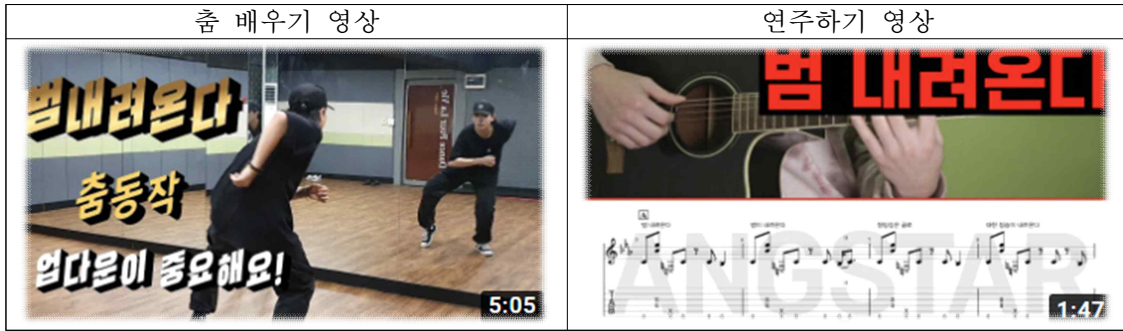
62) SBS 스페셜 <조선 아이돌 이날치, 범 내려온다 흥 올라온다>(2020.11.22. 방영분)

63) 장영규 음악감독은 판소리의 서사를 살리기 위해 밴드에서 멜로디를 담당하는 기타를 빼고 베이스를 2대로 구성하였다. 반주에서 멜로디가 들어가면 자칫 판소리 본연의 멜로디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64) 패러디 영상 출처: tvlog [은행고등학교] <https://www.youtube.com/watch?v=iUs-YsTo9jo>

커버 영상 출처: 말글살림연구소 [목요계\_낭만제작소]

<https://www.youtube.com/watch?v=ejLXM9l2k9w&list=PLKgUVppRqbsxsoHonpo17zgP364JGMZS9&index=5>



[그림 5] <범 내려온다> 관련 학습영상의 예<sup>65)</sup>

포노 사피엔스는 방대한 양의 지식(정보)을 모바일로 언제든 습득할 수 있고, 댓글이나 공유를 통해 실시간으로 서로 교감하며, 정보의 복제와 재창조를 통해 거의 하루만에 30억명 인구에게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sup>66)</sup>. 특히 모바일을 통한 1인 미디어의 확산은 이전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폐쇄적, 일방적, 수직적, 1대 다(多)의 관계에서 개방적, 수평적, 다(多) 대 다(多)의 관계로 바뀌게 하였다. 이로 인해 포노 사피엔스들은 자신이 쓴 대본의 배우가 되고, 또 자신과 같은 수십 억의 아마추어 배우들(일반인)과 글로벌 디지털 무대를 공유한다. 그 속에서 포노 사피엔스들은 웹캠, 휴대폰 카메라, 비디오 녹화기 등을 갖추고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삶을 연기하고, 일생동안 지속적인 연기 속에서 다양한 역할과 페르소나를 실험하며 모두가 모두를 위한 연기를 펼친다. 이제 진정으로 세계는 무대이고, 인생은 연극이며, 인간은 배우가 되고 있다<sup>67)</sup>.

### 3.3. 콘텐츠 측면: 밈(meme)적 특성

모바일을 통해 전파되는 디지털 콘텐츠 속 밈은 ‘진짜-가짜 대결 밈’ 처럼 이야기 화소와 같은 성격을 가지기도 하고<sup>68)</sup>, ‘야민정음’이나 ‘○○체’ 등의 인터넷 밈과 같은 언어적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sup>69)</sup>. 어떠한 성격과 양태이든 간에 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우후죽순 퍼져나가며 자신만의 진화 알고리즘을 생성한다<sup>70)</sup>. 밈의 세계에서 ‘훌륭한 밈, 성공적인 밈’이란 도덕적, 윤리적으로 훌륭하다거나 콘텐츠의 완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늘고 길게 조금 퍼지는 밈보다는, 짧고 굵게 널리 퍼지는 밈이 보다 훌륭하고 성공적이다. ‘잘 퍼진다’는 훌륭한 밈은 마인드 바이러스를 영속하게 하고 밈 복합체를 형성하여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sup>71)</sup>.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데에는 콘텐츠 자체의 뉴트로 감성과 밈적 특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뉴트로 감성 역시 최근 밀레니얼 세대의 문화적 특성이라는 점에서 ‘밈’으로 간주한다<sup>72)</sup>. 밈적 특성은 크게

65) 춤 배우기 영상 출처: 순수무용단 <https://www.youtube.com/watch?v=5espiqoFiSY>

연주 배우기 영상 출처: 앙스타네 <https://www.youtube.com/watch?v=DoapqXRt1OY>

66) 최재봉, 앞의 책, 80-81쪽.

67) 제레미 리프킨, 이경남 역, 『공감의 시대』, 민음사, 2010 (원서출판: 2009년).

68) 나지영, 「영상 매체를 통한 진짜-가짜 대결 밈(meme)의 전승 양상」, 『문화콘텐츠연구』, 16호, 91-111쪽,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19.

69) 박광길, 「인터넷 밈의 언어적 성격 고찰」, 『인문과학연구』, 66권, 5-26쪽,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70) 신중천, 「밈 현상의 정보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밈의 진화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제42권 7호, 519-547쪽,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71) 브로디, 앞의 책, 41-42쪽.

72) 뉴트로 감성을 밈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최근 밀레니얼 사이에서 유행하는 뉴트로 제품들의 유행




구별 밈, 연상 밈, 전략 밈의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3.3.1. <범 내려온다>의 구별 밈: 혼종성

‘구별(distinction)’ 밈은 사물에 명칭을 부여하거나 분류함으로써 세계를 분할하는 방식이다. 구별 밈은 밈 덩어리를 형성하여 밈 복합체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자아복합체를 프로그래밍한다<sup>73)</sup>.

이날치 밴드 <범 내려온다>의 구별 밈은 아이러니하게도 ‘구별되지 않음’이다. 다양한 장르가 뒤섞여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는 애매모호하고, 주 장르가 판소리인지 대중음악인지 댄스음악인지 구별할 수 없다. 가사는 분명히 판소리인데, 리듬, 의상, 스타일, 뮤직비디오 등 표현방식에 있어 ‘새로운’ 장르라고 할 정도로 이질적인 느낌을 준다. 이제까지 이런 판소리는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처음 보는 느낌이다.

이러한 ‘구별되지 않음’은 <범 내려온다>를 오히려 특별히 구별되는 밈적 특성을 갖게 한다. 일례로 이날치 밴드의 수궁가 프로젝트 앨범을 보면 앨범 자켓의 뉴트로 디지털 디자인과, 수록곡의 고색창연한 한글제목과 쉽고 간단한 영어제목이 아우러져 마치 현대미술 갤러리의 미디어 아트를 보는 느낌을 준다.

앨범자켓	수록곡	
	1	범 내려온다(Tiger is Coming)
	2	좌우나줄(Catch a Rabbit)
	3	어류도감(A Fish Map)
	4	약성가(Ultimate Prescription)
	5	말을 허라니, 허오리다(If You Want Me To Say)
	6	신의 고향(You Know Who I Am?)
	7	호랑이 뒷다리(Tiger's Third Leg)
	8	일개 한퇴(You Are Just a Tiny Bunny!)
	9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되(Crying Softshell Turtle)
	10	의사줍치(A Magic Pocket)
	11	약일레라(Ddiddiroo Diroo Diroo)

[그림 6] 이날치 밴드 <수궁가>의 앨범자켓 및 수록곡<sup>74)</sup>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는 격식과 과격의 조화 특히 전통과 현대의 혼합이라는 점에서 어딘지 익숙한 듯 낯선 재미를 준다. 이들의 ‘혼종성’은 수궁가 한 대목인 <범 내려온다>를 초경계, 탈경계, 나아가 무경계에 이르게 하여 다른 장르와 달라 보이게 하는 ‘구별 밈’이 된다<sup>75)</sup>.

때문이다. 뉴트로 제품들은 복고이지만 과거의 재현이 아닌 현대적 재해석 또는 재창조라고 할 수 있다. 회상할 과거가 없는 포노 사피엔스의 Z세대에게 레트로는 추억을 소환하는 옛것이 아닌, 보도듣도 못한 신박한 새것이다. 전통을 모르기에 Z세대는 오래된 레트로를 세상 힙한 뉴트로로 탈바꿈시킨다. 또는 전통을 매우 잘 알더라도 그 생산주체 역시 과거 옛날이 아닌 지금 현대를 살고 있기에 전통을 현대적 감성에 맞게 재해석하고 재구성하고 새롭게 표현할 수 있다.

73) 브로디, 앞의 책, 49쪽.

74) 이날치 밴드 <수궁가> 앨범(2020.5.29. 발매)에 실린 노래의 순서를 원작 수궁가의 이야기 순서로 다시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약성가[4]→어류도감[3]→신의 고향[6]→범 내려온다[1]→호랑이 뒷다리[7]→일개 한퇴[8]→좌우나줄[2]→말을 허라니, 허오리다[5]→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되[9]→약일레라[11]→의사줍치[10].

75) 한국관광공사 <범 내려온다>의 홍보영상에서 이날치 밴드와 함께 공연한 엠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 3.3.2. <범 내려온다>의 연상 밈: 힙한 음악/의상 = 힙한 도시/전통

‘연상’ 밈은 밈들 사이의 연결을 뜻한다. 즉 한 번에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밈을 연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멋진 여성-맥주, 멋진 남자-밥솥, 귀여운 어린이-페인트 등이 연결되면 연상에 의해 특정 물건에 대한 특정 태도를 갖게 된다. 이런 태도들은 다른 밈들을 서로 연상시키게 된다<sup>76)</sup>. 이러한 연상 밈으로 인간의 마음이 프로그래밍 되면 한 사물의 존재는 다른 것에 대한 사고나 느낌을 불러 일으킨다. 이것은 행동을 변화시키고, 결국 그 밈을 다른 마음에 퍼뜨릴 수 있다. 이렇게 모여진 밈들은 밈 복합체(memeplex)를 형성한다. 밈 복합체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그와 관련된 자아개념까지 바꾸어 밈 덩어리로 이루어진 일종의 자아복합체(selfplex)을 형성하게 된다<sup>77)</sup>.

이날치 밴드 <범 내려온다>의 힙한 음악과 리듬 뿐만 아니라, 뮤직 비디오나 영상에 나타나는 힙한 의상과 힙한 춤은 그것이 진행되는 공간인 ‘서울’에 대해서도 ‘힙한 도시’라는 연상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관광공사 영상이 아닌 일반공연영상에서도 이날치 밴드는 소리꾼임에도 불구하고 한복을 입거나 갓을 쓰거나 머리를 쪽지지 않고, 트레이닝복, 정장, 드레스를 입고, 비니를 쓰거나 단발을 하거나 머리를 풀어헤친다.



[그림 7] 이날치 밴드의 힙한 의상들

이날치 밴드 <범 내려온다>의 공식 뮤직비디오(2020.2.27. 유튜브 LEENALCHI)는 조회수 32,686회(2020.12.27.검색) 밴드가 출연하거나 춤이 없이 음악만 나오고 그래픽 중심이다. 원색적이고 만화경 같은 그래픽들이 어찌보면 B급 감성처럼 여겨지지만, 가장 현대적인 컨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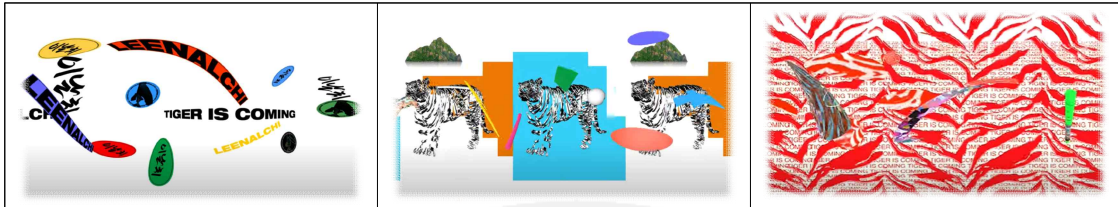
(대표: 김보람 안무가)은 그 이름처럼 애매모호하다. 현대무용, 발레, 스트리트 댄스, 힙합 등이 뒤섞여있다. 이들의 혼종성 역시 <범 내려온다>의 밈성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디지털 고전문학’이라는 본고의 연구주제에 벗어나므로 후속연구에서 논의하겠다.[사진: 엠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76) 브로디, 앞의 책, 53쪽.

77) 수잔 블랙모어, 김명남 역, 『문화를 창조하는 새로운 복제자: 밈』, 바다출판사, 2010 (원서출판: 1995).

포러리 미디어 아트에서 주로 선보이는 그래픽들로 판소리 한 대목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힙한 감성을 느끼게 한다. B급 감성이라는 말도 예전에는 ‘뭔가 어설피고 키치적인 아마추어 리즘’에 기댄다고 할 때, 최근 B급의 의미는 어설피고 우스운 느낌이 아닌, ‘뉴트로’ 감성과 결합되어 신선하고 놀랍다는 점에서 ‘힙함’과 통한다<sup>78)</sup>.



[그림 8] 이날치 밴드 <범 내려온다> 공식 뮤직비디오(부분)

이러한 힙함은 뭔가 고루하고 딱딱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전통(고전문학 포함)에 대해 ‘힙한 전통’ 또는 ‘힙한 고전’이라는 연상을 가능하게 하여, 포노 사피엔스들에게 흥미로운 것, 재미로운 것, 매력적인 것으로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 3.3.3. <범 내려온다>의 전략 밈: 중독성

‘전략’ 밈은 인과관계에 대한 믿음이다. 전략 밈으로 마음이 프로그램될 경우, 인간은 어떤 식으로 행동하면 어떤 결과를 낳으리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게 된다<sup>79)</sup>. 전략 밈에 의해 프로그램된 믿음은 이성적이거나 논리적 사고에 기초한 것이 아닌, 즉각적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전략 밈화된 사람은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렇게 믿는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특정 행동을 하게 된다.

이날치 밴드 <범 내려온다>의 전략 밈은 ‘중독성’이다. 그 중독성은 “뚝뚝 두뚝뚝”라는 독특한 리듬(장단)과 ‘범 내려온다’라는 반복적 후렴구이다. ‘뚝뚝’이 시작되면 범이 내려오고 흥이 솟아난다. 이는 멈출 수 없고 끊을 수 없으며 ‘갖고 싶다’는 중독적 욕망을 자극한다. 자신도 모르게 <범 내려온다>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지인에게 공유하고, <범 내려온다>와 관련된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며 이리저리 유명하게 된다. 실제 노래가 시작되기 전 약 15초간의 인트로 부분에서 “뚝뚝 두뚝뚝”이라는 장단이 반복되면서 서플댄스 음악과 같이 몸에 춤의 리듬을 심어 놓는다. 이후 곧바로 시작되는 “범 내려온다”라는 후렴구는 장단과 절묘하게 맞아들어가면서 색다른 ‘흥’을 선사한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생이 내려온다.  
누에머리를 흔들며 양귀 쪽 찢어지고  
몸은 얼썩덜썩 꼬리는 한발이 넘고  
동이 같은 앞다리며 전동 같은 뒷다리면  
새 낫 같은 발톱으로 엄동설한 백설격으로  
잔디 뿌리 왕모래 좌르르르르 헛치여  
주홍입 짝 벌리고 자라 앞에가 가 우뚝 서

★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생이 내려온다.  
누 에머리를 흔들며, 양 귀 쪽 찢어지고,  
몸은 얼~송덜 송, 꼬리는 잔~뚝 (♣☆)  
한 발이 넘고, 동개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 낫 같은 발톱으로 엄동설한 백설격으로  
잔디 뿌리 왕모래 좌르르르(좌르르르) 흘리고,

78) 김낙현, 한승우, 「레트로 및 뉴트로 현상에 관한 연구 동향과 인터넷 신문기사의 의미 분석」, 『문화와 융합』, 42권 8호, 한국문화융합학회, 393-414쪽, 2020.

79) 브로디, 앞의 책, 51쪽.



<p>홍행홍행 허는 소리 산천이 뒤덮고  땅이 툭 꺼지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움치고  가만히 었졌을 제</p>	<p>주홍 입 짝 벌리고 자라 앞에 가 우뚝 서  홍앵앵앵 허는 소리 산천이 뒤덮고  땅이 툭 꺼지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움치고  가만히 었졌을 제 (☞ ★)</p> <p>☆ <b>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반복)</b>  <b>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b></p>
수궁가 중 범 내려오는 대목 <sup>80)</sup>	이날치 밴드 <범 내려온다> <sup>81)</sup>

왼쪽의 판소리 대목과 비교할 때, 오른쪽 <범 내려온다>는 원전에 비해 “범 내려온다”는 구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후렴구로 만들었고, “잔~뜯”이나 “(좌르르르)”라는 변형을 통해 좀더 신나면서도 다성적인 느낌을 주었다. <범 내려온다>의 녹음 당시, 이날치 밴드의 소리꾼 권송희는 “범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걱정했다”고 한다. 판소리 사설에는 한 구절일 뿐이지만, 일반 노래로 바꾸는 과정에서 반복 후렴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많이 내려온 범 덕분에 ‘1일1범’ 신드롬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이날치 밴드 <범 내려온다>는 ‘혼중성’이라는 구별 밈, ‘힙함’이라는 연상 밈, ‘중독성’이라는 전략 밈의 특성으로 인해 전례없는 디지털 고전문학 콘텐츠 밈이 되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날치 밴드라는 생산주체의 ‘두려움 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기’라는 태도에 기인한다<sup>82)</sup>. 장르의 해체와 조립, 낯설게 하기와 재구성/재창조 하기로 인해 디지털 고전문학 <범 내려온다>는 ‘밈’이 되어 포노 사피엔스들에 의해 지금도 모바일 세상에서 다채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향유되고 있다.

#### 4. 나오며: 1일1밈(meme)!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디지털 고전문학을 향유하는 Z세대들은 오늘도 손안의 모바일과 더불어 하루종일 온택트하며 유튜브 세계를 유영하고 있다. 포노 사피엔스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여전히 지치지 않고 제 2, 제 3의 <범> 리듬과 음악과 춤을 향유하며 자신들만의 새로운 스타일로 창조하고 있다.

수명이 짧은 인터넷 밈의 특성상 1일1짱이 그러하였듯 곧 1일1범의 시대는 가고 또다른 1일1○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1일n밈이라는 것이다. 한번 뇌리에 박힌 밈은 진화를 초래하고, 한번 진화한 밈은 역변(逆變)없이 계속 진화하게 된다.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는 포노 사피엔스 시대 디지털 고전문학 향유방식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판소리 ‘수궁가’에 바탕을 둔 <범 내려온다>는 기존의 대중가요 중심의 콘텐츠 확산과는 다소 다른 결을 지니고 있다. 국제적인 K-밈 열풍을 일으켰던 사이의 강남스타일, 국내에서 ‘1일1짱’이라는 엄청난 파급력의 신조어를 만들어낸 비의 뮤직비디오 <짱> 등은 주로 대중문화의 최전선에 있는 연예인의 콘텐츠를 대상

80) 한국콘텐츠진흥원: 수궁가 중 호랑이가 내려오는 대목2(창자 김경숙)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1&cp\\_code=cp0412&index\\_id=cp04120471&content\\_id=cp041204710001&search\\_left\\_menu=3](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1&cp_code=cp0412&index_id=cp04120471&content_id=cp041204710001&search_left_menu=3)

81) 유튜브: 범 내려온다[앨범 호랑이, 2020.2.21.발매] <https://www.youtube.com/watch?v=JJPxb2oLhki>

82) <범 내려온다>의 모든 것을 가능케 했던 음악감독 겸 베이시스트 장영규는 영화, 뮤지컬, 판소리 등 안 해본 음악이 없다고 한다. 그는 언제나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한다고 말한다. 이날치 밴드의 소리꾼 이나래 역시 안 해본 장르가 없다. 그녀는 “다들 가는 길로 안 가고, 남들 안 가는 길로 가보기”가 소리꾼으로서 자신의 태도라고 말한다. - SBS스페셜 인터뷰 중에서.



으로 했다면<sup>83)</sup>, 한국관광공사(이날치 밴드×엠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범 내려온다> 영상은 (물론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대중적으로는 덜 유명한 단체들에 의한 콘텐츠라는 점에서 유명세에 기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판소리’라는 고전문학을 소재로 한, 첫 ‘K고전-밈’ 이라고 할 수 있다.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 고전문학이 소멸하지 않고 진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낯선 분야와의 만남과 협업을 통해 자발적으로 밈화(memetization)되어 포노 사피엔스들의 일상에 파고들어야 할 것이다.



---

83) 이현석, 「사이의 영상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에 드러난 키치와 밈에 관한 탐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11호, 148-158쪽, 한국콘텐츠학회, 2013.

## <참고문헌>

- 김낙현, 한승우, 「레트로 및 뉴트로 현상에 관한 연구 동향과 인터넷 신문기사의 의미 분석」, 『문화와 융합』, 42권 8호, 393-414쪽,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 나지영, 「영상 매체를 통한 진짜-가짜 대결 밈(meme)의 전승 양상」, 『문화콘텐츠연구』, 16호, 91-111쪽,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19.
- 류수열, 「고전문학 향유 리터러시의 위계화 시론: <토끼전>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36호, 5-31쪽,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7.
- 리처드 브로디, 백한울 역, 『마인드 바이러스』, 동연, 2000 (원서출판 1996)
- 박경주, 「고전시가 교육에 있어 향유 방식의 중요성과 그 방법론적 탐색」, 『고전문학과 교육』, 38호, 5-35쪽,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 박광길, 「인터넷 밈의 언어적 성격 고찰」, 『인문과학연구』, 66권, 5-26쪽,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 서영숙, 「서사민요의 향유방식과 교육적 의의」, 『고전문학과교육』, 39호, 41-66쪽,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 손종흠, 「고전문학콘텐츠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열상고전연구』 57호, 125-158, 열상고전연구회, 2017.
- 손태도, 「고전문학의 향유방식과 교육: 과거, 현재, 미래」, 『고전문학과 교육』 37, 5-45쪽,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 수잔 블랙모어, 김명남 역, 『문화를 창조하는 새로운 복제자: 밈』, 바다출판사, 2010 (원서출판 1995).
- 신선희, 「디지털 시대의 고전문학 교육: 고전서사관련 교과목 운용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24/25권, 133-158쪽,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07.
- 신종천, 「밈 현상의 정보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밈의 진화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제42권 7호, 519-547쪽,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 오수연, 「뉴트로(new-tro)에 주목하라」, 『마케팅』, 제53권 1호, 51-56쪽, 한국마케팅연구원, 2019.
- 이현석, 「사이의 영상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에 드러난 키치와 밈에 관한 탐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11호, 148-158쪽, 한국콘텐츠학회, 2013.
- 정은이, 「Z세대가 선호하는 방송콘텐츠에 관한 연구: 20세대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58호, 141-181쪽,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20.
- 정혜경, 「고전서사를 활용한 콘텐츠 동향과 기획」, 『우리문학연구』 제57권, 119-159쪽, 우리문학회, 2018.
- 최재봉, 『포노 사피엔스』, 쌤앤파커스, 2019.
- 편집부, 「책보다는 유튜브 영상 중심 Z세대의 등장」, 『마케팅』, 제51권 4호, 32-37쪽, 한국마케팅연구원, 2017.
- Lord, A. B., *The singer of tales* (2nd. ed.),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2000.
- Spiro, J. *Assessing literature: Four papers, Assessment in Literature Teaching* (C. Brumfit Ed.) Modern English Publish, 1991.



##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고전문학 향유방식 탐구 : 이날치 밴드 <범 내려온다(Tiger is coming)>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강 우 규(중앙대)

본 발표문은 <2020년 한국관광공사 홍보영상(서울 편)>을 중심으로, 포노 사피엔스 시대 고전문학이 어떻게 향유되고, 어떻게 향유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전문학이 화석화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생동할 수 있음을 밝힌 뜻깊은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발표자의 연구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1. 고전문학 향유방식 1세대를 듣기, 2세대를 읽기라고 표현하면서, 1세대의 특징을 고전문학이 창작되고 향유되던 당대의 현장성을, 2세대의 특징을 고전문학이 화석화되어 배워야 하는 입시용 텍스트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1세대 향유방식을 과연 ‘듣기’로만 한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17세기부터 창작되고 향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문장편소설의 경우는 ‘듣기’보다는 ‘읽기’의 방식으로 향유되었을 여겨지기 때문이다. 즉 고전시가의 경우 1세대의 특징은 ‘듣기’가 주를 이루겠지만, 고전산문의 경우 당대에 이미 ‘듣기’와 ‘읽기’가 병행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2. 형식적인 측면에서 “2.2.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도래”의 내용은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들을 조금 보완한 부분이라, 논문으로 발표할 때는 제외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본 발표문은 유튜브에서 수익 뷰의 조회수를 기록한 <2020년 한국관광공사 홍보영상(서울 편)>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날치 밴드의 노래와 엠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춤, 서울의 관광명소 이미지 등이 결합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후의 구분으로 생산주체를 이날치 밴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향유주체를 생산주체와 수용주체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수용주체라고 이야기하는 포노 사피엔스들은 또 다른 패러디물들을 생산해내고 그러한 놀이가 다시 <2020년 한국관광공사 홍보영상(서울 편)>의 인기를 견인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4. 그런데 ‘3.3. 콘텐츠 측면: 밈(meme)적 특성’ 분석 내용을 이날치 밴드, 그리고 <범 내려온다>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분석 대상이 <2020년 한국관광공사 홍보영상(서울 편)>이 아닌 것입니다. 콘텐츠 측면에서 이날치 밴드, 그리고 <범 내려온다>를 주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듯합니다. 하지만 본 발표문의 목적은 포노 사피엔스 시대의 고전문학 향유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발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유튜브에서 수익 뷰를 달성한 <2020년 한국관광공사 홍보영상(서울 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 발표문의 분석 내용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언급했던 디지털 시대의 고전문학 향유방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 혹여나 오독으로 인해 발표자의 생각을 잘못 이해한 것이 없기를 바라고, 愚問에 賢答을 기대하며 토론자의 소임을 마치겠습니다.



# 포노 사피엔스의 ‘위라벨’ 과 자본주의 횡단하기

-장류진의 『일의 기쁨과 슬픔』을 중심으로

연 남 경(이화여대)

## 차례

1. 코로나-19와 포노 사피엔스의 언택트한 일상으로부터
2. 스마트 플랫폼: ‘포노’ 들이 사는 온라인 세상
3. 뉴 노멀과 폭력: 성매매의 확산과 시대착오적 인물
4. 통치성과 권력: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호모 엠파티쿠스의 공존
5. 맺는말

### 1. 코로나-19와 포노 사피엔스의 언택트한 일상으로부터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 전염병의 역습으로 ‘팬데믹-패닉’<sup>84)</sup> 상태가 지속 중이다.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 진단과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sup>85)</sup> 사람이 죽어나가고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비상사태 중에도 나름대로 교육과 산업과 경제는 돌아가고 있다.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와 화상회의로 업무를 수행하고,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으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한다. 심지어는 올 연말은 ‘Zoom 회의’<sup>86)</sup>라는 랜선 송년회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우리는 이제 확실히 포노의 시대가 실현되고 있는 현실을 맞이했다. 이것이 바로 언택트 시대를 가능하게 한 포노 사피엔스의 능력과 그들의 문명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LG디스플레이 블로그 | Blog.lgdisplay.com

[그림 1] 포노 사피엔스<sup>87)</sup>

84) 슬라보이 지젝, 『팬데믹 패닉-코로나19는 세계를 어떻게 뒤흔들었는가』, 강우성 옮김, 북하우스, 2020.

85) 최재천, 장하준 외, 『코로나 사피엔스』, 인플루엔셜, 2020.

86) ‘Zoom 회의’는 줌(Zoom)+송년회, 즉 화상회의 플랫폼 ‘줌’으로 하는 송년회를 의미하며, 사회적



[그림 2] 코로나-19 시대의 포노 사피엔스<sup>88)</sup>

“2007년 1월 선보인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꿔놓아 지금은 스마트폰 없이 살기 어려운 ‘포노 사피엔스’ 시대가 됐다. 스마트폰 소지자의 80%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15분 이내에 문자와 뉴스 등을 확인한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노모포비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sup>89)</sup>

위와 같이 2015년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최초로 사용된 이래, ‘포노 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스마트폰을 슬기롭게 사용하는 인류’라는 의미로 통용되며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포노 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을 축약한 폰과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학명 ‘호모 사피엔스’라는 단어를 결합한 신조어다. 여기에는 스마트폰 유저들이 바꾸어낸 일상의 혁신을 유의미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즉 스마트폰이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왔다거나 스마트폰으로 인해 책을 읽지 않게 되었다는 등의 부정적인 계기들은 배제되어 있다<sup>90)</sup>는 시각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 언택트 시대에 인간관계를 이어주고 온라인 교육을 가능하게 한 것이 포노 사피엔스 문명이기 때문이다. 늘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는 기대(낙관)와 공포(비관)가 공존하듯이 사실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에도 한편에서는 ‘노모포비아’, ‘디지털 줌비’, ‘스몸비’와 같은 부정적 명명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위험성에 대한 염려가 있어 왔다. 그러나 이제 인류는 자기 생존에 유리한 진화의 도구로 스마트폰을 선택했으며,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하면서 문명 전환의 불안함을 해소해가는 ‘포노 사피엔스’가 새로운 문명의 표준으로 수용될 때 디지털 혁명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최재봉의 입장이 코로나-19를

거리두기 2.5단계에다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2020년 말 밀레니얼들에게 새롭게 등장한 문화이다.(천다민, 「재택에 지쳐 산으로, 친구 만나러 줌으로 향하는 밀레니얼들」, 『한겨레』, 2021.1.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6947.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6947.html)

87) 「‘포노 사피엔스’, 스마트폰이 만든 신인류의 등장」, 『LG디스플레이 기업블로그 TECH』, 2016.8.12.

<https://blog.lgdisplay.com/2016/08/phono-sapiens/>

88) 이흥우, 「[한마당] 포노 사피엔스」, 『국민일보』, 2020.5.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5862&code=11171211&sid1=op>

89) 양태삼, 「‘포노 사피엔스’ 시대 도래 <英 이코노미스트>」, 『연합뉴스』, 2015.2.27.

<https://www.yna.co.kr/view/AKR20150227179700086>

90) 이혜진, 「위기과 기회, 포노사피엔스의 선택」, *Le Monde. diplomatique*, 2020.9.7.

<https://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95>

통과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최재봉은 말한다. “스마트폰은 ‘뇌에 꽂는 휴대용 저장장치’입니다. 그걸 뇌에 연결한 채 살아가는 인류를 우리는 포노 사피엔스라 부르지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인 40억 명이 스마트폰 사용자다. 한국도 2018년부터 ‘1인 1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다. 그에 의하면 지금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포노 사피엔스다.<sup>91)</sup> 이렇게 그는 포노 사피엔스를 ‘자발적으로’ 탄생한 인류로, 그들의 신문명을 힘이 강한 진화의 산물로, 4차 산업혁명과 연관지어 기술 혁명이 아닌 시장 혁명이라 해석하고, 포노 사피엔스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을 모든 권력이 기업에서 소비자로 이동한다는 것에서 찾고 있다.<sup>92)</sup>

그러나 포노 사피엔스 문명을 시장 혁명으로, 고객을 왕으로, 데이터를 마음으로 해석하는 견해는 경제를 최종심급으로 하는 푸코의 통치성 개념<sup>93)</sup>을 환기시킨다. ‘사람이 답’이라고 할 때의 사람은 소비자에 다름없으며, 고객의 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신경화할 때, 이것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강화이자 자본주의에 더욱 철저히 순응하는 지식-테크놀로지의 단면<sup>94)</sup>일 수 있는 것이다. 본고는 포노 사피엔스의 문명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시장 혁명의 논리로 돌파해나가는 낙관론과 빅데이터와 스마트폰에 잠식당한 일상이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을 가속화한다는 비판적 입장 모두에 전적인 동의는 유보하되 양자를 참고하며, 그에 대한 실마리를 문학작품과의 대화를 통해 모색해보려 한다.

포노 사피엔스의 일상을 구체적 상황 제시를 통해 누구보다 잘 보여주는 작가는 단연코 ‘판교 테크노밸리의 하이퍼 리얼리스트’로 불리는 장류진이다. 장류진은 1986년생, 밀레니얼 세대<sup>95)</sup>로 판교 IT회사에서 7년 넘게 일한 경력자이자, 그 경험이 녹아든 소설 <일의 기쁨과 슬픔>으로 2018년 제21회 창비신인소설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해당 작품이 창비 홈페이지에서 무료 공개 후 트위터 등 링크 공유되며 40만 조회수를 기록, 서버가 마비되는 일이 있었다. 이처럼 포노 사피엔스들의 열광을 받으며 등장한 작가에 대한 평단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우선 회사원 소설<sup>96)</sup>, 노동소설<sup>97)</sup>의 차원에서 소재적으로 접근한 경우가 있다. 이들은 장류진의 소설을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재구성 탐색까지 이르지 못하며 소통과 연대의 정서를 찾기 힘든 고립된 단자론의 세계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인물의 유형별로 분류<sup>98)</sup>하거나 성장의 차원에서 독해<sup>99)</sup>한 경우가 있다. 이들은 장류진을 새로운 전형의 형상을 구축하는 변종의 작가로, 그의 작품을 산뜻하고 담백한 인물들이 성취한 ‘센스의 혁명’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유형의 소설로 본다. 그리고 취업난 시대에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밀레니얼 세대에 주목한 논의<sup>100)</sup>와 <도움의 손길>을 여성이분법으로 분석<sup>101)</sup>한 경우가 있다. 이

91) 이소연, 전준범, 「스마트폰과 몰아일체, 새로운 소비 권력 된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 『조선비즈』, 2020.11.2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6/2020112601597.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6/2020112601597.html)

92) 최재봉,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포노 사피엔스』, 샘앤파커스, 2019.

93) 미셸 푸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오트르망 옮김, 난장, 2012.

94) 장미라, 「빅데이터 시대의 통치성-푸코의 관점에서」, 『현대유럽철학연구』 46, 한국하이데거학회/한국해석학회, 2017, 221-256쪽.

95) 디지털 소비 혁명의 주역은 밀레니얼 세대다. 1980-1996 사이 출생한 사람들이며, 지금의 ‘포노 사피엔스 경제 체제’에서는 가장 능력 있는 리더세대로 활약 중이다.(최재봉, 앞의 글, 40쪽.)

96) 신성환, 「2010년대 후반 한국형 회사원 소설에 나타난 청년 의식 연구-김세희와 장류진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83, 한국문학언어학회, 2020, 155-188쪽.

97) 오길영, 「노동소설에서 사회소설로: 장류진 <일의 기쁨과 슬픔>과 김혜진 <9번의 일>」,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020, 6, 299-314쪽.

98) 양재훈, 「반박귀진의 하수들과 철없는 바틀비들-<잘 살겠습니다>를 중심으로 본 장류진 소설 등장 인물의 두 중심 유형」, 『작가들』 72, 인천작가회의, 2020, 169-185쪽.

99) 인아영, 「센스의 혁명」, 『일의 기쁨과 슬픔』, 창비, 2019, 214-231쪽.



상 검토에 의하면, 장류진의 소설이 새롭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다만 이를 기존의 틀로 들여다볼 경우 개인 차원에 매몰되거나 고립된 단자론의 세계로 보이기도 하겠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경우 인물의 새로운 전형과 센스의 혁명이라는 차원으로 읽히게 된다. 그 중에서도 장류진의 소설이 그간 한국문학이 수호해온 비대한 자아 대신 “특유의 생존감각으로 시스템을 체화하고 탄력적으로 구부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sup>102)</sup>는 개인들을 보여주며, “일할 수 없는 슬픔의 크기가 일의 슬픔을 압도해 버리는”<sup>103)</sup> 취업난 시대의 ‘을들의 슬픔과 연대’를 보여준다는 시각에 동의한다.

장류진 소설의 인물들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하거나 포털 사이트의 댓글 모니터링 업무를 보고, 유튜브에 노래를 올려 순식간에 조회수 백만을 기록하는가 하면,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수를 자랑하는 셀럽이기도 하다. 이들은 포노 사피엔스를 위해 일하며, 스스로도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포노 사피엔스다. 한편 작가의 발화 “자본주의 아닌 게 어딴겠어요.”<sup>104)</sup>는 긍정이자 부정, 혹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진술로 읽힌다. 더 이상 자본주의 외부를 모색할 수 없다는 정확한 현실인식인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논리를 향한 시니컬한 태도 역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고는 포노 사피엔스 문명에서 자본주의를 가로지르는 서사로서 장류진의 소설을 분석해보려 한다.<sup>105)</sup>

## 2. 스마트 플랫폼: ‘포노’ 들이 사는 온라인 세상

전 세계의 36억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포노 사피엔스 문명을 즐기고 있고,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 기업은 물론이고 우버,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기존 산업의 구석구석을 모두 교체하고<sup>106)</sup> 있는 상황에서, <일의 기쁨과 슬픔>은 판교 테크노밸리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다. 실리콘밸리와 비견되는 한국의 판교 테크노밸리는 ‘회사 규모만큼 건물의 크기도 압도적인’ 게임회사 엔씨소프트사로 대표되는 미래적으로 지어진 건물들과 스타트업 사업체들이 들어서 있는 계획 도시다. 최재봉은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이 아닌 시장의 혁명이며, 포노 사피엔스 문명의 가장 큰 특징으로 모든 권력이 소비자에게로 이동했다는 것을 꼽고 있다.<sup>107)</sup> 포노 사피엔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 할 때, <일의 기쁨과 슬픔>에서 아직은 열 명 남짓한 규모로 스마트폰 기반의 중고거래 앱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회사 ‘우동마켓’은 전체 스타트업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3퍼센트에 속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표 데이빗은 매일 아침 스크럼을 짜고 업무 상황을 점검한다. 스크럼은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시작된 ‘애자일 방법론’의 필수 요소로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널리 쓰이는 프로젝트

100) 이경, 「밀레니 ‘을’ 들이 사는 법-장류진, 박상영 소설을 중심으로」, 『오늘의 문예비평』, 2020, 3, 41-58쪽.

101) 이지은, 「재생산노동력의 상품화와 여성 연대의 곤경-장류진 <도움의 손길>에 부치는 주석」, 『문학동네』 101, 문학동네, 2019 겨울호, 1-16쪽.

102) 인아영, 위의 글, 230-231쪽.

103) 이경, 위의 글, 43쪽.

104) 박세희, 「“자본주의 아닌 게 어딴겠어요” 라고 소설가 장류진은 말한다」, 『Huffpost』, 2019.12.3.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de607ade4b00149f734ebbf](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de607ade4b00149f734ebbf)

105) 장류진, 『일의 기쁨과 슬픔』(창비, 2019)에 수록된 작품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며, 추후 본문에서 작품 인용 시 소설집 쪽수만 표기함.

106) 최재봉, 앞의 글, 6-7쪽.

107) 위의 글, 142-143쪽.

트 관리 기법이다.<sup>108)</sup> 서로의 작업 상황을 최소 단위로 공유하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빠른 의사결정’과 ‘동등하게 소통하는 수평한 업무환경’을 위해 영어 이름을 사용한다. 정작 대표가 스크럼에서 아침 조회하듯 연설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영어 이름도 수평적 문화 정착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동마켓은 비슷한 콘셉트를 가진 스타트업 중 제법 안정기에 접어든 상태다.

소설은 닉네임 ‘거북이알’의 문제가 불거지며 시작된다. 중고가 아닌 새 상품을 매일 백 개 이상씩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 성사율이 백 퍼센트인데다 실제 거래한 사람들이 “좋은 물건 싸게 팔아주셔서 고마워요!”라는 댓글을 달고 지표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지만, 어부저로 의심하는 대표 때문에 안나는 할 수 없이 거래를 빙자해 거북이알을 만나러 간다. 그리고 거북이알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된다. 거북이알은 유비카드사 차장 이지혜로, 공연기획팀 소속일 때 회장의 특별 지시로 루보프 스미르노바의 내한공연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첫 내한공연을 성사시켰고 회장은 크게 기뻐하며 특진까지 약속했으나 회장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연 소식을 올리기 전에 보도자료를 먼저 돌렸다는 이유로 특진을 취소하고 다른 팀으로 발령을 냈으며 심지어는 일년 간 월급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짜질한 복수를 행한다. 포인트로 적립된 월급을 보고 거북이알은 모멸감을 느꼈지만, 포인트로 구매한 물건들을 우동마켓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포인트를 다시 돈으로 바꾸어 나간다. 거북이알은 우리가 살아가는 소비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포인트도 돈과 다를 바 없다고 빠르게 생각을 전환하고 상사의 횡포에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대응한다. 직원가로 물건을 싸게 사고, 물건 주문은 근무시간에 하며, 외근 나갈 때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개인 시간을 축내지 않고 손해를 최소화한다. 포인트로 적립된 월급을 보고 눈물이 났지만, 거북이알은 스마트 플랫폼을 십분 활용하며 일의 스트레스에 자신의 생활을 희생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위라벨(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을 유지할 줄 아는 포노 사피엔스이다.

이때 거북이알은 고객의 입장에서 우동마켓을 쓰기 편하며 세심하게 잘 만들어진 앱으로 평가한다.<sup>109)</sup> 그중 ‘게시물 끌어올리기’ 기능을 가장 좋아한다는 거북이알은 우동마켓 직원이라는 이유로 ‘나’를 은인이라 부른다. 실제로 그 기능을 기획한 ‘나’는 고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해낸 일이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신의 기획이 고객을 만족시켰다는 점에서 ‘나’는 보람을 느꼈을 것이며 일의 기쁨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캡슐커피머신에 이어 케빈에게 줄 레고를 산다. 이렇게 중고판매 앱을 통해 거북이알과 안나는 서로가 서로의 고객이 된다. 제공하는 서비스에 누구보다 만족하며 높은 평점을 주는 고객 말이다. “회사에서 물어본 적 있어요?”라는 거북이알의 물음에 안나는 아이폰 개발자 케빈과의 갈등을 떠올린다. 포털사에서 모셔온 천재 개발자라는 이유로 사실상의 막내 서열로서 케빈의 눈치를 봐야 하고, 거북이알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했어야 했던 직장생활의 고달픔이 눈물이라는 슬픔으로 환기되었지만, 안나는 거북이알의 사정에 공감하고 자신이 했던 일에서 보람을 찾으면서 케빈을 위해서도 그가

108) 애자일 agile 경영은 1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기존의 기업 경영 방식과 달리 고객 접점에 있는 소규모 팀에게 경영의 전권을 부여하고 고객 반응에 따라 빠르게 움직이며 대응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미국 기업 중 3분의 1이 연 단위 성과평가 경영방식에서 애자일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고객 중심 경영의 철학이 경영방식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증거이다.(앞의 글, 311쪽)

109) 작가에 의하면 ‘우동마켓’은 실제 판교 지역의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을 따라 만든 이름이다. ‘당근마켓’은 2015년 판교 지역 중고거래 앱에서 출발하여 2020년 9월 월 사용자수 1천만 명을 돌파, 국민앱이라는 명칭을 얻었다.(조상래, 「당근마켓, 월 사용자수 1000만... 새로운 ‘국민 앱’의 탄생」, 『Platum-Startup’s Story Platform』, 2020.9.9. <https://platum.kr/archives/148249>)

가장 좋아하는 레고를 선물하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수 있게 된다.

나는 예매 사이트의 서버 시계를 켜두고 21:00:00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고독한 조성진’ 채팅방에 접속했다. 들어가자마자 누군가가 “카네기홀 사진 고화질로 보내주세요” 라는 문장이 쓰인 조성진 사진을 올렸다. 나는 내 맥북의 ‘초팬’ 폴더를 열었다. jpg, gif, avi로 된 수천개의 조성진이 모니터 위에 좌르륵 펼쳐졌다. 그중 하나를 더블클릭했다. 입을 오리처럼 오므리고 앞머리를 찰랑거리며 연주하고 있는 gif 파일이 떠올랐다.(중략)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시는 동안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세요.

아홉시가 되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 또 있었다. 몇 달 전 예매해두었던 조성진 홍콩 리사이틀이 벌써 다음 달이었다. 공휴일과 주말, 그리고 아껴둔 연차를 하루 붙여서 삼박 사일을 놓고 공연도 볼 것이다. 항공권 예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홍콩행 왕복 티켓을 결제했다. 조금 비싼가 싶었지만 오늘은 월급날이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했다.(62-63)

소설의 마지막, ‘나’는 야근 때문이 아니라 루보프 스미르노바의 리사이틀 예매를 위해 회사에 남아 있다. ‘나’는 ‘고독한 조성진’ 채팅방을 찾아가는 팬덤 문화의 일원이며, 채팅방에서 사진을 공유하고 서로 덕담을 나누며, 홍콩 공연을 보러가기 위해 예매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결제한다. 이 저녁 사무실의 공간은 ‘나’라는 포노 사피엔스에게는 일을 위한 곳이 아니라 취미 활동과 공연 예매, 여행 계획을 위한 놀이의 공간으로 전환된다. ‘나’는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소비를 통해 해소하고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와 취미를 공유하며 공연과 여행을 통해 삶을 재충전할 것이다. 월급날이 찾아오기에, 또한 일의 기쁨은 온라인 세상에서의 소비와 문명 향유 방식을 통해 획득된다. 이와 같이 포노 사피엔스 문명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넘나들고, 급여가 소비로, 일의 슬픔이 취미 활동의 기쁨으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위라벨’을 이룬다.

### 3. 뉴 노멀과 폭력: 성매매의 확산과 시대착오적 인물

<새벽의 방문자들>의 화자는 포털 사이트 관계사에서 댓글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실상 하는 업무는 게시물 규정에 어긋나는 댓글을 찾아내거나 신고된 댓글들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일, 다시 말해 악성 댓글이나 음란 광고 등을 지우는 일이었다.

온라인상에 글을 쓸 수 있는 곳은 넘쳐났다. 입력창이 뿔려있는 곳이면 어디든 누구든 배설하듯 글을 토해낼 수 있었다. 깜박이는 커서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 그곳에 되는데로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그대로 활자가, 단어가, 문장이 되었고 일초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아무렇게나 나뒹굴며 노출되었다. 스스로 혹은 누군가가 치우기 전까지 그 글은 어떤 내용이든 서버 어딘가에 화석처럼 박혀 썩지 않고 고이 남아 있을 것이었다. 여자는 그것들을 억지로 캐내고 남김없이 치워버려야 했다.

100% 여대생 만남 보장. 상상 그 이상의 섹\*스! 만족하실 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집이나 모/텔로 직접 보내드립니다. 최선의 가격에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3시간 5만원, 긴 밤 10만원, 횡수는 무제한! A급만 있으니까 골라 드세요. 육감적인 몸매에 어울리지 않는 베이비 페이스, 어떤 남성이든 리드 가능한 스타일…… 하는 문장들을 온종

일 읽고 있노라면, 이른바 ‘클린센터’에서 일하고 있지만 여자의 기분은 ‘클린’ 보다는 ‘더티’에 가까워져갔다.(167)

‘나’가 맞닥뜨린 업무의 현장은 역시 시장의 권력이 소비자에게로 이동한 포노 사피엔스 문명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고객은 왕이기에 “만족하실 때까지”, “최선의 가격에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이를 증명한다. 장류진은 포노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스마트한 플랫폼으로서의 온라인 세상뿐 아니라 같은 플랫폼이 음험한 욕구가 배설되는 통로이자 폭력을 조장하는 장소로서 활용되는 현장에 착목하여 소비의 확산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한다. <새벽의 방문자들>은 포노 사피엔스가 사는 세상의 음화(陰晝)인 셈이다.

문제는 이것이 가상 현실이 아닌 ‘합성-현실(synthetic-reality)’이라는 데 있다. 합성-현실은 가상의 차원과 혼합된 이중적인 공간으로 변해가는 우리의 현실을 지칭하는 용어로, 포노 사피엔스가 거주하는 세계는 가상과 현실이 점점 혼합되어감으로써 가상은 현실의 연장이 되고, 다시 현실은 가상의 연장이 되는 곳으로 전환된다.<sup>110)</sup> 포털을 뒤덮은 음란 광고는 온라인 상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현실로 고스란히 이어지며 실재를 뒤덮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혼하려던 남자와 헤어지면서 여자가 급하게 이사를 한 낯은 오피스텔은 기이한 새벽의 방문자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잊을 만하면 한밤중이나 새벽에 초인종을 누르는 남성들은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최초의 방문자와 영문을 모른 채 현관문을 사이에 둔 공포스런 대치를 한 후, “여대생 오피\*텔 24시 항시 대기. 최고의 품질로 모시겠습니다. 애인처럼 단둘이 편안하게 즐기세요.”라는 댓글에 규제 버튼을 누르던 여자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 성매매는 온라인 상의 광고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여자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심지어 빅데이터에 기반한 추천 알고리즘이 고객을 관리하면서 실제 성매매 산업이 확산되고, 성매매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상 곳곳으로 스며든다. 불을 켜면 사라지지만 사실은 바퀴벌레로 가득한 “모른 척하고 있는 이 좁은 방의 거짓말”(169)처럼 성을 사는 고객들과 성매매 산업은 일상에 편재해 있는 것이다. 여자는 잠금장치를 두 개 더 달았지만, 마침내 결혼할 뻔했던 ‘그’의 방문은 실상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해진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와의 이별 후에 ‘무난하다는 평균의 가치’가 얼마나 갖기 힘든 것인가를 느끼던 중이었다. ‘그’의 방문은 성매매의 고객이 무난한 평균의 남성들임을, 그렇기에 성매매 산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타고 확산 중이며, 여자가 살고 있는 평범한 오피스텔은 언제든 성매매의 현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합성-현실’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두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오피스텔의 구조를 옆두에 두고, 여자는 다른 동 1204호를 확인하러 간다. 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젊은 여자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새벽의 방문자들에게 시달리며 이중의 잠금장치를 달고 사는 사람이었다. 결국 나의 거울상과 마찬가지로 같은 그녀들인 것이다. 이것을 확인한 후 여자는 다시 급하게 짐을 싸서 더블 타워 오피스텔을 떠난다. 그렇지만 오피스텔을 떠났다고 해서 안전해진 걸까? “이십대 후반의 여자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173)은 포노들의 세상은 괜찮은 결과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110) 주영민, 『가상은 현실이다』, 어크로스, 2019, 13쪽(김선희, 「디지털 인류 포노 사피엔스와 생각하는 인류 호모 사피엔스 사이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니체적 분석」, 『니체연구』 38, 2019, 208쪽에서 재인용.)

<다소 낮음>에서 장우는 앨범이 스물여덟 장 팔린 무명가수이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장난스레 만든 ‘냉장고송’을 유미가 찍어 유튜브에 올렸는데 대박이 난다. 순식간에 조회수 30만을 찍자 몇몇 페스티벌에서 섭외 전화가 걸려오고 한 기획사로부터 계약 제의가 들어온다. 스위트사운드의 대표 돈사장은 냉장고송으로 디지털 싱글 음원을 내 음원 수익을 최대한 벌어들이고 그 수익으로 2집 앨범도 내고 1집 리마스터링 앨범도 내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장우에게 냉장고송은 장난처럼 만든 곡이었을 뿐이었고, 음악은 앨범 단위로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음악을 한곡만, 음원이나 스트리밍으로만 듣는 건 마치 책을 원하는 장만 찢어서 가지는 것처럼 뮤지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장우는 아날로그적 감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냉장고송 음원만 제작하기 위한 계약을 거절하고 2집 앨범을 내야 하며 곡을 쓰려면 일년 이상은 걸릴 거라 예상한다. 요즘은 뭐든지 유행이 금방금방 지나가며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냉장고송도 곧 잊힐 거니 묻히기 전에 바짝 당겨서 이윤을 남겨야 한다는(110) 돈 사장의 요지는 미디어 소비 문명의 변화, 즉 킬러 콘텐츠로 승부하고, 성공하면 팬덤이 형성되고, 팬덤이 확장되면 사업이 된다<sup>111)</sup>라는 유튜브 플랫폼의 생리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한순간 스타가 되기도 하고, 순식간에 잊히기도 한다. 이 생리를 십분 활용하는 돈 사장은 흥대 앞 헤비메탈 드러머에서 유명한 기획사 사장이 되었고, 다음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장우는 시스템에서 낙오되어 흥대에서 상수로, 또 망원에서 성산으로 계속 밀려난다.

“전 막 열심히 하기도 싫고, 막 성공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114)

결국 음악에 대한 장우의 진정성은 전달되지 못한다. 음악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에 돈사장의 제의를 거절한 장우를 이해하지 못한 유미는 “제발 인생을 좀 효율적으로 살아봐. 적어도 남들처럼!” (115)이라는 말을 남긴 채 장우를 떠나고, 유튜브 조회 수는 백만 언저리에서 멈추었다가 순식간에 98로 떨어지고 만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와 빅데이터의 담론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인물 장우는 홀로 뒤처져 손바닥만한 자취방에 냉장고와 함께 남는다.

장우의 냉장고는 효율 등급이 ‘다소 낮음’의 4등급, 성능이 시원찮은 대신 조명이 기막히게 밝은 제품으로 냉장고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냉장고와 아날로지 관계에 있는 장우 역시 마찬가지다. 장우도 포노 사피엔스들의 세상에서 ‘다소 낮음’에 처한 효율 등급에 해당한다. 유튜브로 음악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바에 장우는 무관심하다. 장우가 생각하는 음악이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러한 장우에게 특별한 연민을 보내지도, 그렇다고 장우를 탓하지도 않는다. 포노 사피엔스 문명의 뉴 노멀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을 비난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긍정하거나 과도하게 대안으로 제시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장우가 시대착오적 인물이라면, 장우에게 세상은 폭력적일 수도 있으리라는 짐작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sup>112)</sup> 그러니 ‘성공’에 대한 생각이 “남들”과는 다른 장우의 단

111) 최재봉, 앞의 글, 212쪽.

112) 「다소 낮음」을 소설집 마지막 작품인 「탐페레 공항」과 나란히 읽어보면 이런 결론이 가능하다. 「탐페레 공항」은 화자가 핀란드 작은 공항에서 우연히 만난 노인이 보내온 사진과 편지에 고마워하면서도 바쁜 일상에 쫓기며 몇 년간 답장을 미루다 불현 듯 노인을 떠올리고 눈이 나쁜 그를 위해 스케치북에 마커펜으로 손편지를 쓴다는 이야기다. 온라인 위주의 빠르고 편리한 세상에서 우편으로 오고가는 손편지의 아날로그 감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작품이 있기에 장우의 입장에서 그의 음악세계를 이해해볼 수 있는 것이다.

독성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두 편의 작품은 포노 사피엔스 문명에서 추앙하는 “사람이 답이다”<sup>113)</sup>라는 인간미 가득한 진술이 내포한 비정함을 잘 알려준다. <새벽의 방문자들>에서 소비자는 성을 사는 사람이며, 이때 성을 파는, 혹은 위험한 일상을 영위해야 하는 젊은 여성은 ‘사람’에 속하지 못한다. <다소 낮음>에서 순간을 사는 효율적인 인간들의 플랫폼에서 느리고 음악의 진정성을 아날로그적 감수성에서 찾는 장우는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 이렇게 장류진은 포노 사피엔스 문명으로 포장된 가속화된 시장 논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뒤로 밀려나 잊히거나, 상시적인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않는다.

#### 4. 통치성과 권력: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호모 엠파티쿠스의 공존

<잘 살겠습니다>의 ‘나’는 야무지고 쿨하며 프로페셔널하다. 타인에게 신세지지도 자신이 손해 보지도 않는 경제관념을 갖고 있으며, 청첩장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배부하는 감각과 삼년 간의 사내연애를 철저히 비밀로 하는 철두철미함을 갖추고 있다. 입사하며 배치 받은 백오피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너 잘한다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20) 그런 말들을 들으며 눈물겨운 노력을 통해 현재는 주요부서인 전략기획팀 소속이다.

반면 빛나 언니는 기이하게 긴 생머리로 인해 ‘총무과 라폰젤’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공지사항인지 확인도 안 하고 직원 전체에게 답장을 보내는 센스 없음으로 ‘전체회신녀’라는 별명도 추가로 얻었다. ‘나’와 함께 입사했지만 여전히 백오피스를 벗어나지 못해 결혼식 전날까지 야근을 해야 하고, 월세를 얻으려다 이중계약 사기를 당하고, 회사 사람들과 주고받는 메신저 프로필에 남자친구 사진을 올려놓는 등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에 해당하는 모든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심지어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회사를 꽤 오래 다니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나’는 빛나 언니와 입사 동기이면서도 삼년 동안 아무 교류가 없었고 청첩장을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나’에게 빛나 언니는 갑갑증을 유발하는 불편한 존재에 가깝다. 청첩장을 굳이 만나서 받겠다고 해서 점심을 사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비싼 특 예비용을 시켰으며, 결국 자기도 결혼한다며 결혼 준비에 필요한 노하우가 담긴 엑셀 파일까지 건네주게 만든다. 월세 사기를 당했을 때는 ‘나’한테 위로를 듣고 밥을 얻어먹고 나서도 커피 살 때까지 내가 지갑을 열게 만든다. 그리고 나서는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다. 미안하다며 선물을 사주겠다는 빛나 언니에게 밥을 얻어먹고 나서, ‘나’는 키보드 밑에 깔려있는 언니의 청첩장을 보고 나서는 마침내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한다.

25,000(축의금 대신 먹은 밥값)-13,000(내가 청첩장 주면서 산 밥값)=12,000(26)

‘나’는 언니한테 딱 받은 만큼만 선물을 사서 축의금 대신 주기로 마음먹는다. 서로의 결혼식을 계기로 ‘나’는 그간 빛나 언니와의 관계를 결산하며 머릿속 계산기를 두드린다. 이때 인간관계를 경제 원리로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나’는 합리성이라는 이름하에 효율성에 대한 맹목적 추구<sup>114)</sup>를 보이는 경제적 인간, ‘호모 에코노미쿠스’<sup>115)</sup>이다.

113) 최재봉, 앞의 글, 13쪽.

114) 강동호,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근대의 통치성」, 『문학과사회』, 문학과지성사, 2014 여름호, 458쪽.

115) 푸코는 “개인과 개인에게 행사되는 권력 사이의 접촉면, 결론적으로 권력이 개인을 조정하는 원리, 즉 통치와 개인의 경계면”으로 이 개념을 설명한다.(미셸 푸코, 앞의 글, 353쪽 참고.) 즉, 푸코

“빛나 언니한테 가르쳐주려고 그러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오만원을 내야 오만원을 돌려받는 거고, 만이천원을 내면 만이천원짜리 축하를 받는 거라고. 아직도 모르나본데, 여기는 원래 그런 곳이라고 말이야. 예비동에 새우가 빼곡하게 들어 있는 건 가게 주인이 착해서가 아니라 특 예비동을 주문했기 때문인 거고, 특 예비동은 일반 예비동보다 사천원이 더 비싸다는 거. 월세가 싼 방에는 다 이유가 있고, 칠억짜리 아파트를 받았다면 칠억원어치의 김장, 설거지, 전 부치기, 그밖의 종종거림을 평생 갖다바쳐야 한다는 거. 디즈니 공주님 같은 찰랑찰랑 긴 머리로 대가없는 호의를 받으면 사람들은 그만큼 맡겨놓은 거라도 있는 빗쟁이들처럼 호시탐탐 노리다가 뭐라도 트집 잡아 깎아내린다는 거. 그걸 빛나 언니한테 알려주려고 이러는 거라고, 나는.” (28)

“빛나 언니한테 가르쳐주려고 그러는 거야” 라는 ‘나’의 발화는 통치성의 언어에 해당한다. ‘나’는 규율화가 충분히 이루어져 강요 없이도 유순한 신체 활동을 통해 형성된 생산적인 주체이다. 빛나 언니에게 “세상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를, 즉 생산적인 주체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려고 하는 ‘나’의 모습에서 자유주의의 주체에게 드리운 예속화의 면모가 발견된다. 충분히 규율화되지 못한 빛나 언니는 ‘나’에게 불편함을 유발했으며 언니를 지도하려는 ‘나’의 말을 통해 미시적인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들의 주체적 선택이 그것을 제약하는 구조적 환경으로서의 권력과 미분리되어 있음이 발견된다. 결국 빛나 언니를 가르치고자 하는 ‘나’는 자유로운 선택의 주체라 착각하지만 구조적 환경으로서의 권력에 통치되는 예속적인 삶의 대표자인 것이다.

그에 더해 이토록 계산에 밝고 합리적이고 야무진 ‘나’에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바로 남편인 구재와 천삼십만원 차이가 나는 연봉이다. 입사 동기라 같은 햇수 동안 일했고, 현재 같은 부서에 있다. 만약 차이가 난다면 입사 당시 백오피스로 배정받아 2년 간 일했던 것 때문일 텐데, ‘나’는 묻는다. “나는 왜 이년 동안 거기에 있었을까. 이력서에 빼곡했던 내 모든 경력이 전략기획팀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내가 일을 못해서 그랬나. 그런데 시켜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까. 무엇보다 지금은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연봉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야 할까. 구재가 일을 잘해서? 대체 얼마나 잘하길래? 딱 천삼십만원어치만큼?” (27) 빛나 언니와의 관계에서 권력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나’는 구재와의 관계에서는 권력 열위에 처해 있다. 그리고 그게 젠더 권력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는다. 푸코에 의하면 권력이 개인을 조정하는 원리는 바로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종류의 틀이며, 그것은 통치와 개인의 경계면인 셈이다.<sup>116)</sup> 철저한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 통치성의 언어를 자기의 것으로 발화했던 ‘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통치와 개인의 경계면을 감지한다. 자유로운 선택의 주체라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원리는 어쩌면 불합리한 예속화의 길이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소설의 마지막에 ‘나’는 온기가 남아 있는 빛나 언니의 답례떡을 먹으며 진심으로 언니를, 그리고 사실은 언니와 다르지 않은 ‘나’를 응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계산법에 의해 합리적으로 선택된 고작 12,000원짜리 결혼 선

에 의하면 자유주의 관점에서 인간은 이해관계의 주체, 경제적 인간,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개념화된다.(강미라, 앞의 글, 230쪽.)

116) 미셸 푸코, 앞의 글, 353쪽.

물이 결혼식 전날 야근을 하고 있던 빛나 언니에게는 어떤 선물보다 값지고 고마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빛나 언니의 프로필 사진에는 ‘나’의 카드가 올라가 있고, “손편지에 담긴 진심.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라 상태 메시지가 적혀 있다. 통치성의 원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빛나 언니는 ‘나’가 보낸 이해타산적 결혼 선물에 감동을 받고 고마움을 표현하며 오히려 국면을 전환시킨다. 매사에 허술하고 동기들에 비해 뒤처졌으며 답답해보였던 빛나 언니는 규율화된 호모 에코노미쿠스에게 낯설었을 뿐, 어쩌면 시스템에 덜 예속적이라 더 주체적인 인물일지 모른다. 그리고 그러한 빛나 언니의 진심과 온기를 감지한 ‘나’도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 인류로 거듭나게 된다.

다시 <일의 기쁨과 슬픔>의 거북이알과 만나로 돌아가보자. <잘 살겠습니다>에서 ‘나’와 빛나 언니가 전혀 다른 유형의 인간형이었다면, <일의 기쁨과 슬픔>에서 만나와 거북이알은 둘 다 호모 에코노미쿠스이자 호모 엠파티쿠스에 해당할 것이다. 거북이알은 회장의 인스타 자아를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승진 누락, 부서 이동에 이어 심지어 급여를 포인트로 받는 상황에 처하지만, 업무 시간에 온라인으로 회사 직원가로 물건을 싸게 사서 중고거래 앱에 올렸다가 외근 나갈 때 거래하는 방식으로 포인트를 돈으로 바꾸어 나간다. 돈도 현재 시스템의 포인트에 다름없다는 판단에 따라 개인 시간을 손해보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북이알은 자유주의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이다. 안나는 대표의 강권에 떠밀려 내키지 않음에도 거북이알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을 도맡아야 하며 천재개발자 케빈의 한숨 소리에 저도 모르게 나오는 눈물을 감추어야 하는 ‘사실상 막내’의 처지에 놓여 있지만, 야근을 빙자해 회사에서 자신의 취미 생활을 영위하고 일을 성사시킨 댓가로 대표에게 봉지 커피 대신 캡슐 커피를 당당히 요구한다. 이러한 ‘나’ 역시 시스템에 순응하는 주체에게 주어지는 보상인 월급을 휴가의 기쁨으로 치환하며 합리화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이다.

한편 이들은 스스로가 시스템에 최적화된 호모 에코노미쿠스임을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의 선택이 그것을 제약하는 구조적 환경으로서의 권력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매순간 편재해 있는 권력의 작동<sup>117)</sup>을 경험함으로써 말이다. 또한 이들은 통치성에서 벗어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이들은 시스템에서 도태되기보다 철저히 시스템에 체화하고 그것을 활용하기로 하는 듯하다. 즉 이들은 충분히 규율화된 생산적인 주체인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예속적인 차원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간파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스템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스스로 주체성을 부여해가는 자율성의 측면을 놓치지 않는다. 이들은 소비자로서 자본주의를 최종 심급으로 하는 시스템에 예속되어 있지만, 선물이라는 행위를 더해 소비의 가치를 증폭시킬 줄 안다. 거북이알은 포인트로 만나에게 점심과 일의 보람을 선물하고, 안나는 케빈에게 애정템인 레고를 선물해 감동을 줄 줄 안다. 이렇게 소비로부터 온기의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이들은 시스템의 예속화와 주체화 사이에서 왕복운동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이자 호모 엠파티쿠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통해 포노 사피엔스의 양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 5. 맺는말

(추후 보충)

117) 미셸 푸코, 『성의 역사-삶의 의지』, 이규현 역, 2001, 나남, 107쪽.







## 연남경의 「포노 사피엔스의 ‘위라벨’ 과 자본주의 횡단하기-장류진의 『일의 기쁨과 슬픔』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박 필 현(국민대)

기술은 늘 인간의 삶을 바꾸어왔고 휴대성을 지닌 것들 역시 종종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은 그 둘의 총합이자 첨단인 듯합니다. 연남경 선생님의 「포노 사피엔스의 ‘위라벨’ 과 자본주의 횡단하기-장류진의 『일의 기쁨과 슬픔』을 중심으로」는 ‘포노’ 들의 삶의 공간으로서의 온라인 플랫폼, 포노 사피엔스 문명의 특징과 그 이면, 체제 시스템 내 인물들의 예측화와 주체화 문제를 차례로 짚으며 ‘판교 테크노밸리의 하이퍼 리얼리스트’라 불리는 장류진의 소설을 포노 사피엔스 문명에서 자본주의를 가로지르는 서사로 읽어내고 있습니다. 발표문에서 다루고 있는 논의의 폭이 넓은 데 비해 새로운 문명으로서의 포노 사피엔스를 대하는 토론자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히며, 발표문을 읽으며 느꼈던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1. 선생님께서는 논의의 시작점에서 포노 사피엔스라는 용어의 등장 및 이를 둘러싼 논의들을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포노 사피엔스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을 모든 권력이 기업에서 소비자로 이동한다고 본 최재봉의 논의에 주목하며 이것이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환기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2,3장의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반복적으로 언급됨을 볼 수 있습니다. 포노 사피엔스 문명을 둘러싸고 이에 대한 낙관론이나 비판적 입장 등이 다양하다고 할 때 그리고 그와 같은 다양한 입장 모두에 전적인 동의는 유보한다고 할 때, ‘기술이 아닌 시장의 혁명’, ‘권력이 기업에서 소비자로 이동함’에 특히 주목하게 된 이유 혹은 그 의미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포노 사피엔스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을 선생님께서도 그와 같이 보시는지 혹은 달리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지요.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2장에서는 <일의 기쁨과 슬픔>을 중심으로 ‘포노’ 들의 세상이라고 할 온라인 플랫폼을 논하며, 소비와 문명 향유가 이루어지고 포노 사피엔스 문명이 바로 이곳에서 공사(公私) 영역을 넘나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더해 혹은 오프라인 세계와 다른 온라인 플랫폼만의 특징이 존재하는지, 온라인 플랫폼의 구조적 위치 혹은 오프라인 세계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의 기쁨과 슬픔>의 경우 등장인물들이 가진 배경이 무척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안나는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인 동시에 스마트 플랫폼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회사의 직원이고, 판매자의 입장으로 그 중고거래 스마트 플랫폼의 주이용자인 거북이알은 오프라인 공연 기획일을 했던 대기업 직원입니다. 안나나 거북이알은 공히 온라인 플랫폼 속 세상의 단순한 소비자는 아닌 듯도 하고 또 이들의 삶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세계의 경계는 이미 허물어진 듯도 보입니다. 거북이알이 오프라인 공연 기획은 성공했으나 회장의 온라인 자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죄로, 월급 대신 막막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많은 포인트를 받아 안게 되는 장면 또한 인상적입니다. 친근하고 신사적인 온라인 속 회장과 ‘치졸하다’는 단어가 절로 떠오르는 오프라인 속 회장의 양면성 역시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3장에서 논한 ‘합성-현실’이라는 분석을 공유할 수도 있을 듯한데, <새벽의 방문자들>의 세계가 음화(陰晝)라면 <일의 기쁨과 슬픔>

의 세계는 양화(陽晝)일지. 선생님께서는 이 두 세계 혹은 온오프라인 두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3. 3장에서는 스마트한 플랫폼을 통한 소비 확산의 이면을 ‘뉴 노멀과 폭력’이라는 핵심어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포노 사피엔스 문명을 시장의 혁명으로 이해할 때 그 세계 속 사람이란 결국 ‘소비자’로 한정되며, 이 가속화된 시장 논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폭력일 수 있음을 섬세하게 짚고 있습니다. 아울러 4장에서는 결국 이 “진화”한 인류들이 공히 호모 에코노미쿠스인 동시에 호모 엠파티쿠스임을 논합니다. 즉 “소비로부터 온기의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주체들은 시스템의 예측화와 주체화 사이에서 왕복운동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련되게 주어진 세계에 적응하고 있는 인물들이면서도, 거북이알의 사정에 공감하고 케빈을 위해 맞춤형 선물을 준비하는 안나나 채 식지 않은 답례떡을 먹으며 빛나 언니의 행복을 바라는 ‘나’를 보면 이러한 논의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뉴 노멀 뒤에 산재한 폭력이 있음, 예측화와 주체화의 공존이라는 논의에 공감하며, 동시에 어떤 차이에 대한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근대 이후 통치성의 구축과 그것을 빗겨나거나 벗어나려는 노력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삶이 유지되어왔다고 할 때, 포노 사피엔스 문명의 특징은 푸코의 통치성 개념과 겹쳐지는 것일까요. 혹은 포노 사피엔스 시대만의 특이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할 때 그 특이성이 보다 잘 드러날 수 있을지요.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 작품 속 인물들 중 조금 더 시스템에 덜 예측적인 인물, 예컨대 <다소낮음>의 장우나 <잘 살겠습니다>의 빛나 언니 등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남들과는 다른 단독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시스템에 덜 예측적이라 더 주체적인 인물일지 모른다고 논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주어진 세상보다 ‘나’를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인물들이자 어찌 보면 그로 인해 시스템에 덜 예측적이라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지니면서도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간 차이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장우는 아직도 가방 속에 cd 플레이어를 넣고 다니는 인물이지만 빛나 언니는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온라인 프로필로 공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전자는 타이밍 참 못 잡는 존재 그러니까 고장은 아니지만 효율성이 다소 낮은 냉장고 같은 존재로 후자는 전체 회신녀이자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존재로 일컬어집니다. 시스템 부합과 불화 사이에 선이 있다면 그것은 저 둘 사이 어딘가에 그어질 듯도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신문명 부적응자들의 양태도 다양할 수 있을 듯한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새로운 문명으로 제기된 포노 사피엔스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살피는 한편, 새로운 삶의 공간과 그 특성, 그 속의 ‘사람’까지 아우른 발표문을 통해 선생님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속 연구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한국시

이 현 승(가천대)

## 차례

1. 스마트폰, 포노사피엔스, 변화들
2. 포노사피엔스 시대와 문학장의 변화
3.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한국시
4. 포노사피엔스의 시적 창조

## 1. 스마트폰, 포노사피엔스, 변화들

포노사피엔스는 2007년 아이폰이 출시된 이래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고 정보 전달이 빨라져 정보 격차가 점차 해소되는 등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사람이 늘어나며 등장한 용어”로서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15년 3월 사용한 용어이다.<sup>118)</sup> 이 용어에는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여기며 삶의 방식을 재정의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sup>119)</sup> 4차 산업혁명이나 공유경제와 같이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는 새로운 흐름은 실제로 이 스마트폰과도 연관이 깊다.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전화기이면서 동시에 인터넷 접속 컴퓨터이고, 대중매체와 연결되는 미디어이다. 인터넷이나 미디어 콘텐츠는 원래 현대적인 삶 속에서는 언제나 우리들 주변에 있지만 스마트폰은 그것을 24시간 상시적으로 손안에 두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보급은 실제로 상품의 소비 시장과 미디어 지형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언급되는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드론, 가상현실, 3D프린터 등의 디지털 기술’도 따지고 보면 스마트폰과 함께 초연결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주로 경제적 산업적 가치에 주목하며 스마트폰 문명을 가져올 시장의 변화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최재봉은 이미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포노사피엔스의 시장과 비즈니스 전략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sup>120)</sup>

스마트폰은 모든 기존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와 다른 보조 장치들의 기능을 포괄하는 멀티미디어 매체이며, 무엇보다 휴대성과 이동성을 기반으로 이 기술과의 상시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 점이 스마트폰을 동종의 매체나 기기들을 뛰어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준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이고, 전 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sup>121)</sup> 실제로 스마트폰의 사용이 보편화되

118) 최재봉, 『포노 사피엔스』, 쌤앤파커스, 2019, 25쪽.

119) 위의 책, 113쪽.

120) 위의 책, 12쪽.

121) Kyle Taylor and Laura Silver, “Smartphone Ownership Is Growing Rapidly Around the World, but Not Always Equally-In emerging economies, technology use still much more common among

면서 많은 일상적 변화들이 이루어졌다. 당장에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 속에서 풍경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으며, 뉴스검색이나 일정관리, SNS 등 개인의 일상 속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스마트폰을 통한 삶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일상 속에서 스마트폰의 이용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동종의 기능을 가진 다른 매체는 뒤로 밀려나게 되었다.<sup>122)</sup> 미디어 지형에서는 종이 신문에 기반을 둔 언론의 힘이 스마트폰에 기반한 유튜브나 SNS기업보다 점유율과 영향력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복잡해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능하게 만들기도 하고, 시민들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컴퓨터 인터넷만을 기반으로 하는 활성화되기 어려운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후원도 스마트폰 문명 안에서 새로운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주었다. 다만 전국민 95%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신기술을 등에 업은 신세대들이 기성세대와 빛나는 다양한 갈등은 어찌 보면 새롭게 가능해진 소통의 부산물로서 떠오르게 되었다. 지영래는 라이프스타일과 세계관이 너무나 다른 세대와 강의실에서 만나는 일의 어려움을 통해서 기존의 지식 체계와 지식 습득의 경험들이 갑자기 전승의 어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체험을 세대분석을 통해서 보여주었다.<sup>123)</sup> 그런가 하면 김민옥은 한걸음 더 나아가 웹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sup>124)</sup> 이는 이미 스마트폰과 한 몸이 되어 버린 세대의 교육현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육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와 통한다. 더욱 부정적인 진단과 경고를 짚는 견해도 참조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한 몸이 된다는 표현에서 보듯 스마트폰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중독현상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의존성에서 오는 스마트치매나, 인간관계의 피상성 등을 포노사피엔스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라고 보는 진단이 있다.<sup>125)</sup>

## 2. 포노사피엔스 시대와 문학장의 변화

최재봉의 말처럼 다가오는 혁신적인 스마트폰 문명이 위기이자 기회라면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학도 새로운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언뜻 보기에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현상들이 공존하곤 한다. 가령 출판시장에서 불황과 문학의 위기 논의에 맞서는 인문학 열풍이나 시의 부활이라고 잠시 언급된 시집의 구매열풍 같은 것들이 그러하다. 이러한 모순된 두 사실의 공존과 경합을 볼 때에는 더욱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며, 같은 맥락에서 스마트폰에 기반한 문명은 시나 문학 자체의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에 맞는 문학의 변화를

young people and the well-educated”, *Pew-Research Center Global Technology Use 2018*, February 2019, p.3.

122) 실제로 스마트폰 이용이 기존의 매체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많은 부분 동일한 기능을 스마트폰이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선호하는 기능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기능, 게임, 신문, TV, 라디오의 순으로 그 비중이 높았다. 김형지·김정환·정세훈, 「스마트폰 이용이 기존 미디어 이용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경제와 문화』 11(1), SBS, 2013, 99-100쪽.

123) 지영래, 「Z세대, 포노 사피엔스, 그리고 프랑스어문학 교육」, 『2020년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20.

124) 김민옥, 「웹 미디어 콘텐츠를 호러용한 글쓰기 교육 방안」, 『한국문학논총』제82집, 2019, 485-521쪽.

125) 김의연,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phon sapiens)와 스마트폰 중독」, 『2020 제74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심리학회, 2020, 88쪽.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다. 조영일은 일상 공간에서 책의 자리를 스마트폰이 대체했다고 고백하면서 당대의 문학이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요소들 쌍방향성이나 미결정적인 자기 체험의 전유 같은 게임적인 요소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sup>126)</sup> 스마트폰은 기술적으로도 컴퓨터와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인터넷에 기반한 전송 및 출력장치 등의 복합기능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스마트폰에 탑재된 카메라와 디스플레이의 기술이 더 발달하면서 스틸 사진을 찍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고해상도의 동영상 촬영과 편집 기능을 갖추게 됨에 따라 사진과 동영상 촬영에 대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게 되었다. 즈음하여 문학장에서 나타난 ‘디카시’는 반드시 스마트폰 때문에 나타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폰의 보급이 이 하이브리드 장르의 확산에 힘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연구자 개인의 취향이라는 전제 하에 이야기하자면, 디카시가 현대시에 나타난 주류의 신종 장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시 장르의 보편화와 대중화에서 중요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스마트폰에 안착한 시의 한 케이스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설 장르는 근대문학 장르 중에서도 가장 혼종적인 장르면서 인접 장르를 흡수하고 녹여내는 장르답게 스마트폰 문화 속에서도 가장 빠른 변화와 적응을 보여주고 있는 장르이다. 우선 스마트폰을 플랫폼을 하는 소설을 살펴본 최재용의 논의가 눈에 띈다. 포노사피엔스의 능동적인 진화를 보여주는 국가로 중국의 변화를 주목했던 최재용의 논의처럼, 스마트폰의 보급 이후 중국에서는 실제로 소설의 소비가 종이책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폭적인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최재용은 중국의 사례가 인터넷 문학,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 문학의 가장 성공적이며 특징적인 사례라고 꼽았다.<sup>127)</sup> 스마트폰 액정에 맞춰진 짧은 분량, 단순하고 반복적인 구조, 글자수의 제한, 정격적인 연재성까지 스마트폰 소설의 형식이 실험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결국 그 크기의 제한이 가져오는 ‘중복, 상투화, 공식화’라는 형식적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는 창발성을 통한 극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직은 가능성으로만 접쳐지는 이 인터넷문학과 스마트폰 문학의 방향을 타진해 본 이찬욱의 글도 참조할 수 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이 반드시 문학에 국한된 변화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상술한 후에,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문학에 태동하는 변화들을 웹소설이나 전자책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검토하였다.<sup>128)</sup>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문학장의 변화를 검토할 때 가장 눈에 띄는 논의는 김소륜의 논의이다. 김소륜의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시를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해주는 것 같다. 김소륜은 2000년대 소설들의 형식적 분석을 통해 2000년대 작가들의 창작 방식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구성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언뜻 보기에 2000년대 작가들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소설을 쓴다는 말은 어폐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거대담론이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된 미시사나 편사, 약사와 같은 작은 단위의 지식은 2000년대를 관통한 주류적인 문화였다고 생각한다. 정보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실제적인 삶의 외피로 들어오게 된 여러 지식 정보와 알고리즘들은 독자에게 빠르게 직진하는 내러티브 전략이었음에 틀림이 없다.<sup>129)</sup> 김소륜의 말처럼 2000년대 이후의 작가들의 작품 속에는

126) 조영일, 「스마트폰과 문학」, 『황해문화』70, 새얼문화재단, 2011, 475-485쪽.

127) 최재용, 「스마트폰 시대 인터넷 문학의 변화-한국과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학보』제89집, 한국중국학회, 2019, 194쪽.

128) 이찬욱,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학의 변화」, 『다문화콘텐츠연구』25,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7, 137-156쪽.

129) 2000년대의 작가들이 2000년대 이전 작가들처럼 공동체의 경험(“집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기억”을 생산해냈다면, “2000년대 발표된 소설들은 집단의 경험이 소멸한 시대 속에서



인공지능이 끌어모으는 지식의 체계처럼 지식과 정보의 소스 자체를 하나의 재현의 도구로 삼는 형식(주석의 미학)이나 새로운 플랫폼이나 미디어 속으로 뛰어드는 ‘초단편소설’과 같은 시도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노사피엔스의 시대에 문학장에서 나타난 변화를 갈무리할 때 언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기술의 보급이 가져온 ‘민주화’라는 변화이다. 스마트폰의 SNS의 영향력이 아프리카의 오랜 독재가 무너지는 제스민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듯이 실제로 2009년 이래 스마트폰 보편화와 SNS를 통한 자율적이고 활발한 의사소통과 집단지성은 지금까지는 관습의 아래에 묻혀 있던 문제들을 폭로하기에 이르렀다. #문단내 성폭행, 문단내 성추행과 같은 폭로와 고발은 문학계 역시 우리 사회의 미투와 무관하기는커녕 더욱 낮부끄러운 문제들을 안고 있음을 각성시켰다. 포노사피엔스는 우리 사회가 미투와 함께 젠더 질서의 재편과 새로운 페미니즘의 불길을 당기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넓게 보아 새롭게 제기된 페미니즘은 포노사피엔스의 민주화라는 맥락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 영향과 함께 부정적으로 검토되는 가짜 뉴스나, 확증편향 같은 문제도 있으나 스마트폰은 종래의 사람들을 가로 막고 있던 공식적인 표현의 출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가속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도 진행형인 이 사회적 의제는 젠더 평등, 젠더 질서 재편의 과정이 얼마나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분노의 범감정으로 목격하게 하였다. 젠더 질서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이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고 동시에 그러한 성적 이해의 재생산시스템의 문제인 데 반하여 실제로는 이 형사적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림으로써 현행의 사법제도와 시민들의 범 감정 사이의 큰 견해차를 노출하였다. 심지어 마땅한 개선을 이루지 못한 젠더 평등의 욕구는 오히려 성간 혐오로 번져가는 양상이다. 그만큼 침해하고 단방향이 없는 복잡한 과제이기도 하다. (사실 글쓰기라는 문학적 화행을 염두에 둔다면 문학장에서 더욱 민감한 문제는 미투 같은 성폭력 문제보다 오히려 ‘미소지니’ 같은 성혐오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젠더 갈등이 불러온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문학과 문학사 강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젠더 갈등에 눈 뜬 새로운 세대들이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작품에 대한 거부감을 피력함으로써 정전의 선정과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혹은 전통적인 정전의 교수방법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 당장의 교육의 현장에서 시급하고도 어려운 과제

---

기억을 공유한다는 아이러니함을 특징으로 갖는다. 이것이 바로 거대서사를 구축할 ‘혁명적인 경험’이 부재하는 2000년대 작가들의 글쓰기가 갖는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경험이 부재하는 그들은 보다 철저한 자료 수집을 통해, 혹은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는 수많은 사건들을 자신의 작품 속에 배치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한다.

소설사, 내지는 문화사적 흐름 속에서 소설이 다루고 만나는 욕망과 감정이 거대서사보다는 보다 개인적인 영역으로 선회하였고, 이런 것들을 당대의 하층 문화가 거대서사에 대한 염증으로부터 일종의 편사나 약사, 미시사적인 관심으로 선회하였으며, 시기적으로도 정보사회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라는 자료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가시화한 것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편사나 약사, 그리고 미시사는 역사와 이종교배되고 있는 문학의 고유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영역이었지만, 과거의 입담 좋은 작가들을 통해서 맛볼 수 있었던 이런 편사와 약사는 오늘날 보다 전문적인 지식영역에 대한 호기심을 끌어담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억하기로는 이창준의 ‘흉터’같은 작품의 발상은 2000년대 이후 박민규의 ‘냉장고’나 김중혁의 ‘지도’의 원리나 제작배경 등이 보다 흥미진진한 소설적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던 것이다. 지금도 텔레비전을 통한 대중문화 속에서는 ‘알쓸신잡’을 비롯한 지식 혹은 지식의 경로들이 이른바 에듀테인먼트의 경계를 허물고 있으며, 팟캐스트의 무수한 지식전수 방송들도 같은 구도 위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중이다. 김소륜, 「AI(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 속 한국 문학, ‘창조’하는 작가에서 ‘배치’하는 작가로의 이행」, 『현대소설연구』제6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5-35쪽.

를 안겨주었다.<sup>130)</sup>

정리해 보자. 인터넷과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가져다 준 최대의 혜택은 무엇보다 강력한 정보 전달력으로서, 사회 구성원들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정보를 받아들일도록 그 문이 열려 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된 정보사회로의 이행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의 아카이빙은 실제로 정보 접근 자체가 진리 접근성을 의미했던 시대의 정보 독점을 훨씬 더 넓고 빠르게 민주화했다. 이렇게 민주화된 정보사회는 새로운 정보로 각성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세련되고 절제된 정확한 혁명을 실현해내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렇듯 정보사회의 정보 민주화는 무엇보다 한국사회와 문학장에 민주화의 바람을 불어넣었는데, 무엇보다 한국의 문학계에 두 가지 침탈적 식민성/ 혹은 식민주의적 침략성을 고발하게 하였다. 그 하나가 성적 착취였다면(문단내 성추문) 다른 하나가 표절이었던 것이다.(표절의 경우는 노예적 추앙으로부터 비롯된 필사에서부터, 심사나 편집권을 이용한 권력적 착취, 그리고 자기 확대를 위한 자기 표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이 캄캄한 두 재난이 문단에 즉각적으로 가져온 변화는 송년회 같은 문단의 모임이 사라지도록 할 만큼의 위축과 자성이었고, 근본적으로 한국의 문학이 바로 자신들의 독자(소비자)들에게 불신임 선고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 3.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한국시

사실 근대문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제기의 방식은(육망의 보편화를 통한 인간 계몽과 그로부터 불평등의 발명과 투쟁 그리고 파국)은 오늘날처럼 사회정치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자본에 의한 인간의 전매와 부분 매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에는 문학과 인문학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은 것이겠으나 한국의 문학은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감당하기에는 그 영향력이 심각하게 적은 소수집단의 것으로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더욱 아이러니컬한 것은 한국의 제도권 문단이 이렇게 독자 집단으로부터 외면받는 동안에도 자생적으로 문학(시/소설)을 소비하고, 생산하는 모임이 꾸준히 늘어났다는 점이다. 교양을 위한 인문학 열풍과 책 소비는 백화점 강좌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동호회 활동으로 자생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한국의 소설이나 시가 이 즈음 K-문학으로 세계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했지만 정작 이러한 소비 붐에 비해 막상 문학관 내부의 새로운 의제 발굴이나 생산은 그 활기가 다소 침체되어 있다. 비유하자면 이는 이미 구축된 완제품의 판로 개척이지 신제품의 개발이 아닌 것이다.

거칠게 갈무리하자면,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한국시는 마치 머리가 둘 달린 삼쌍둥이 뱀처럼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두 개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다. 한쪽에서는 일천하지만 자생적인 문학 공간이 마련되었으며, 다른 쪽에서는 소수집단의 언어로 전략한 요령부득의 시가 마주 놓이게 되었다. 이 자생적인 시의 예로 우선 제페토의 시집 『그 쇠물 쓰지 마라』(수오서재,2016)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제페토는 필명인데, 40대의 평범한 직장인

130) 폭력과 혐오에 맞서는 페미니즘이 대학에 요청한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는 『서정시학』 2018년 가을호의 기획특집 원고를 참고할 만하다. 김문주, 「범주 폭력과 혐오의 시대, 균열의 발화로서의 시」, 『서정시학』 2018년 가을호, 4-21쪽; 이경수, 「‘위드 유’와 자기 갱신의 윤리」, 『서정시학』 2018년 가을호, 22-36쪽.

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채 시집을 출간한 ‘얼굴 없는 작가’이다.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서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면서 유명세를 얻기 시작하였다. 그는 독특하게도 댓글란에 시를 썼던 것이다. 사회 이슈를 다룬 기사를 비롯해 사소한 단신, 날씨 관련 뉴스에 이르기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시로 화답했다.<sup>131)</sup> 후일 시집의 표제가 된 시 「그 섯물 쓰지 마라」는 2010년 당진 용광로 사고를 다룬 미디어다음의 기사에 붙여진 시였다. 아래는 그 기사와 댓글시이다.

### 당진서 20대 철강업체 직원 용광로에 빠져 숨져

7일 새벽 2시께 충남 당진군 석문면 한 철강업체에서 이 회사 노동자 김모(29) 씨가 작업 도중 5m 높이의 용광로 속에 빠져 숨졌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김씨는 용광로에 고철을 넣어 섯물에 녹이는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더 추락했다.

용광로에는 섭씨 1,600도가 넘는 섯물이 담겨 있어 김씨의 시신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09.07.

광염에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섯물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 말 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섯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 적 얼굴 흠으로 빚고  
섯물 부어 빗물에 식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앞에 세워주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자, 하계.

-「그 섯물 쓰지 마라」<sup>132)</sup>

당진의 철강업체에서 작업 중이던 스물아홉 살의 노동자가 발을 헛디더 용광로로 빠져 숨

131) “제페토”,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A0%9C%ED%8E%98%ED%86%A0#s-5>, 20201.1.4.

132) 제페토, 「그 섯물 쓰지 마라」, 『그 섯물 쓰지 마라』, 수오서재, 2016, 24-25쪽.

지는 사건 기사에 대해, 제페토는 청년이 녹아든 쫓물로 다른 철강 제품을 만들지 말고, 청년의 살았을 적 모습을 제작해서 회사 앞에 세워달라고 쓴다. 이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서술이나 심리적인 반응은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말을 가리겠지만, 일하다 죽은 사람이 빠진 그 쫓물을 사용하지 마라는 제목의 명령에는 비극성에 깊게 공감하는 사람의 원한이 잘 드러난다. 한 번만 읽으면 입에 감길 만큼 예술적으로 뛰어나다거나, 시적으로 언어의 경계가 절묘하거나 한 것이 아니지만, 독특하게도 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형식의 감정을 그 나름의 절제와 거리감을 가지고 표현한 것은 일반적으로 아무말대잔치가 열리는 댓글창에서는 보기 귀한 사례였던 것이다. 120여 편의 시가 같은 닉네임으로 공개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제페토라는 ‘댓글시인’을 인식하게 된 것이었다.

제페토의 시집을 일독하면서 필자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시를 향유하고 창작하고 싶어 한다는 보편적인 열망과 욕구를 읽을 수 있었다. 또한 시가 보다 다양한 생태계 속에서 창작과 향유의 재생산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후자는 바로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한국 시단(시단이 외면해서라기보다는 독자와 시단이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의 쓸쓸한 현주소를 생각하게 했다. 난해한 시들이라면 전문적인 독자집단인 비평가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고, 더 단순한 것들은 단순한 대로 직접 소통이 가능할 것이지만 더욱 넓고 다양한 시와 시인들이 시를 갈구하는 독서대중과 만날 수 있는 경로가 우리 사회에는 많지 않다. 시의 생산과 유통이 더욱 확대되는 한편 다원화되어서 제이 제삼의 제페토들을 헤엄치는 시들의 대륙붕도 있고, 더 깊은 곳에서는 심해어의 시도 있고 하면 좋을 것이다. 이미 2009년에 진은영 시인의 논의를 통해 촉발된 의제이므로 반복할 필요는 없겠지만, 카프 이후 줄곧 한국의 시는 사회적 책무(써야 하는 시)와 예술적 자유분방함(쓰고 싶은 시) 사이에서 넓게 방황해 왔다. 책임의 시도 시고, 분방함의 시도 시이지만 편벽되고 각박한 주장에만 시를 고정시키려고 해서 안 될 것이다. 그 넓은 방향을 경직되고 편벽된 목소리와 싸우는 다양한 시의 목소리들로 채울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평범한 시민의 시적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시단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문학의 여전한 공신력 붕괴는 소비 저하로, 잡지들의 폐간 / 종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길게 보아 이걸 붕괴가 아니라 재편으로 볼 수 있다면 좋겠다. 그렇다면 다음의 이야기를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포노사피엔스적인 삶의 형식을 지닌 시가 탄생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포노 사피엔스적인 삶을 사는 세대의 자기 서사나 경험의 편린들이 시 안으로 공급되고 있는 중이다. 공교롭게도 최근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에는 등단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인들이 심심찮게 뉴스의 주인공이 되고 있으며, 단순히 등단의 절차 없이 시집 발간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제도권 문단의 주요한 문학상을 수상하여 문단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였다.<sup>133)</sup> 김수영이 「문단추천제 폐지론」을 들고 나온 것이 1967년이지만, 한국에서 제도권 작가가 되는 방법은 보통 신춘문예와 잡지의 신인상을 통한 등단, 문학상이나 개인 시집 등의 출판물을 통한 등단이 그 주요한 경로이다.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로서 주목되기도 했고, 그만큼 제도의 특징과 한계에 대한 비판도 잇따라왔다. 신인들의 작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는 한편 언어의 개인화에 충분한 숙련이 가해졌는지를 가늠하는 것이 대체적인 심사의 기준이 된다면 그만큼의 경험과 연륜 공신력을 가진 작가들이 보통 심사 참여하게 된다. 당선작으로 한 편을 뽑는 신춘문예의 경우는 작품의 수준이나 작품 간

133) 「사실은 이례적이지 않은 비등단 시인 이기리의 김수영 문학상 수상」, 『뉴스페이퍼』, 2020.11.23.,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691>, 2021.1.4.

의 편차와 기복, 그리고 잊을만하면 나오는 표절 시비가 이 제도의 오랜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래서 뛰어난 시 한 편을 통해 등단하였지만 등단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시인들이 부지기수이고 보니, 더욱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신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투고원고의 수를 늘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많은 가수들이 옥타브를 올리는 방법으로 관객의 호응을 사려고 하듯이 한편을 뽑는 경합의 원칙과 높은 투고율은 결국 개성적인 모험의 시보다는 안정적인 깊이의 시를 기본 덕목으로 고려하게 되는 심리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선자들의 고심은 더욱 뚜렷한 개성과 가능성을 목표치로 두되 향후의 활동 과정에서 잘 ‘버틸 수 있는’ 내구력을 추가적으로 살피는 것이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발달되고 편리해진 출판기술과 함께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표현의 증가가 시집 단위의 시를 생산하는 리듬에 영향을 주었고, 그에 따라 제도권 등단 없이 이미 뚜렷하게 자기 세계를 갖춘 야심찬 신예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물론 이는 등단 제도로 상징되는 제도권 문학에 대한 일정한 거리감과 저항을 포함하여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최근을 중심으로 보면, 포노사피엔스의 시대에 제도권 등단의 시스템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개성적인 시집의 출간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린 시인은 조해주, 서호준, 김누누, 이기리 등의 시인이 눈에 띈다.<sup>134)</sup> 여기서는 편의상 서로 대비되는 두 시인의 시만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름 없이 불리는 그들(밑줄:인용자)이 있었다

장난은 장난스러워지기 전에도

장난이었고

모래성은 부스러지기 전부터

부스러지는 모래였다

나누기 전에도

케이크였고

젖기 전부터

우산이었고

구부러지기 전에도

트랙이었으며

비워지기 전에도

컵이었고

구겨지기 전에도

종이였고

가라앉기 전에도

침대였으며

나 몰래

일기가 적어놓은 일기를

모른 척해왔고

환대 이전에도 손님이 있었고

목소리는 나 없이도

134) 조해주, 『우리 다른 이야기 하자』, 아침달, 2019; 서호준, 『소규모 팬클럽』, 파란, 2020; 김누누, 『착각물』, 파란, 2020; 이기리, 『그 웃음을 나도 좋아해』, 민음사, 2020.

가볍게 복도를 가로질러 갔다  
빨래 이전에도  
빨래는 돌아가고  
나는 한얀 금이 그어진 곳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예감」 전문135)

예감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다. 그것은 잠시 후의 어떤 미래를 지금 여기로 끌어온다. 예감은 감정이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자신과 만상에 명철하고, 이해와 행위에 있어서 빈틈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필부들의 삶에서는 감정과 생각 사이에는 언제나 일종의 시차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감정은 언제나 사태보다 먼저 오거나 나중에 온다. 먼저 오면 예감이고, 나중에 오면 후회이다. 시나 문학이 인간의 감정을 상대하는 이상 인간의 감정은 보통 예감이나 후회의 형식을 띠는 일이 가장 잦다. 여하튼 어떤 예감이라는 것은 불행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자기 행위를 촉구하는 일종의 암시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비상한 느낌은 자신과 주변을 보다 찬찬히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다. 미리 당겨온 어떤 감정이 예견하는 사태나 변화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기 위해서는 잔뜩 버려진 시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버려진 시선으로 들여다 본 세계는 참으로 여여하다. 만상은 사태에 직면하기 전에도 만상이었고 이후에도 만상이고 존재지만 더욱 특별한 무언가가 되기 위한 안간힘 같은 것들은 이렇게 버려진 시선이 아니면 포착하지 못한다. 어떤 예감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심드렁한 사태들이 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왜냐하면 만상을 저토록 골똘히 바라보도록 하는 힘은 사실 관조자의 자기 응시의 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는 그냥 심심한 말장난이 아니다. 별 대수롭지 않은 일상과 사물들을 저 느낌과 생각의 구도 안으로 가져와서 훼손하지 않은 채 심드렁하게 브리콜라주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그 사물에 눈을 주고 있는 사람의 내면적 태도를 문면으로 옮긴다. 유연하고 섬세하고 정확하게. 그래서 이 시인의 시를 읽을 때는 대수롭지도 않은 사물을 향하는 시인의 아이러니컬한 시선을 따라가는 참신함과 재미가 있다.

선서하듯이  
한쪽 손을 든다  
그렇게 하면 물 한 잔이 온다

두 잔이 필요하더라도  
손은 한 번만 든다  
세 잔  
네 잔이 필요하더라도

-「주문」 전문136)

다른 개성적인 작품들이 좋지만, 언제나 눈여겨 보게 되는 것은 다음 세대가 무미건조한

135) 조해주, 『우리 다른 이야기 하자』

136) 조해주, 『우리 다른 이야기 하자』

세계에 얼마나 깊은 심미안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뭣이 없는 세대라고도 하고, Z세대라고도 포노사피엔스라고도 하지만, 현실 속에서 그들에게는 차원이 다른 유예의 시간이 놓여 있다. 그들은 언제나 그들 자신이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들 자신이 되는 것을 유예당해야 하는 세대이다. 그런 면에서 위의 작품의 1연은 물을 부탁하기 위해서 종업원을 부르는 모션이 묘사되어 있다. 굳더더기 없이 손을 들어서 물을 요청하는 것을 ‘선서’의 자세와 유비시켰다. 본래 상상력이란 잠재성의 위협이 그 본질로서 존재에 다른 본질을 입히는 사고력의 힘이 아닌가. 서로 다른 두 정황의 결합이 유머러스한 풍경을 만든다. 일상적인 장면인데 상상력이 끼어들면서 미세하게 다른 장면으로 균열된다. 주문에서 선서로의 이행. 그리고 주문과 선서 사이의 이질성을 보충하는 유머. 굳이 애써 선서와 주문을 결합하면 “나, 여기에는 물이 한 잔 필요합니다.” 같은 선서가 가정되는데, 그래서 더욱 아이러니컬해진다. 아무것도 아닌 선서, 필요 이상을 넘어서 있는 진지한 요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의 온갖 난처함이 환유적으로 펼쳐온다. 다음 세대들의 존재영토이다. 정확하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자리. 따라서 2연의 손은 한번만 든다는 말은 오묘하게 읽힌다. 요령 같기도 하고, 절제나 기을 같기도 하고, 요청을 하는 쪽과 그 요청을 받아야 하는 쪽의 피로가 영긴 묘한 각축 같기도 하다.

다음은 김누누의 시이다.

여러분 저는 똥을 싸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댕처럼 말이죠  
만일 있잖습니까 만일. 우리가 통 속에 든 뇌라면? 어떤 미친 과학자가 통 속에 뇌를 넣어 놓고 계속 자극을 주는 것이라면? 그게 우리 삶이라면?

아아 이런 노래가 생각 나네요 아주 좋은 노래죠  
뇌 속에 뇌가 너무도 많아

준비해 온 회심의 농담이 먹히지 않자 그는 직감했다  
망했다

등이 뜨거워지고 이마에 땀이 맺혔다  
왜 이렇게 조명이 뜨겁지?  
코미디언은 자꾸 의아하다

객석 구석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는 사람  
코미디언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 잘 보인다

코미디언은 모든 광경을 눈으로보는 사람이다  
관객 몇몇이 그의 코미디에 작게 웃었지만 코미디언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이 모든 무대는 실시간으로 촬영되어 스트리밍 되고 있다

시청자는 한 명이다  
코미디언은 사명감을 갖고 단 한 명의 시청자를 위한 코미디를 한다  
코미디언이 다음에 시도할 개그는 실패할 개그이다

준비해 온 개그를 모두 소진한 코미디언은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  
무대를 내려오며 코미디언은 생각한다  
‘다 때려치우고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나 지어야지’

코미디언의 생각을 들은 관객들이 자지러지게 웃는다  
배를 움켜쥐고  
나의 유령이 말한다

-「지루해하는 관객을 마주한 코미디언의 불안」 전문<sup>137)</sup>

김누누의 시는 시집 전체의 서사가 연결되어 있다. 우선 각각의 이야기가 철저하게 완결을 피해가는 구조이기에 모든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하나의 서사를 완성시키려는 기획은 이야기의 완결에 있지 않다. 이야기성에 있다. 그의 시집 속 화자는 마치 천일야화의 세헤라자드처럼 강박적으로 이야기한다. 순간 순간 그로테스크와 풍자와 블랙코메디와 예술가적 광기와 거의 완전한 무의미와 허무가 뒤섞여 있다. 개별적인 서사가 마무리 되지 않는 이유는 김누누의 서사가 이야기의 완결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서사 본능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자를 보여주려는 알레고리적인 충동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만 식인(?)풀을 연구하는 연구소나 숲을 연구하러 갔다가 나무에 깔려죽는 박사나, 허구와 실재를 구분하지 못하고 칭찬을 남발하는 합평회의 교수는 독자에게 이거 어디서 봤던 장면인데? 하고 느끼게 만들기 위한 서사이지 그래서 주인공의 시점과 사건과 행동의 결말을 통해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서사가 아니다. 그래서 서사는 많지만 읽고 난 느낌은 보르헤스의 이야기를 더 기괴하게 비틀고 단순화시키고 짜부라트린 시적 파편 같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그의 시가 줄곧 놀라키기 위해 야단을 떠는 것은 아니다. 예상 가능하고 빠른 서사와 진술을 매번 비껴가지만, 자꾸만 생의 어떤 장면을 즉각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대화와 모션들을 가지고 들어온다. (가령 시집의 인물인 ‘상목’이 군에 가기 전날밤 가진 밤샘 술자리에는 입영 전의 그 막막한 불안이 전별회 술자리의 처연함과 기묘하게 섞인다.) 이 인생의 무대 위에서는 그냥 빈둥거리는 존재는 없다. 빈둥거리는 존재가 있다면 빈둥거리기 위해서 빈둥거리고 있다. 위의 작품에서 코미디언은 즉석에서 관객을 웃기고 그야말로 웃음의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필살기를 준비해서 무대 위로 올라가지만, 반응은 시원치 않다. 직업이 웃겨야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무대는 지옥이나 다름없다. 관객의 반응을 살피는 코미디언은 관객이 휴대폰을 만지는 행위를 자신의 연기의 실패로 간주하고 있기에 등을 비추는 조명조차 뜨겁다고 느낀다. 그래서 정작 조그맣게 웃는 관객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의 시선은 객석을 넘어서 실시간 스트리밍에 접속해 있는 한 명의 관객에 집중하지만 이미 억눌린 마음은 기탄없이 웃기는 데 실패한다. (코미디언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영화에서 꼭 등장하는 이 모티프처럼) 이 코미디는 어이없게도 예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포기하고 갑자기 코미디언이 싸지르는 호통과 히스테리, 혹은 절망의 절규가 오히려 연출된 것인 양 관객을 웃기게 만드는 사태로 마무리된다.<sup>138)</sup>

조해주의 것은 기존의 시와 많이 이질적인 것은 아니다. 구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

137) 김누누, 『착각물』

138) 안 웃기는 코미디언의 모티프는 짐 캐리가 주연한 <맨 온더 문>이나 최근의 호아킨 피닉스가 분한 <조커> 속에서 등장했다.



는 세대적인 감성과 개성적인 언어를 통해서 자기 세계를 열어가는 시이다. 김누누의 것은 그로테스크와 아이러니가 육박한 시구절 뿐만 아니라 작품 전체의 구성을 염두에 두고 씌어진 시집의 구성이 흥미진진하다. 하나의 주제를 위하여 결국하게 짜여진 서사는 아니되, 읽는 구절이 주는 건조한 유희미가 있고, 다음에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으로 계속 시집을 넘길 수밖에 없게 하는 시집이다. 1부에 등장했던 인물과 서사가 뜬금없이 3부의 인물이나 서사와 연결되는 것도 이들 세대가 즐겨 소비하는 하위 문화의 콘텐츠들에서 학습된 장치들일 것임에 틀림없다. 직설적인 감정어들을 남발하면서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수렴하면서 아이러니컬한 긴장기를 만드는 재능도 이들 세대의 삶의 체험에서 온 것이라고 짐작해 본다. 서로 전혀 다른 성격이지만 하나의 뚜렷하고 완결된 시집을 가지고 기존의 등단 제도와 다른 방법으로 문단에 등장한 세대이다. 그만큼 이들 세대는 ‘자기’에 대한 깊은 관심과 뚜렷한 인식이 있다.

#### 4. 포노사피엔스의 시적 창조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술 그 자체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으로 읽던 것을 스마트폰 액정화면을 통해서 본달지, 원고지 위에서 쓰던 행위를 스마트폰의 천지인 키패드를 이용해서 입력하고 메모장에 저장한달지 하는 것은 쓰고 발표하는 일을 둘러싼 여러 환경이 변화할 수 있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작고하신 후에 책으로 출간된 고 황현산 선생의 트위터 글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난다)나 시작법이나 강의에서의 여러 몽상, 시작 메모들을 꾸준히 SNS에 쓰고 이를 책으로 묶어낸 이영광 시인의 책은 『왜냐하면 식 우리를 죽여주니까』(이불, 2020) 아마도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소통 전략에 맞춰진 글쓰기의 형태이면서 출간되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 과거의 작가들이 원고지에 쓰고 이를 타자나 컴퓨터로 입력하다가 나중에는 곧바로 컴퓨터나 타자를 이용해서 글을 쓰게 되었듯이, 그리고 그러한 변호의 와중에 은연중에 글쓰기 안으로 습합되는 관습이나 정보나 메시지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듯 스마트폰이 시가 유통되는 중요한 출판 플랫폼이 되는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스마트폰의 멀티미디어 기능에 맞춰 오디오북과 전자책이 함께 출시되는 일이 머지않은 미래의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스마트폰에 정착한 전자책의 형태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감정의 형식들이 꽃을 피우게 되는 날도 올 것이다. 실제로 포노사피엔스의 시대에 시들은 그 이전 시대의 시들보다 시간의 단위나 사건의 단위가 미시화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행간과 글자는 더욱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산문화나 장형화 같은 형태가 보다 진화된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책이나 가상공간이 집필 공간으로서 원고지나 종이에 비해 갖는 가장 큰 잇점은 그 크기의 무한함이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저서

- 마살 맥루헌, 『미디어의 이해』, 삼성출판사, 1982.  
윌터 J. 옹, 『구술문화와 문자 문화』, 이기우·임명진 옮김, 문예출판사, 2006.  
최재봉, 『포노사피엔스』, 쌤앤파커스, 2019.

### 논문

- 김경완, 「다중 매체 시대의 문학과 언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어와 문화』제26집,  
김민욱, 「웹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 방안」, 『한국문학논총』82, 한국문학회,  
2019.  
김선희, 「디지털 인류 포노사피엔스와 생각하는 인류 호모 사피엔스 사이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니체적 분석-플라톤의 슈퍼-도펠갱어로서 인공지능의 난점」, 『니체연구』 제38  
집, 2020.  
김소륜, 「AI(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 속 한국 문학, ‘창조’ 하는 작가에서 ‘배치’ 하는 작가로  
의 이행」, 『현대소설연구』제6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5-35쪽.  
김의연, 「신인류 포노사피엔스와 스마트폰 중독」, 『한국심리학회 2020년 정기학술대회 자료  
집』, 2020, 88쪽.  
박준상, 「인터넷 문화와 타인과의 관계」, 『비평문학』75, 한국비평문학회, 2020.  
이찬욱,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학의 변화」, 『다문화콘텐츠연구』25, 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  
구원, 2017.  
임정연, 「미니멀리즘 서사의 가능성과 의미」, 『현대소설연구』73, 한국현대소설학회, 2019.  
조영일, 「스마트폰과 문학」, 『황해문화』70, 새얼문화재단, 2011.  
지영래, 「Z세대, 포노 사피엔스, 그리고 프랑스어문학교육」, 『2020년 한국 프랑스어문학회  
정기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프랑스어문학회, 2020.  
최재용, 「스마트폰 시대 인터넷 문학의 변화-한국과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학보』89  
권, 2019.  
최종환, 「글쓰기로서 시쓰기 모형의 제안-a-b어휘 바꾸기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한국문  
학교육학회, 2014.



##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한국시>에 대한 토론문

노 춘 기(강남대)

이현승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발표는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문화적 환경과 경험의 변화에 따른 문학장의 변화를 검토하고, 그 흐름의 핵심적 장면으로서 ‘포노사피엔스 세대’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시 텍스트의 존재 방식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정보와 경험의 중심적 매개로 자리잡게 되면서 일상적 글쓰기와 텍스트 향유의 양식이 스마트폰 경험에 적합하도록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한 독자만큼 작가들의 창작 방식 또한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선생님의 인식에 저도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SNS를 매개로 미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문학공간의 권위와 순수성이 크게 의심받고, 독자 대중의 신뢰가 붕괴되다시피 했던 최근의 불행한 흐름이 새로운 미디어의 성장과, 그 중심에서 자라난 새로운 세대의 전면화와 관련 되어 있다는 지적 또한 매우 타당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선생님의 논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바를 질문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발표문 3장에서 선생님은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한국시가 한쪽에서는 “소수집단의 언어로 전락한 요령부득의 시”와 “일천하지만 자생적인 문학공간”에서 등장한 시가 서로 마주놓여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제페토, 조해주, 김누누의 작품들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은 이들의 등장과 수용 과정 그 자체를 포노사피엔스 세대의 한 특성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3장 전체에서 세밀하게 분석의 과정을 거치긴 하였지만, 이 세대들의 주목할만한 특성을 한 두가지의 키워드나 술어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을지 이해를 더 넓힐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포노사피엔스적 특성이 특수한 소수에만 해당하거나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시대 혹은 세대가 공유하는 상당히 근원적인 변화의 계기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소위 “요령부득의 시”를 생산하고 전문가적 기호를 통해서 소통하는 “소수집단의 언어”로서의 시와 그 창작자들에게도 그 세대적 경험과 변화들이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발표문의 주된 관심사에서 벗어나는 것일지도 모르겠으나, 전통적 관점에서 ‘현대시’라고 불리우던 것들의 영역에서 포노사피엔스적 경험 혹은 인식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혹은 저 자생적인 그룹들의 대응양식과 비교할 때 어떤 한계 혹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지 생각해두신 바가 있다면 청해 듣고 싶습니다.

제 질문은 이렇게 간단히 두 개로 간추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포노 사피엔스의 초상과 그늘

## - 장강명의 『산 자들』 연구

송 주 현(한신대)

### 차례

1. 포노사피엔스의 등장과 『산 자들』
2. X세대의 밀레니얼 세대 성찰기
3. 포노사피엔스의 초상과 그늘
4. 포노사피엔스의 미래와 소설의 자리

## 1. 포노사피엔스의 등장과 『산 자들』

2015년 3월,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Planet of the phones'라는 표제기사로써 디지털 문명을 이용하는 신인류를 칭하는 말로, '포노사피엔스(지혜가 있는 폰을 쓰는 인간)'을 지칭했다. 언제어디서나 사용가능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황은 지금까지 없던 신인류, 그리고 신문명을 탄생시켰다.

장강명의 연작소설집 『산 자들』은 이러한 포노사피엔스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우리들의 삶에 밀착하여 그 삶의 초상을 매우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강명의 연작 소설집 『산 자들』(2019)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시대의 생존과 가치의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 책은 2015년부터, 저자가 문예지에 발표한 10편의 소설들을 묶은 연작소설집이다. 취업, 해고, 구조조정, 자영업, 재건축 등을 소재로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과 그러한 현실을 빚어내는 경제 구조를 동시에 보여 준다. 2010년대 한국 사회의 노동과 경제 문제를 드러내는 소설들이 각각 '자르기', '싸우기', '버티기' 총 3부로 나누어 수록되었다.

이 소설집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작품집은 단순한 창작물이 아니라 201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 되기 때문이다. 신문기자출신 작가는 자신의 출신답게 소설의 각 세팅과 인물과 사건 등을 철저한 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한 증언의 형식으로 담아냈다. 이 소설을 통해 작가가 던지는 문제의식은 코로나팬데믹의 상황이 가속화한 한국 경제의 불황 아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구체적인 노동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 2. X세대의 밀레니얼 세대 성찰기

먼저 집중해 볼 것은 작가에 대한 이해다. 장강명은 그 세대를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1975년생인 그는 자신의 청춘을 X세대로서 보냈고, 작품을 통해서도 밀레니얼 세대의 성찰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먼저 1950년~60년대생을 소위 ‘베이비붐 세대’, 1970~80년대생을 ‘X세대’, 80년대~2000년대생을 ‘밀레니얼 세대’라 칭했을 때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sup>139)</sup>

베이비붐 세대	1950~60년(한국전쟁 이후) 출생 국민소득 100달러 이하의 시대적 상황 대다수가 성장 과정에서 빈곤, 군사문화, 분단과 냉전을 경험 마지막 주산세대, 컴맹 1세대 현재 우리 사회 상위 리더 계층 2019년부터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
X세대	1970~80년대생 청소년기에 6•10 민주화 항쟁을 경험, 민주화 시기에 성장 물질적 경제적 풍요 속에서 성장 1990년대 오렌지족으로 불리는 독특한 문화 형성 1993년 아모레화장품 ‘트윈엑스’ 광고로 ‘X세대=신세대’로 널리 사용됨
밀레니얼 시대	1980년~2000년대 출생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 IT에 능통하고 대학 진학률이 높음 청소년기부터 인터넷을 접해 모바일과 SNS 이용에 매우 능숙 고용감소, 일자리 질 저하 등 악조건 속 사회진출 결혼과 내 집 마련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향

작가 역시 X세대로서의 자의식을 작가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X 세대는 무엇을 원했던가. 우리는 촘스럽고 엄숙한 것이 지독히 싫었고, 세련됨과 자유로움을 열렬히 추구했다. 우리는 어떤 변화의 중심에 섰고, 그 결과 한국 대중문화가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다.<sup>140)</sup>

실제로 우리의 기술현장과 경제현장에서 X세대는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 IT 기술을 활용하여 대형화된 기업과 시장에 맞도록 기존의 시스템을 수정보완하면서 전 세대가 구축한 시스템을 정교화 했다. 이들은 새로운 세대였음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어떤 변혁과 혁명의 뚜렷한 주체가 되지는 못했다는 함정을 가지고 있다. 경제현장에서 마찬가지다. 새로운 산업의 소비자 혹은 창조자로서의 역할보다는 기존 시장의 계승자로서 기존 사회의 조직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데에 기여했기 때문이다.<sup>141)</sup> 이에 작가는 X세대가 이루어 놓은 성취는 “반쪽 짜리”임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들의 고민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139) 최재봉, 『포노사피엔스』, 샘파커스, 2019, 52쪽 참조.

140) 장강명, 「X세대의 빛」, 『한국일보』, 2017.3.30.

141) 최재봉, 앞의 책 45쪽 참조.

우리의 에너지는 주로 우리 세대의 욕망을 해결하는 데 쓰였다. 자유와 해방의 물결은 우리가 관심을 가진 영역에서만 좁게 일었다. 사회 진보를 고민한 친구들은 선배들의 구호를 답습했다. 학생운동이 몰락한 과정은 자멸에 가까웠다. (중략)

물론 외환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내 기억에 X 세대가 생존을 걱정했던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다. 기껏해야 몇 년 정도였다. 이후에는 생존보다는 이익을 위해 싸웠다. 원어민 선생님이 있는 영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 허덕이는 내 또래 부모들을 보면서 그렇게 느낀다. ‘영어 유치원에 다니지 못하면 아이 인생이 끝장’ 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부모들도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는다. 그저 아이가 누릴지 모를 약간의 이익을 포기하기 싫어서, 또는 남들도 하니까, 정도의 이유인 것 아닌가.<sup>142)</sup>

그리고 작가는 “지금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헤매는 데는, 20년 전 젊은이들의 고민이 부족했던 탓” 임을 지적한다. 물론, 이러한 세대론적 반성의 함정은 있다.<sup>143)</sup> 『88만원 세대』 이후 세대론만 30개가 넘는 상황에서<sup>144)</sup> 현재 문제의 원인은 특정 세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구조나 경기 변동의 종합적인 결과지 특정 세대의 의도적 차별이나 기획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적인 점은 그러한 반성들이 지금 이곳의 불평등의 구조를 바꾸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이에 대한 면죄부, 혹은 면책부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문제는 특정 세대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나 특정 세대의 윤리적 성찰로는 해결될 수 없다.<sup>145)</sup>

하지만 이제는 기성세대가 되어버린 X세대의 반성이 현세대가 겪는 문제의 책임을 덮어버리는 차원이 아니라, 주어진 현재의 상황에서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러한 모색의 지점은 작가의 등단작 및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표백』, 『열광금지, 에바로드』, 『한국이 싫어서』 청춘 3부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청춘을 위해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했다” 는 것이다.<sup>146)</sup> 다시 말한다면 작가는 고착화된 기성세대의 시선으로 현 세대에 대한 책임을 덮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과’ 로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142) 장강명, 위의 글.

143) 박권일, 「반성은 셀프」, 『경향신문』, 2018.9.27. 참조.

144) 『청년팔이 사회』(오월의 봄, 2019.)에서 저자 김천기는 ‘88만원세대’ 이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여년간 신문지면에 등장한 청년세대의 이름을 정리했다. 가장 최근인 2017년에 만들어진 세대 명칭은 3건. 탈진세대(<동아일보>), 절벽세대(<국민일보>), 무민세대(<서울경제>)다. 탈진은 ‘번아웃’을 지칭한 것이고, 무민세대는 ‘無(없다)’와 ‘Mean(의미)’에 세대를 조합한 용어. ‘20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자는 강박에서 벗어나’ 무자극, ‘무맥락’, ‘무위휴식’을 꿈꾼다는 말로, 대학내일 20대연구소에서 만든 신조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저자는 그 기획들이 “수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년세대논의의 기폭제가 된 우석훈·박권일의 ‘88만원세대’나 <경향신문> 세대기획에서 나온 삼포(오포·N포...)세대도 마찬가지다. 정용인, 「88만원 세대 이후 세대론만 30개,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경향신문』(2019.6.29).

145) 박권일, 위의 글.

146) 김미현, 「청춘의 역습과 세속화」, 『한국문화연구』 30, 2016, 91쪽. 세 편의 소설 속 젊은이들은 열심히 죽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이민 간다. 그 구체적인 기표가 ‘연쇄 자살-오덕 문화-탈조선’ 등이다. 이런 행위들 자체가 이전의 청춘들에게는 금기시되던 것들이지만 그들은 각각 ‘성공-노동-국가’를 탈신성화하면서 기존의 ‘자살-놀이-이민’ 개념을 세속화한다. 조르조 아감벤에 의하면 세속화는 지나치게 신성화되어 비인간화된 것을 인간 본연의 사용과 소유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세속화란 신성시되었던 것을 비활성화시킴으로써 인간이 공동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되돌리는 장치라는 것이다. 이러한 세속화를 통해 장강명 소설 속 젊은이들은 새로운 어딘가로 떠난다.



있는 무언가를 위한 탐색의 과정에서 기성세대의 책임과 현 세대의 행동들을 묻고 보여준다는 것이다.

『산 자들』이 놓인 자리 역시 같은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는 한낱의 노동과 경제 문제들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부조리하고 비인간적인 장면들을 단순히 전시하기보다는 왜, 어떻게,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지를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공감없는 이해는 자주 잔인해지고, 이해가 결여된 공감은 종종 공허해집니다.<sup>147)</sup>

작품에는 지금 우리의 시대를 대표하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타난다. 또한 이 시대를 대표할 만한 하급 노동자들의 다양한 형태 또한 나타난다. 일용직 노동자, 청년 구직자, 계약직 노동자, 아르바이트 학생, 영세 자영업자 등. 루카치 식으로 말한다면 ‘문제적 개인’인 것이다.

### 3. 포노사피엔스의 초상과 그늘

#### 3.1. 디지털 혁명의 신화와 루저들

『플랫폼 제국의 미래』를 통해 저자가 지적한 “인류의 삶을 바꾼 4대 기업”은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다.<sup>148)</sup> 실제로 그렇다. 애플은 각 사람들의 손에 전에 없던 강력한 문명의 도구인 스마트폰을 쥐어주었고, 구글은 인간의 뇌활동을, 페이스북은 인간관계를 재정의하고, 아마존은 인간의 소비생활을 변화시켰다. 기술진보와 생산과 공유, 그리고 소비의 관점에서 일대 혁명과 전환을 가져온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36억 명의 새로운 인류, 포노 사피엔스는 이제 문명의 기준을 바꾸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내며 인류의 능력의 영역 역시 무한 확대하고 있다. 스마트폰 탄생 10여년 만에 스마트폰을 손에 쥔 36억 명의 인류는 실시간으로 구글, 위키피디아, 유튜브에 있는 지식 모두를 자기 것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IT 기업 중에 하나인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는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 레이크 타호에서 개최된 테크노미(Technomy)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종족으로부터 태초부터 2003년까지 만든 것과 같은 양의 정보를, 지금은 ‘이틀마다’ 창조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러한 선언과 진단이 수행된 것이 10여년 전임을 감안할 때 현재 매일 만들어지는 정보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기에 “호모 사피엔스 역사 7만 년 동안 이렇게 수십 억 인구의 지적 능력이 집단적으로 급격하고도 동등하게 상승한 적이 없다”<sup>149)</sup>는 지적은 더욱 유의미하다.

그러나 이 급격한 변화의 속도에 인간은 과연 잘 적응해왔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 자체는 0과 1이 만들어내는 깔끔하고 명쾌한 디지털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강명 소설은 이 놀라운 혁명적 상황에서 갈등하고 균열하는 한 개인의 모습을 세밀한 초상으로 드러낸다.

「모두, 친절하다」는 포노사피엔스의 디지털 문명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남자의 이야기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떠올리게 하는 이 소설은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147) 장강명, 『산 자들』 작가의 말, 민음사, 2019, 379쪽.

148) 스콧 갤러웨이, 이경식 역, 『플랫폼 제국의 미래』, 비즈니스북스, 2018.

149) 최재봉, 앞의 책, 79쪽.

운이 없었던 날”에 대한 진술로써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거기에 대단한 스토리는 없다. 스마트폰과 pc, 인터넷 거래와 소셜앱을 통한 음식배달이 일상화된 그러나 피로에 누적된 삶의 한 단면이 포착될 뿐이다. 시작은 이러하다, 한 권의 책을 추천하며 동생인 나에게 형은 인터넷 서점을 통해 책을 주문 배송 시킨다. 자산가치가 올라간다는 명목 하에 아파트 명이 “현대 아파트”에서 “힐스테이트”로 바뀐 상황의 복잡함에 책은 나의 회사로 배달되고자 하나 회사가 위치한 빌딩의 복잡한 구조와 상황으로 배송은 이래저래 지연된다. 당일배송이 원칙인 규정을 따라야만 하는 인터넷 서점 사정에 따라 나는 당일 밤늦게나마 나의 자택으로 책을 배송받고자 한다. 하지만 습관처럼 붙어버린 ‘힐스테이트’가 아니라 ‘현대아파트’라고 말한 채 통화는 종료되고, 나는 1544로 시작되는 콜센터로 전화를 걸지만 상담원과의 통화는 되지 않은 채 책 배송은 미궁에 빠진다. 그리고 경험되는 PC 애프터 서비스의 복잡함과 피곤함, 피자배달 하나에도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쿠폰과 카드, 앱 사용. 내가 경험하는 것은 지독한 피로감이다.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며칠 전부터 한참 쓰다 보면 이삼 분 정도 터치 스크린에 입력이 안돼 어떤 때는 펜으로 입력하면 되는데 손가락으로 하면 먹질 않아. 어떤 때는 펜으로 터치해도 안 되고 손가락으로 해도 안 되고. 참고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모두, 친절하다」, 275쪽)

그런데 이런 피로감은 혁신의 아이콘이자 인류문명의 선진화를 이룬 글로벌 대기업의 제품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다.

네 저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유명하고 애프터서비스를 받기 어렵기로도 악명 높은 글로벌 대기업 제품을 씁니다. 1년쯤 쓰다가 바닥에 떨어뜨려서 액정에 금이 한 줄 갔는데 공식 서비스 센터에 맡기면 수리비가 35만원이라는 거예요. 시간도 일주일이나 걸리고요, 그걸 정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중략) 그 뒤로 전화가 특하면 끊어 쳐요.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 두 달만 참으면 약정 기간이 끝나거든요. 참아야죠, 별 수 있습니까.

(「모두, 친절하다」, 77쪽)

우리에게 편리와 편의를 제공한 이 기계 앞에서는 모두가 바보가 되기도 한다.

기사 한 분이 올라와서 컴퓨터마다 무슨 시스템 설정을 바꾸고, 켜다가 끄면서 프린터를 연결하고, 시험출력을 해 보고는 다시 연결선을 뽑고 그러는 거예요. 구형 레이저 프린터에 랜 포트가 없고. USB 포트만 있어서 뭐가 설치가 어렵다고, 통신 설비팀 직원이 프린터 서버라는 작은 상자 같은 기계 못 봤느냐고 묻는데 그 말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은 저희 중에 아무도 없었죠.

(「모두, 친절하다」, 77쪽)

모두 불편하고 허둥지둥대는 이 상황과 과정에서 인간은 학대당하는 소모품처럼 느껴질 정도다.

그리고 그 기사님 얼굴들이 참…… 학대받는 동물의 표정 같았다고 하면 너무 실

레가 되려나요. 사람이 매일 혼나고 야단맞으면 움츠러들고 기를 못 펴는 태도가 몸에 배게 되잖아요. 딱 그랬어요. 그 제품이 불량이 자주 나기는 하나봐요. 제 아내처럼 대리점 거쳐서 온 사람들은 센터 문을 들어설 때부터 심사가 꼬여 있을 거고요.

(「모두, 친절하다」, 292쪽)

제품은 있는데, 서비스를 제공한 자나, 제공받는 자나 이 극도의 소진을 경험케하는 이 상황에서 책임은 누구에게도 묻어지지 않는다. 다만 가장되고 학습된 친절함과 사과만이 불편한 이 상황을 봉합할 뿐이다. 본인들이 하지 않은 잘못에도 이사업체 직원들은 “죄송합니다”를, 잘못된 주소 정보에 배송요류가 난 상황에 택배 기사들은 또 “죄송합니다”를 반복한다. 카드할인 정보가 너무 복잡해서 바로 결제를 하지 못한 십대 피자 배달 소년 역시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는 것은, PC 수리업체 직원이 몸에 익힌 매뉴얼화된 친절에의 강요와 다름이 없다. 이러한 상황은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문명이 제기하는 인간존엄의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결국 ‘내’가 돌고 돌아 받아본 책 제목이 『화내지 않는 연습』은 극도의 아이러니다.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의 극한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개인적 수양과 명상일 뿐이니 말이다. 작가는 소설을 통해 이 피로한 사회를 견디게 위해서는 화내지 않는 연습을 말했지만, 실상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고발한 것이다. 우리는 작품 속에서 경험되는 이러한 웃픈 아이러니를 읽으며 식민지 시기 현진건이 「운수좋은 날」의 김첨지가, 이 시대의 힘없는 노동자들(가령 외국인 출신 이사업체 직원, 택배 배송기사, 콜 센터 직원, 피자 배달 소년)로 환생해 오는 슬픈 현실을 목도하게 된다. 디지털 문명이 선사한 감시의 파놉티콘을 내장한 첨단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 힘없는 김첨지들에게 친절과 죄송을 요구한다. 하지만 ‘모두 친절’한 이 세상이 불편하고 화가 나는 것은 무자비한 자본주의의 폭력성이 강요한, 매뉴얼화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과와 친절의 행위와 말들이 그 시스템의 가장 큰 희생자이자 소모품이 되는 하급 노동자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다. 이는 프란츠 파농이 이야기한 ‘수평폭력’의 개념을 상기시킨다. 파농은 프란츠 파농은 알제리 폭력 사건을 관찰하고 연구하며 자본이나 제국주의로부터 착취를 당할수록 민중들은 자기보다 약한 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강자로부터 수직폭력을 당할수록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려는 수평폭력 심리가 있다.”라는 ‘폭력론’을 내세웠다.<sup>150)</sup> 물론 모두가 ‘친절’한 이 상황에서 약자들 간의 구체적인 폭력은 노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디지털 문명이 선사한 흡사 ‘학대’와도 같은 이 폭력적 상황에 폭력을 야기하고 촉발시킨 장본인은 미궁에 놓인 채, 그 문명의 희생자와 약자들 간의 게임만이 상정된다는 점, 그리고 모든 사과와 책임 또한 그들만의 것으로 미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수평폭력이 내장한 논리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수동 빵집 삼국지」, 「공장 밖에서」, 「사람 사는 집」)

### 3.2. 자본주의 신화와 가치의 전도

포노 사피엔스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좋아요’와 ‘별점’ 평가가 만들어내는 빅데이터와 소비자 만능의 문명은 “인류의 심장, 관계와 애정을 재정의한다”.<sup>151)</sup> ‘좋아요’ 버튼

150)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20.

으로 감정을 공유하고 타인과의 교감을 SNS로 만들어가는 것이 포노사피엔스의 방식이다. 물론 이 디지털 사회성에도 나름의 질서가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할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감정의 표현과정에서 인간의 감정은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체계는 차이를 지닌 대상에 일정한 값을 매김으로써 대상의 고유한 사용가치를 없애고, 교환가치를 만들어낸다.<sup>152)</sup> 이 과정에서 개별 생산물은 화폐로 계산될 수 있는 등가적 상품이 된다. 이때 생산과정에서의 주체적인 요소들, 노동 등의 매개는 생략되고 생산물은 다만 물질적 등가물인 상품으로만 여겨진다. 생산물과 생산관계 사이의 주-객 관계는 소멸되고 다만, 물질적 사물관계만 남음으로써 이는 결국 인간을 소외시키는 사물화 현상을 낳는 것이다.

포노 사피엔스 문명에서 이러한 교환가치는 페이스북의 ‘좋아요’, 다양한 앱에 대한 별점 평가, 유튜브에 대한구독자 수로 표상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소비자의 개별적 욕구와 취미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인간적이며 심지어 따뜻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것이 물질주의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무자비한 가치의 전도로 확장된다.

「음악의 가격」은 장강명 작가 자신이 고스란히 투영된 작품으로 관찰자인 작가가 언더 음악을 하며 간신히 생을 유지하고 있는 ‘지푸라기 개’의 모습과 삶을 통해, 포노사피엔스 문명에서 소비되는 예술에 대해, 나아가 미래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무제한 스트리밍이 익숙한 이 시대에 “한 곡을 재생하면 매출이 7원쯤 발생하는데 거기서 1,3원쯤 되는 돈을 작곡자, 작사자, 보컬, 연주자가 나눠 갖는”다고 한다.(304쪽) 그것도 서비스 가입자가 아무 할인을 받지 않고 정가로 서비스 요금을 낼 때의 이야기. 유명한 뮤지션조차 1년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뛰어난 뮤지션이라 해도 그들은 행사, 레슨, 알바를 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작가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글을 쓰면서도 강연과 방송 활동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폐허 위에 폭탄이 터져봤자 폐허”인 것은 마찬가지인 셈이라 빈곤한 음악시장에 사실상 어떤 저항을 표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지푸라기 개가 ‘음악노동자연대’ 가입신청서를 돌리고 회원을 모집해도 공허한 울림이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 또한 자신들에게 모자란 것이 음악이 아니라 기획력, 시장의 눈길을 끄는 능력, 대중들에게 자신들을 그럴싸하게 설명하는 능력임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속임수가 되더라도 그럴싸해 보이면 되는 것이다.

그는 녹음 음원을 틀어 놓은 무대가 라이브 공연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밴드 활동을 한 적 없는 가수가 밴드 음악인인 것처럼 보이게 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 말하자면 고급 포장지 역할이었다. 상품을 더 진실성 있게 보이게 하려고 속임수를 쓴다는 역설을 겪은 지푸라기 개는 이해해 보려 애썼다.

(「음악의 가격」, 315쪽)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이미지, 캐릭터, 스토리였다. 지푸라기 개가 포장지

151) 최재봉, 앞의 책, 115쪽.

152) 추상적 개념화와, 사물화 현상, 교환원리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는 마르크스, 아도르노, 데리다에 의해 논의되어왔다. 학문적 개념화와 사회적 사물화, 자본주의의 교환원리는 이성중심적 근대화의 논리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 안에 있다. 마이클 라이언, 나병철·이경훈 역, 『해체론과 변증법』, 평민사, 1994, 276-278쪽 참조.

라고 여겼던 것이 진짜 상품이었고 음악이 포장지였다. 왜냐하면 음악은 너무 찢기 때문이다. 상품 가치는 희소성에서 나온다.

(「음악의 가격」, 318쪽)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 음악의 가격은 싸다. 진짜 상품은 포장지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들이 대가를 지불하며 구매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우라’다. 음악의 포장지를 구매하고, 강연을 통해 작가를 만나면서 경험하고 기대하는 ‘아우라’, 그것은 현수동 ‘현대아파트’가 ‘힐스테이트’가 되는, 말하자면 평범한 주거지가 성(城)이 되는 환상(「모두 친절하다」)이며 129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나운서가 되고 야 마는 환상(「카메라 테스트」),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스펙쌓기의 신공으로 대기업에 합격하고야 마는 기대와 환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대중에게 왜 이러한 아우라, 환상이 필요한 것일까? 김미현은 장강명의 청춘 3부작을 논하며 작품 속 청춘들의 다양한 탐색의 시도가 ‘세속화’의 과정이며 이것이 젊은 세대가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실천의 방법론이라 했다.<sup>153)</sup>

이때의 세속화는 조르주 아감벤이 말한 바, 신성화되었던 것을 인간의 사용과 소유로 되돌려주는 것이다.<sup>154)</sup> 반면 신성화는 신들을 위해서만 배타적으로 비축되도록 만들기 위해 인간으로부터 분리시켜 인간들은 이용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작 청춘 3부작에서 보여준 ‘세속화’의 반대 방향을 겨냥하는 이 포노사피엔스의 ‘신성화’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조르조 아감벤은 세속화 예찬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종교가 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이러한 논리는 다시 말한다면 그에게 있어 신성화라는 것은 종교가 된 자본주의에 대한 복종이자 순응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포노 사피엔스가 보여주는 ‘아우라’에 대한 환상은 ‘세속화’에 대한 거부이며, 이는 동시에 ‘신성화’로의 회귀다. 이는 다시 말한다면 디지털 문명을 기반한 자본주의의 질서와 논리를 공고화하는 데에 기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해 보게 된다. 과연 포노사피엔스가 이룩한 디지털 문명은 진정한 혁명이고 혁신인가? 이들이 보인 신성화의 양상은 (아감벤의 논리처럼) 종교가 된 자본주의에 대한 순응이자 회귀가 아닐까? 포노 사피엔스의 환상 아래 우리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지적했던 자본주의 시대에서의 노동과 인간소외의 문제를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고착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은폐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일이다.

대중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 3.3. 성공에의 신화와 열정착취

포노사피엔스가 이룩한 가장 큰 성취는 기존의 권위와 질서, 전통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는 것이다. 가령, 게임방식으로 만들어진 미국의 택시회사 ‘우버’는 특허도 없고, 공장도 없이 3년 만에 100년 이상된 기존 택시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불러 일으켰고 그 수익만 보더라도 2017년 기준 우버앱으로 결제된 금액은 30조원, 운전자에게 분배된 22조원을 제하고도 8조원이 남았다고 한다.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이 낳은 이러한 효과는 고졸 백수출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을 연봉 20억원을 벌어들이는 대사업가로, 또한 TV

153) 김미현, 앞의 글.

154) “ ‘봉헌하다(신에게 바치다)’가 인간이 만든 법의 영역에서 사물을 떼어낸다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였다면, 거꾸로 ‘세속화하다’는 사물을 인간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돌려준다는 뜻이었다.” 조르조 아감벤, 김상운 역, 『세속화 예찬』, 난장, 2010, 113쪽.

나 방송에 출연하여 많은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초등학생들이 가장 되고 싶은 직업 TOP5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링크되어 있다는 점은 포노사피엔스의 위력이 우리의 일상과 가치관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가늠하게 한다.<sup>155)</sup>

좋은 콘텐츠만 있다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세계의 경제불황과 더불어 한국사회의 구조적 불황과 무한 경쟁의 상황에서도 개인만 노력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환상을 부추긴다. 실제로 얼마 전 취업사이트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유튜브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인 유튜브를 운영한다는 응답자가 30%에 달했다고 한다.<sup>156)</sup> 그러나 유튜브를 꿈꾸며 고가의 카메라 장비를 구매했다가 ‘쌍돈’만 날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고가의 카메라 장비들이 결국엔 중고장터에서 싼값에 처분되고 있다. 유튜브를 꿈꾸며 큰 맘먹고 유튜브 계정을 개설해 호기롭게 영상 제작에 뛰어들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얼마 못가 포기한다는 것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따르면 영상촬영 장비 중고 매물이 매달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7월 500여건에서 최근에는 월 1000여건 수준까지 2배가량이나 늘었다. 특히 당근마켓에서 ‘유튜브’ 키워드로 검색하면 각종 촬영 장비 및 실용서들을 판매한단 게시글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누구나 도전하기는 쉽지만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구독자를 모으는 건 매우 힘들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의미 있는 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민이 다녔던 아나운서 아카데미의 한 강사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생에서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자기 철학을 펼쳤다. 그 기회는 어느 하루, 한 찰나에 운명적으로 찾아드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한 달, 때로는 1년일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다니는 그 기간 전체를 낭비나 고통의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기회로 여겨야 한다는 얘기였다.

(「카메라 테스트」, 228쪽)

하지만 그 환상이 이내 ‘거짓말’임을 ‘노오력’하는 청년들이 모를 리 없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괜찮아요. 일어나서 계속 읽으세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괜찮다고, 아직 기회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카메라 테스트」, 230쪽)

1000대 1이 넘는 살인적 경쟁의 아나운서 선발 시험에서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은 타인과의 표면적 비교우위에 의한 정도에 불과하다(「카메라 테스트」). 그렇기에 인생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회였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 하나의 실수에 지금까지 고군분투하며 준비해 온 모든 과정이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균열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혹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몇 안 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순간처럼 절박하고 처절하고도 유일한 것이 되고 만다. 탈진(번아웃)세대<sup>157)</sup> 라는 말이 상징하듯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정도에까

155) 성과에 대한 정리는 최재봉, 앞의 책 참조.

156) 유동현, 「“그만 접습니다ㅠㅠ” 유튜브 실상은 결국 당근마켓으로」, 『헤럴드경제』, 2020.1.2

157) 번 아웃이란 정서적으로 부담이 되는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서 생기는 생리적, 정서적, 정신

지 다다르면서도 끝까지 ‘노오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터넷 가상공간이 정보의 ‘바다’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바다는 먹을 것들이 가지런히 정돈된 마트나 시장이 아니다. 포노사피엔스의 상징적 공간인 ‘아마존’은 역시 정글이자 밀림이다. 거기에는 죽음도 무한경쟁의 죽음과 처절한 싸움이 도사리고 있다. 더군다나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 코로나팬더믹의 위협이 경제회생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는 이 상황에서 디지털 공간을 단순히 가능성의 공간으로 환상화하기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현실은 이러하니 실제로 경험되는 현실은 지독한 피로감, 그리고 무력감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것도 될 수 없을 것 같은 열패감과 무력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듯한 소외감과 고립감. 자신이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돌이켜 보자 금방 답이 나왔다. 그는 대외활동을 다시 해야 했다. 그를 반겨주고 인정해 주는 것에 가야 했다. 설사 그들이 자신을 환영하는 이유가 값싼 노동력 때문이라 해도.

(「대외활동의 신」, 263쪽)

이러한 성과사회의 피로는 “사람들을 개별화하고 고립시키는 고독한 피로”<sup>158)</sup>다.

일단 저는 똑똑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점주나 손님과 무슨 대화를 하고 뭘 배울 수 있을가요. 주유소, 호프집, 택배 상하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보다는 대기업이나 은행, 공공기관에 있는 선배들과 말 한마디라도 섞고 조언을 듣고 싶었습니다.

(「대외활동의 신」, 239쪽)

영화 <설국열차>에서처럼, 이 시대의 청년들은 열차의 마지막 칸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과 몸부림을 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발적 파놉티콘에 감금시킨 채 자아와 세계관의 모든 영역을 조련하며 사육한다.

SNS 이웃, 친구, 팔로워가 늘어날수록 이런저런 대외활동 공모에서 합격할 확률도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요즘은 기업들이 대외활동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SNS 계정주소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처음부터 파워 블로거나 파워 트위터러인 학생들을 뽑아서 열정 챌린저니 청년 서포터니 하는 이름을 붙여 주고 온라인 홍보대행사 대신 쓰겠다는 거죠. 그 편이 훨씬 더 싸게 먹히니까요. 아이디어도 더 참신하고.

(「대외활동의 신」, 231쪽)

무엇보다 문제적인 것은 그 열정페이에 순응하고 자발적으로 승인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

적 소진 상태를 의미한다. 2017년 동아일보에서는 직무 및 학업에 따른 소진 정도를 측정하는 데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MBI 지표’를 수행했다. 그 결과 20대의 번아웃 총점은 75점 만점에 46.5점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김재희, 「희망 잃어버린 20대, 가장 지친 ‘탈진’세대」, 『동아일보』, 2017.4.30.

158) 한병철, 김태환 역, 『피로사회』, 문학과 지성사, 2012, 67쪽.

제가 착취 당했고, 그 바람에 인생에서 중요한 걸 놓쳤다는 말을 듣고 싶으신 거지요. 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걸 인정해서 제가 얻는 게 뭐니까? 저는 성공했습니다. (중략)

애초에 뭔가 관찮을 걸 노려볼 기회가 저한테 있거나 했습니까? 처음부터 컵에 물은 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반 컵의 물을 마시느냐, 아니면 그마저도 마시지 못하느냐였습니다. 다시 대학교 1학년이 된다 해도 똑같이 할 겁니다. 대외활동이 아니었다면 저는 대학 생활 내내 빌빌대면서 허송세월했을 겁니다. 그렇게 빌빌댈 수밖에 없는 처지였단 말입니다.

(「대외활동의 신」, 268쪽)

포노사피엔스가 감시와 피로사회의 청년들에게 선사한 피로는 타와 타자를 분리하고 개별화하는 “분열적 피로”<sup>159)</sup>다. 이런 분열적인 피로는 인간을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는다는 것이 큰 문제다. 그렇기에 포노사피엔스가 결국은 ‘사람’을 지향한다는 낭만적 선언은 폭력을 가장한 환상일 수 있다. 왜냐하면 피로는 폭력이며, “그것은 모든 공동체, 모든 공동체의 삶, 모든 친밀함을 심지어 언어 자체마저 파괴”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60)</sup>

포노사피엔스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권력이 소비자에게로 이동했다는 사실은 “혁명의 중심이 ‘사람’이다”<sup>161)</sup>라는 낭만적이고도 인간적인 명제를 소환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 자체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한 것인지, 돈의 출처로서의 사람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품 선택의 기준이자 출발, 그리고 끝이 사람이기 때문에 소환된 사람중심의 선언은, 어쩌면 상품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포노 사피엔스의 이 낭만적 선언은 역설적이게도 인간존중의 가치를 훼손한다.

#### 4. 포노사피엔스의 미래와 소설의 자리

호모사피엔스로부터의 인류는 이제 포노사피엔스의 정체성을 부여받으며 디지털 신문명을 이룩하며 전에 없던 새로운 인간의 역사, 문명의 대변혁을 이루어왔다. 초래하는 문제들은 많으나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기술문명의 자발적 후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역변없는’ 진화이기 때문이다.

장강명 소설은 이러한 우리 시대의 현장과 그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초상을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문제적으로 다루었다. 포노사피엔스의 환상 뒤에 가려진 일용직 노동자, 청년 구직자, 계약직 노동자, 아르바이트 학생, 영세 자영업자 등, 문명의 그늘 아래 가려진 하급 노동자들의 삶의 초상을 다루었다는 점은 더욱 주목해 보아야 할 지점이다.

작가의 이전 작품들(청춘3부작 등)이 희망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면 이제 현실 속 살아남은 자들의 이 이야기 속에는 처절한 절망이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현실에 밀착한 그의 작품이 고발한 한국 노동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작가가, 혹은 그의 작품을 문제적으로 읽어나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급변하는 문명의 현실 앞에서 이에 적응할 것인가, 대항할 것인가? 대항한다면 과연 이 역변없는 진화 앞에서 견뎌나갈 수 있을 것인가?

159) 한병철, 위의 책, 같은 쪽.

160) 한병철, 위의 책, 같은 쪽.

161) 최재봉, 앞의 책.



이때, 흥미로운 것은 이 불편하고도 어려운 현실에 대해 작가는 일방적으로 비판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 디지털 신문명, 포노사피엔스가 이룩한 세계의 신기준, 뉴 노멀은 ‘역변 없는 진화’임을 작가도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도리어 작가 역시 이러한 문명의 세례를 받으며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요하고 있는 주체이기도 하다.<sup>162)</sup>

네가 어른이 되면 의사도 변호사도 다 스트리밍 서비스에 밀려날지 몰라. 인공지능 로펌이 월 8800원에 무제한 법률 상담을 해 줄지도 모르지. 한달에 2만 9000원을 내면 정수기처럼 로봇 의사를 집에 설치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때는 모든 것의 가격이 같아질 거야. 법무, 의학, 투자, 분석, 관리, 강연, 방송, 교육, 소셜, 청소, 운전, 모든 게. 유사 연애조차도, 개개인의 취향을 파악한 맞춤형 월정액 가상현실 소프트웨어에 아이들이 자리를 내줘야 할 테니까.

그리고 그건 그리 나쁜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 모든 재화와 용역에 무제한 스트리밍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사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다시 세울 수 있을 테니까. 그래야 할 테니까. 공급량, 보완재, 대체재를 넘어서.

그러면 좋은 음악은, 다시 소중해질지도 몰라.

(「음악의 가격」, 335쪽)

지혜를 가진 인간은 다양한 도구와 기술을 개발하며 각 시대를 대표하는 신문명을 만들어 냈고, 이러한 기술과 도구는 인류사에 커다란 변혁을 이루어냈다. 그 변화의 물결에서 인간은 갈등·경쟁·적응해 가며 대응해 왔다. 문학과 소설은 이러한 대응방식의 가장 첨예하고도 섬세한 형태다. 또한 거대서사로서의 법과 제도, 역사와 규범이 말해 줄 수 없는 인간과 사회의 존재방식에 대해 질문하고 그 정체성을 탐색하는 양식이기도 하다. 포노사피엔스의 시대, 장강명 작가의 소설적 물음이 더욱 의미있는 것은 여기에 있다. 시대와 사회에 대한 응답과 반응을 가장 섬세하고도 철저하게 보여준다는 점, 일방적인 순응, 혹은 거부가 아니라, 그 사회 ‘안’에 있으면서도 ‘밖’의 가능성을 탐색한다는 점,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하여 새로운 현실과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은 디지털신문명의 명암을 동시에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아닐 수 없다.

162) 장강명 작가는 가수 요조와 함께 2017년부터 약 2년간 <책, 이게 뭐라고> 팟캐스트 및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시대의 변화에 누구보다 민감하고 발빠르게 적응해 왔다. 또한 현재 소비되고 있는 출판 유통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네이버웹툰 매니지먼트로 적을 두게 되었다.

## <참고문헌 및 자료>

장강명, 『산 자들』, 민음사, 2019.

김미현, 「청춘의 역습과 세속화」, 『한국문화연구』 30, 2016.

최재봉, 『포노사피엔스』, 쌤파커스, 2019.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20.

마이클 라이언, 나병철·이경훈 역, 『해체론과 변증법』, 평민사, 1994.

스콧 갤러웨이, 이경식 역, 『플랫폼 제국의 미래』, 비즈니스북스, 2018.

조르조 아감벤, 김상운 역, 『세속화 예찬』, 난장, 2010.

김재희, 「희망 잃어버린 20대, 가장 지친 ‘탈진’ 세대」, 『동아일보』, 2017.4.30.

박권일, 「반성은 셀프」, 『경향신문』, 2018.9.27.

유동현, 「“그만 접습니다ㅠㅠ” 유튜버 실상은 결국 당근마켓으로」, 『헤럴드경제』, 2020.1.2

장강명, 「X세대의 빛」, 『한국일보』, 2017.3.30.

정용인, 「88만원 세대 이후 세대론만 30개,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경향신문』, 2019.6.29.



## 「포노 사피엔스의 초상과 그늘 - 장강명의 『산 자들』 연구」 토론문

김 소 루(이화여대)

송주현 선생님의 논문은 장강명의 연작 소설집인 『산 자들』을 분석함으로써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생존과 가치의 문제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작품집이 2015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소설들을 모아 2019년도에 출간되었다는 점에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다 첨예하고 조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소설이란 해당 시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단순한 문학 작품 분석을 넘어서서 21세기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문제 삼고 있다는 의의를 갖습니다. 연구자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발표문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분석 **작품의 선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강명의 소설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발표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작품들은 주로 2부와 3부에 해당하는 ‘싸우기’와 ‘버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장강명 소설에서 비교적 비중있게 논의되어 온 「알바생 자르기」가 포함된 1부 ‘자르기’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발표자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글의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2장 ‘X세대의 밀레니얼 세대 성찰기’를 통해 서술된 내용은 본격적인 본론에 해당하기 보다는 서론의 문제제기에 해당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어지는 3장인 ‘포노사피엔스의 초상과 그늘’이 본 발표문의 제목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3장을 통해 세부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따라서 전체 글에서 2장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부연 설명해주신다면 논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방법론 적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발표자는 3장 1절에서 프란츠 파농의 ‘수평폭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인간에게는 강자로부터 수직폭력을 당할수록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려는 수평폭력 심리가 있다.”라는 파농의 폭력론은 신자유주의가 낳은 갈등 관계를 드러내는데 아주 효과적인 개념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장강명 소설이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이분법을 넘어서서, 노동자 계급 안에서 분화되는 21세기 사회의 ‘신계급론’ 문제를 첨예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발표자께서도 언급했다시피 “약자들 간의 구체적인 폭력은 노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파농의 수평폭력 심리와 장강명의 작품을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지, 그 연결고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된다면 어떨까 합니다. 이에 발표문에서 언급해 놓으신 작품들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지 여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제의 특수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강명의 소설은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과 그러한 현실을 빚어내는 경제 구조(취업, 해고, 구조조정, 자영업, 재건축 등)를 통해 2010년대 한국 사회의 노동과 경제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적으로 1978년에 출간되었던 조세희의 연작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떠올리게 합니

다. 자본이 빚어낸 경제의 논리, 그 비극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2000년대 이후 박민규의 「잡을고시원 체류기」 등의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청년과 가난의 문제, 소위 ‘백수문학’의 등장과도 긴밀한 연관을 갖습니다. 그러나 장강명의 소설이 단순히 이러한 문학의 계보를 잇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강명의 작품이 이전의 문학 속에서 그려져 왔던 자본의 문제와 어떤 점에서 변별된다고 보시는지, 장강명만의 특징에 관한 생각을 정리해주신다면 본 발표문의 의의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합니다.





# 디지털 리터러시와 시적 언어의 학습 효과

양 경 인(서울예대)

## 차례

1. 서론 : ‘포노 사피엔스’ 학습자가 참여하는 강의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 포노 사피엔스 언어의 특징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이해
3. 시적 언어의 학습방안과 효과
4. 결론 : 시적 리터러시 교육 설계의 필요성

### 1. 서론 : ‘포노 사피엔스’ 학습자가 참여하는 강의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이하 ‘코로나 19’)의 확산은 전 세계의 교육현장 풍경을 백팔십도 바꿔놓았다.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강의실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모이는 상황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각 학교의 수업을 ‘비대면’의 형식으로 운영하게끔 만들었다. 한국의 대학교육현장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학교마다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여부가 달랐으므로 전국의 대다수 강의실은 ‘zoom’ 이나 ‘Google meet’ 와 같은 화상회의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한 실시간 강의나, ‘ppt(power point)’ 의 녹음 및 녹화 기능을 이용한 사전제작 강의 형태로 대체되었다.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부터 강의실에서 종종 들리던 교육자들의 불만 중 하나가 수업 중 몇몇 학생들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몰래’ 만지작거리며 온라인상에서 홀로 다른 시·공간성을 탐색하느라 강의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데 있었다면, 코로나19의 확산이 좀처럼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런 불만이란 품을 수 없는 종류의 것이 되어버렸다. 오히려 학습자가 스마트폰에 혹은,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PC에 오롯이 집중해야만 강의 참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강의를 기획한 교육자는 강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학습자들에게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고 권장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을 통해 출결 확인을 하거나, 주로 ‘e-class’ 라는 이름으로 학교마다 구축되어 있는 온라인 게시판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교육자와 학습자가 강의 자료를 주고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해왔던 기존의 제한된 활동과는 차원이 다르게 조성된 교육현장의 풍경에 해당한다. 이 글은 이러한 시기에 더욱 두드러졌던 ‘포노 사피엔스’ 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와 관련된 특징이 의사소통 활동에 끼치는 영향을 살피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포노 사피엔스(Phono-sapiens)’ 는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 를 지시하는 말로,<sup>163)</sup> 영국의 대중매체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2015년 특집기사에서 “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새로운 인류 문명의 시대’ 가 왔음을 이야기” 하면서 “ ‘지

163) 최재봉, 『포노 사피엔스』 쌤앤파커스, 2019, 6쪽.

혜가 있는 인간’이라는” “호모 사피엔스에 빚대어” “지혜가 있는 폰을 쓰는 인간”이라는 의미를 담아 사용하기 시작한 개념이다.<sup>164)</sup> 최재봉 교수의 일별에 따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 중에서도 “스마트폰이 컴퓨터라는 인식”을 가지고 “디지털 소비문명의 적극적인 사용자이자 확산자”로서의<sup>165)</sup> 역량을 펼치는 이들을 높은 단계의 ‘포노 사피엔스’라고 간주했을 때,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이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시기인 2010년대에 들어서부터 대학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대체로 포노사피엔스의 특징을 보여 왔다. 가령 포노사피엔스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은 강의 도중에 본인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노트 필기 및 정보 검색을 망설임 없이 행했을 뿐만 아니라(이때 스마트폰은 이들의 필기도구로 역할하면서 동시에 신체기관이 해낼 수 있는 기억장치로 활용된다), 강의 시간을 포함하여 24시간 내내 스마트폰을 통해 소셜미디어(이하 ‘SNS’)에서의 접속을 유지함으로써 학습자만의 시간성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확보하는 행위를 펼쳐냈다(이때 스마트폰은 가상세계와 24시간 접속을 가능하게끔 만드는 통로로써, 온라인을 벗어난 생활 주기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시간성을 마련하는 도구이다). 이를 근거 삼는다면 이른바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인류라 할 수 있는 ‘포노 사피엔스’들의 경우는 비대면 형식이 주를 이루게 된 코로나19 시대에 달라진 교육현장에서도 비교적 자연스레 적응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못하는 기간이 길게 이어지면서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상을 비껴간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다. 아무리 스마트폰을 마치 신체기관의 일부와 같이 편하게 다루고 여기는 포노 사피엔스에게도 여러 난관이 강의 도중에 펼쳐졌다. 물론 포노 사피엔스에 속한 학습자가 화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웹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해당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환경에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나, 이들 역시 교육자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수업 참여 때와는 다른 피로를 호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특히 포노 사피엔스에 속한 학습자가 포노 사피엔스에 속하지 못한 교육자와 문자를 매개로 소통하는 과정을 가질 때에는 다양한 오해가 만들어졌다.

먼저 필자가 교육자로 참여했던 온라인 수업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사례로 들 수 있겠다. 강의 초반 무렵 한 학습자가 강의에 대한 요청사항을 새벽 시간에 전한 바 있었는데, 이때 학습자는 ‘e-class’ 게시판에 “수업 녹화 시 소음이 안 들리도록 주의 하십시오”라고 썼다. 언뜻 보면 겸손한 태도로 전한 메시지처럼 읽히기도 하지만, 필자가 스마트폰 알림을 통해 이를 처음 접한 때가 새벽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도리어 학생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을 표현이다. 처음 ‘주의 하십시오’라는 표현을 접했을 때, 필자는 해당 문구가 강압적인 인상을 남긴다고 생각해서, 어쩌면 학습자가 반항심을 담아 메시지를 전했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교육자 역시 온라인 수업에 대한 긴장감과 예민도가 높은 상태에서 해당 문구와 마주치다보니 가졌을 감정인 듯싶지만, 당시에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들어 학습자에게 ‘주의 하십시오’라는 표현으로 항의를 할 만큼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심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대면 수업이었다면 학생의 표정을 살피며 감정을 누그러뜨리며 말을 걸 수도 있었겠지만, 비대면 수업이었으므로 학습자와 같은 경로라 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을 매개로 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확인 결과 학습자는 비대면 상태에서 교수자에게 말을 거는 상황이 부담으로 느껴져 예

164) 같은 책, 25쪽.

165) 같은 책, 54-55쪽.



의를 더욱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쓸 법한 표현을 골라 쓰느라 그와 같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학습 방해가 심한 상황도 아니었거니와 단지 학기가 진행되면서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으니 교수자가 각별히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요청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례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생각한 바를 진솔하게 전달해도 될 대상으로 교수자를 상정하고 있었으므로, 다행히 상황은 각자의 표현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읽힐 수 있는지를 공유하면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만약 학습자가 진솔한 메시지를 발신해도 되는 수신자로 교수자를 상정하고 있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러한 가정을 한 배경에는, 비대면 수업 와중에 질문을 할 때마다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을 구사하는 등 교수자에게 지나치게 권위를 부여하는 학습자가 눈에 띄게 늘어난 데에 있다. 이 경우 학습자는 교수자와의 관계에서 강고한 수직관계를 상정해버린 채 스스로를 소통에 취약한 ‘약자’의 위치에 둔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비대면의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때 주로 사용되는 온라인 게시판에서의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에 대한 인상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뿐 아니라 양자가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어가기 보다는 기능적이고 추상적으로만 관계를 맺어나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대면 상태에서 문자언어만으로 연결된 관계는 서로에 대해 각자가 상상한 임의적인 방식으로 이미지화하기 십상이고 이런 상태로 진행되는 의사소통은 원활하지 못한 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포노 사피엔스의 읽기와 쓰기에 연루된 역량이 ‘관계적 자아’를 토대로 가꿔지고 있는 지에 대한 성찰을 요청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포노 사피엔스의 읽고 쓰는 방식이 추상적인 관계 상정에 기여하는 역량으로만 가꿔질 때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교육현장의 풍경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감각을 기를 수 있는 강의실이 아니라 자칫 교육자와 학습자가 ‘교육 서비스’를 교환가치로 삼아 판매자와 소비자라는 일대일 관계를 맺고 있는 강의실로 수렴되어 자리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포노 사피엔스에 속한 학습자가 포노 사피엔스에 속하지 않는 교육자와 문자를 매개로 소통하는 과정을 가질 때 마주할 수 있는 곤혹 중에서는 포노 사피엔스의 언어 생성 방식으로부터 빚어진 사례도 있다. 가령 교육자가 웃음 기호에 해당하는 ‘^^’ 표시를 학습자 격려의 차원에서 사용했을 때, 학습자들 중에는 해당 기호가 ‘윗사람이 아래 사람을 감시할 때’ 혹은 ‘윗사람의 권위를 앞세워서 아랫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말을 할 때’와 같은 경우에만 쓰이는 것으로 수신해서 발신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불쾌한 맥락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었다. 이는 포노 사피엔스의 언어 생성 방식이라 할 수 있는 복제를 통한 다른 맥락의 창출과 관련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이다.

포노 사피엔스 학습자와 교육자가 온라인 게시판에서 문자 언어를 매개로 이뤄지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들을 살피다보면, 포노 사피엔스의 읽고 쓰는 역량이란 곧 ‘디지털 리터러시’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글은 포노 사피엔스 학습자가 ‘디지털 리터러시’의 의미를 체득해가는 학습과정이 적용됐던 실제 수업 사례를 살피면서, 시적 언어를 학습하면서 습득 가능한 다양한 언어 형식과 관련된 역량이 포노 사피엔스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증진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포노 사피엔스’ 학습자가 참여하는 강의 현장에는 어떤 교육과정이 필요한지 구체화하기 위해 시도되는 연구이다.

## 2. 포노 사피엔스 언어의 특징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이해

2장에서는 포노 사피엔스가 쓰는 언어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시를 읽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을 파악해가는 과정을 가진 바 있었던 수업을 소개 한다. 필자는 교육자의 위치에서 2020년 1학기 명지전문대학교 문예창작과 전공 수업 <문예창작론>을 운영하면서 학습자들이 최근 시 작품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을 파악하도록 돕는 교육과정을 설계한 바 있다. 학습자들은 주어진 시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포노 사피엔스에 속한 자신의 언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 거리를 확보하여 파악하기 시작했으며,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특징을 인식하는 것을 계기로 자신에게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란 무엇인지를 메타인지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다. 해당 수업에서 분석이 시도된 시 작품은 다음과 같다.

부추꽃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렸다

정구지꽃, 이라고 쓰려다가  
부추꽃이라 했는데,  
아내는 우리가 먹는 그 부추?  
하고  
아이는  
줄려ㅍㅍ 했다.

할머니와 부추 밭으로 내던 오줌동이 냄새가  
어제 먹은 점심보다 생생한데,  
부추를 베어내 단으로 묶어서  
얼갈이배추와 함께 리어카에 싣고  
우체국이며 식당이며 학교 관사에 내다 팔던 기억이  
지각이 턱에 닿던 기억이  
아침에 읽은 뉴스보다 생생한데,

그때 나는 할머니와 오줌동이를 작대기에 꿰어 들고 가면서  
한 손으로 코를 싸쥐며  
오줌 냄새가 고약하게 나는 것은  
오줌 분자가 공중으로 떠다니다가  
숨을 들이쉴 때 콧속으로 들어와서  
후각세포를 건드리기 때문이라고 키득키득 웃었다  
할머니는 별 음 따까리 지는 소리 다 한다고  
팔 떨어지겠다고  
어서 가거나 하라고 통을 놓으셨다

그때 나는  
내가 아는 것을 할머니가 몰라서

우스갯소리가 될 수 없는 것이 불편했을까?

할머니는

손자가 씨월거리는 것을

농으로 받을 수 없어서 불편했을까?

아내는 나와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그 감냥을 알고서

옳다, 한 마디 거들었을까?

아이는 학원에서 줄린 것을 줄린다고 썼을까?

임종도 없이 당신을 보내고

서른 해가 지나서 나는

관사 말고는 소학교 교실에도 들어가보지 못한 당신의 쓸쓸함을

손자가 쓰는 글씨를 알아보지 못하는 서러움을

짐작이나 하게 된 것일까?

당신의 짬뽕돈으로 코흘리개를 면했고,

내 말씨의 반은 당신의 것인데,

나는 당신이 마늘 접이나 신평고 다니던 전북여객을 타고 나와서

무엇을 더 얻었을까?

나는 정구지꽃을 알고

그것이 부추꽃인 것을 알고

아내는 부추를 알고

부추김치를 담글 줄 알고

아이는 줄음을 알고

부추김치에 밥을 비벼먹을 줄 알고

나는 부추가 정구지의 표준어이고

어느 지방에서는 솔이라고도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소쉬르의 언어 기호의 자의성을 설명하기 좋은 예라는 것을 알고

그의 손제자인 벤브니스트가

그것은 “기표와 기의 사이에 적용되는 관계가 아니라

기호와 대상 사이에 적용되는 관계”라고

할아버지의 언어(langue)에 대하여

발화(parole)로 옮겨간 것을 설명하기에 좋다는 것을 알 뿐인데,

할머니는 기표도 기의도 기호도 대상도 모르셨고

부추도 솔도 모르셨고,

정구지의 사계절을 아셨다

그 순과 뿌리와

흰 꽃과 햇살과 오줌과 고깃재를 아셨다

떨이 열무 한 단에 막걸리 두어 잔이면

불과하니  
세상을 다 얻어서 단아하셨던  
당신,  
당신보다 나는  
무엇을 더 나아간 것일까?

오늘 나는 왜  
남의 발독에 쪼그려 앉아  
꽃물에 눈물을 섞어서 정구지 밭을 적시는 것일까?  
당신은 어느 발독을 타고 앉아 옛 손자의 늦은 임종을 받는 것일까?

- 장철문, 「임종」 전문, 『21세기문학』 2017년 가을호 수록

‘정구지’가 ‘부추’의 사투리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도 위의 시를 통해 시인이 부추꽃의 생김새를 분별할 수 있게 된 배경을 알게 된다면 어떤 경우의 ‘부추’는 꼭 ‘부추’가 아니어도 된다고 여기게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정구지’라는 말이야말로 시인이 그리는 ‘부추’의 정서를 더 잘 담아낸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학습자는 위의 시를 접하면서 할머니로부터 ‘정구지’라는 말을 배웠던 시인의 얘기를 읽어내는 과정을 갖는다. 다시 말해 위의 시를 할머니와 오줌둥이를 이고 밭으로 나가 거름을 뿌리면서, 와중에 작대기에 꿰어 둔 오줌둥이에서 나는 냄새에 코를 싸꿨던 채 실없는 말을 던지다가 할머니로부터 “별 움 따까리 지는 소리 다 한다고” 편잔을 들으면서, 할머니로부터 ‘정구지’라는 말의 실감을 배웠던 시인의 얘기로 듣는 것이다. 시인에게 ‘정구지’라는 말은 할머니와의 친밀한 관계에 기반을 둔 자신의 경험으로 학습된 것이다.

시를 읽는 과정에서 이를 접한 학습자는 말을 익힐 때는 그 말이 지시하는 바를 아는 것만으로 끝날 수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새삼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떤 경우를 일컬어 ‘말’을 ‘안다’고 해왔는지를 비교하는 과정을 가지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모르는 말을 학습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행위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시인이 위의 시를 통해 제시하는 ‘말을 안다’는 것은 그 말을 받아들일 때 동원할 수 있는 감각, 그 말을 주고받을 때 자연스럽게 마련되는 정서, 그 말이 형성되기까지의 역사와 더불어 익히는 것을 의미한다. 시인이 제시하는 말을 익히는 과정이란 몸에 말이 새겨지는 일과 같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포노 사피엔스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위의 시를 읽으면서 자신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정보만을 기반으로 둔 채 ‘말’을 익혀왔던 상황을 새삼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미디어 활동가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는 “디지털 혁명으로 인간의 정신 환경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지적하면서, “인간이 어머니보다 기계로부터 더 많은 어휘를 배운다는 사실이 새로운 종류의 감각의 발달을 불러”왔다고 말했다.<sup>166)</sup> 이는 언어 학습이 신체적 애착 경험으로부터 분리된 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그로 말미암아 언어로 이뤄져야 할 타인에 대한 경험이 가상화되고, 추상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신체 접촉이 주는 정서적 효과를 통해 말을 익혀나가는 과정을 가질 때 말이 형성되어 온 맥락에 대한 파악, 말이 삶의 의미를 체득해나가는 과정에서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 대한 감

166) 프랑코 ‘비포’ 베라르디, 송섬별 옮김, 『죽음의 스펙터클』 반비, 2016, 64쪽.

각이 더불어 길러진다. 반면에 포노 사피엔스 언어의 경우, 신체 접촉이 주는 정서적 효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기표들 간의 ‘뭉’ (복제)을 통해 신조어를 탄생시키고 신조어가 탄생되는 과정에 새로운 맥락이 부여되는 상황이 만들어짐으로써 말의 의미 자체가 “신체가 가진 깊이애 뿌리를” 두기 보다는 “정동적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 소통을 하는 신체들 사이의 “정동적 관계가 아니라 작동설명서에 따른 작업의 교환”으로 파악되는 특징을 갖는다.<sup>167)</sup> 베라르디의 분석을 빌려 따져보자면 타인과의 면대면 신체접촉 경험이 줄어든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매개로 언어에 대한 학습을 이어가는 포노 사피엔스의 경우, 추상적인 차원의 관계 설정, 기능적인 필요에 의해 맺어지는 관계 설정이 비대해지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언어에 대한 학습을 친밀한 관계가 제공하는 신체적인 애착 경험이 아닌 스마트폰을 통해 이룩하는 상황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포노 사피엔스는 검색 능력을 통해 ‘정구지’라는 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어찌면 이런 경우를 두고 ‘정구지’라는 말을 잘 ‘안다’고 자신 있게 자부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말을 ‘안다’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 학습자는 위의 시를 통해 ‘안다’는 것이란 기능적으로 정보만을 습득하고 마는 종류의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유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정구지’라는 말을 잇을 때 사라지는 건 비단 ‘정구지’라는 표현 자체만이 아니다. 시인의 늦은 임종은, 할머니의 세계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던 말의 역사가 저물어가는 요즘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일지도 모른다는 시의 메시지를 공유할 때, 학습자는 포노 사피엔스에게 필요한 ‘리터러시’란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도 ‘관계적 자아’를 토대로 의사소통을 형성해나가는 ‘미디어 리터러시’임을 알게 된다.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상황을 ‘나는 그것에 대해 잘 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요즘의 상황과 거리를 두고 판단하면서, ‘앞’의 상황을 추상적이고, 피상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언어를 읽고 쓰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성찰의 공간을 확보하고 삶에서 필요한 관계성을 구축해나가는 능력으로서의 문해력에 해당하는 ‘리터러시’<sup>168)</sup>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주어진 시편을 분석하면서 포노 사피엔스 언어의 특징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지금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란 ‘상대가 하는 말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한 성찰과 그 말을 한 이에 대한 이해, 그 말을 한 이와 나 사이라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통과정을 수반하고 있음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언어를 매개로 맺어진 관계의 양상을 추상화하지 않는 능력, 말이 생성되어온 맥락이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진행하는<sup>169)</sup> 읽기와

167) 같은 책, 65쪽.

168) ‘리터러시(literacy)’는 라틴어 ‘리테라투스(literatus)’에서 나온 말로 고대에는 ‘문학에 조예가 있는 학식 있는 사람’, 중세시대에는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종교 개혁 이후에는 ‘자신의 모국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되었다. 고대에는 ‘문학과 학식’이, 중세에는 ‘라틴어’가, 근대 이후에는 ‘모국어’가 리터러시 개념의 중핵으로 제시되었던 바를 살피면 시대에 따라 리터러시의 개념이 상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리터러시 개념이 읽고 쓰는 과정을 통해 여러 관계 속에서 소통을 도모하는 상황이 어떤 매체 환경에서 이룩되는지를 살피게 만들고 따라서 지금 시대의 조건을 전제로 두었을 때 정의되는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린다. 김성우, 엄기호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따비, 2020 57쪽 참조.

169) ‘나무 위키’가 치우쳐진 관점으로 정보를 짜깁기한 사이트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유에는 해당 사이트가 신조어가 어떤 경로를 통해 다른 맥락이 덧입혀지는지에 대한 정리를 포함한 채로 개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간적 경과를 포함한 개념 제시의 차원이 해당 사이트의 이용자 수를 유지시키는 상황은 포노 사피엔스가 학습자로 참여하는 교육현장

쓰기 역량을 가꾸어야 할 필요성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 3. 시적 언어의 학습 방안과 효과

포노 사피엔스 언어의 특징에 대한 인식을 확보한 학습자들이 앞으로 가꾸어야 할 ‘디지털 리터러시’란 구체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언어를 입체적으로 이해해나가는 활동을 포괄하고 있음을 익혔을 때, 다음의 학습 과정으로 가져나갔던 것은 언어를 해석적 긴장을 유발하는 상태로 이동시켜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키는 과정을 경험케 하는 활동이다. 다시 말해, ‘은유’를 짓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역으로 말의 의미를 발생시키는 관계의 구체성을 되살리는 경험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사물에 속하는 단어를 다른 사물에다 옮겨 놓는” 언어현상의 ‘이동(epiphora)’으로 정의한 ‘은유’를 지배적인 방편으로 활용하는 시적언어에 대한 학습은,<sup>170)</sup> 언어의 이동을 통해 “대상과 경험을 익숙하지 않은 관점에서 기술하여 평범하고 익숙한 언어 사용을 뒤흔들면서” 익숙한 것을 낯설음으로 전환하는 경험을 하게 만든다. 결국 은유에 대한 학습은 “to speak about x in terms of y”, 즉 “x를 y의 견지에서 말하는” 훈련으로,<sup>171)</sup>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연습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sup>172)</sup> 포노 사피엔스의 언어가 신체의 정동적 관계와 분리시키면서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발화자가 자신의 인식 프레임 하에 갇힌 채 자의적으로 언어를 활용함으로써 관계를 추상화해나가는 특징을 갖는다면, 은유에 대한 학습은 이들이 감각적으로 언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들고 관계에 대해 구체화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기대를 안긴다.

이를 위해 <문예창작론> 수업에서는 “환희” “분노” “슬픔” “부끄러움”이라는 감정과 관련한 네 단어를 제시하고, 해당 단어에 갖는 감정을 표현하되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장을 작성해보자는 과제를 학습자들에게 전했다. 이때 주어와 문장 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했다. 학습자들에게 주어졌던 예시 단어는 ‘슬픔’이었는데, “나는 슬픈 눈으로 거울을 보았다”와 같이 ‘슬픔’이 직접적으로 쓰인 표현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했고, “거울 속의 내가 일그러져 있었다”와 같이 슬픔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으면서도 슬픔을 표현하는 문장을 창작해야 한다고 했다.

제시어 ‘환희’와 관련해서 학습자들은 “비가 멈췄어. 이제 나가도 되겠다” (M) “글을 끝까지 다 썼다.” (S)와 같은 문장을 창작했다. 두 번째 제시어 ‘분노’에 대해서는 “아빠의 외도 사실을 엄마에게 알렸을 때 아빠는 나를 원망했다” (S) “망할 놈의 동네에는 망할 놈들만 산다. 그 중 내가 제일 썩다” (J) 등을, 제시어 ‘슬픔’에 대해서는 “민희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봤지만 아무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S) “물속에 잠겨 있다. 저건 무엇일까” (Y) 등을, 제시

---

에서 길러져야 할 ‘디지털 리터러시’가 살피야 할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시사점을 남긴다.

170) 시에서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쓰인 “은유가 일깨우는 언어 표현의 생생함은 그것이 어떤 사태를 ‘눈앞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가능하다.” “죽은 사물“조차 “생생한 것, 살아있는 것으로” 자리를 옮기는 은유야말로, “사물들 간의 관계를 생기 넘치게 가시화“한다는 의미다. (김애령, 『은유의 도서관』, 그린비, 2013, 11-24쪽. 참조.) 서로 구별되는 양자가 있을 때 이들 차이 사이에 놓이는 심층적인 유사성을 기반으로 ‘이동’하는 은유는 그들의 관계를 가시화함으로써 이들을 엮는 “보편성이나 일반성”을 향해가는 사유를 기반으로 한다.(김옥동, 『은유와 환유』, 민음사, 2007, 266쪽) 따라서 시를 형성하는 말이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면 은유의 역할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

171) 박영순, 『한국어 은유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0, 34쪽.

172) 레이코프, 존슨 『삶으로서의 은유』, 박이정, 2008, 24쪽.

어 ‘부끄러움’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그리지 못한다. 붓에 물을 묻히고 칠하는 척을 한다”(M) “모르는 걸 알고 있다고 착각했다”(S) 등의 문장을 창작했다.

이러한 창작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이미 드러나 있지만 거기에 맞춘 언어로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비유(metaphor, 은유)’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배우고,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은유를 통해 사물들 간의 관계를 생생하고 적합하고 생기 넘치게 가시화하는 언어 형식을 익힌다. ‘A는 B이다’라는 형식의 문장 안에서 ‘A’와 ‘B’ 두 개념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발견되어야 형성될 수 있는 은유에 대한 학습은 언어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어떤 차이와 유사성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하게 만들고, 언어를 활용하는 학습자 자신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언어를 다루는 주체로 자리하게 만드는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또한 창작에 그치지 않고 같이 수업에 참여하는 이들이 서로의 문장을 접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습자가 다른 사람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노출되는지, 또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어떻게 마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맞이하게 만드는 일 역시도 중요하다. 이는 포노 사피엔스 학습자가 빠질 수 있는 자기동일성에서 벗어나 언어를 사용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효과를 만든다.

#### 4. 결론 : 시적 리터러시 교육 설계의 필요성

코로나19는 비대면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교육현장에서 포노 사피엔스 학습자와 교육자에게 필요한 역량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것임을 일깨워주었다. 이때 ‘디지털 리터러시’란 관계의 구체성을 잃지 않고 이뤄지는 읽고 쓰고 소통하는 역량임을 살폈다. 이 글은 실제 수업 사례에서 활용됐던 학습 과정을 살피면서, 자칫 추상적인 관계 속에서 피상적인 정보 차원을 구성하는 기호로만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포노 사피엔스 학습자에게는 관계의 구체성을 살리고 언어에 입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시적 언어의 학습이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발휘했음을 살피고자 했다. “포노 사피엔스 문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 거센 변화의 물결은 막을 수 없는 게 현실”<sup>173)</sup>이라면, 포노 사피엔스를 ‘소비자’로서만 호명하면서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자로만 바라보는 관점보다는 포노 사피엔스가 어떤 문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포노 사피엔스에 의한 문명사회를 이룩해나갈 때 필수적인 리터러시의 증진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 과정에서 ‘시적 리터러시’와의 연계는 적극적으로 설계되고 참조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

173) 최재봉, 앞의 책, 7쪽





## 디지털 리터러시와 시적 언어의 학습 효과 토론문

안 상 원(부산외대)

양경언 선생님의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리터러시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는 교육환경에서, 비대면 체제는 과연 학습자들의 리터러시 능력에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 고민이 높아지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시적 언어 맥락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하게 되는 상황에서, 선생님의 발표를 보며 아이디어를 얻는 동시에 교수자로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대면 상태에서 문자언어만으로 연결된 관계는 서로에 대해 각자가 상상한 임의적인 방식으로 이미지화하기 십상이고 이런 상태로 진행되는 의사소통은 원활하지 못한 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포노 사피엔스의 읽기와 쓰기에 연루된 역량이 ‘관계적 자아’를 토대로 가꿔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요청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3쪽) 등이 그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선생님의 접근법에 동의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2장은 검색과 화면을 통한 학습이라는 ‘포노 사피엔스’의 특수성을 장철문 시인의 「임중」을 해석하는 방식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 시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얻은 것만으로도 2장의 읽기가 풍요롭게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과정이, 선생님께서 논의하신 ‘메타화’와 연결되려면 실제 학습자들이 시를 읽고 느낀 감상이나 메타창작의 예시가 뒷받침될 때 의미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실제 학습자들의 감상과 이 시가 연결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3장에서는 실제 학습방안과 효과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은유론을 기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예창작론> 수업에서 ‘~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라는 활동이 흥미로웠고, 실제 교수자들이 활용하기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활동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돼 있어 아쉽습니다. 풍요로운 활동을 체계화한다는 것이 좀 답답할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교육방안을 논의하시는 만큼, 활동 지시문, 학습자들의 창작 결과, 그리고 결과의 유형화와 분석을 중심으로 도표화되면 논의가 더 살아나리라 생각합니다.

3. 선생님의 접근법에 더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은유나 환유는 결국 본체와 매개라는 틀을 갖추고 있지만 완벽하게 1:1(혹은 1:다)로 대응되지는 않습니다. 여백, 미끄러짐 등이 생겨날 것인데요. 이러한 잉여적인 과정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 고민 등이 함께 논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잉여적인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은 실제 수업에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시론 내지는 평론으로 접근하기 좋을 주제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답변 대신 선생님이나 제가 고민할 수 있는 화두로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서론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포노 사피엔스가 상정한 자아 이미지’라는 것은 비유의 본체에도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본체’이자 ‘매개’가 결합된 아우라의 흔들림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창작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이 시 읽기-쓰기에 반영될 수 있을지요.

두서 없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